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42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7월 29일(음력 6월 8일) 수요일(주간)

사람 성균관대 유필화 교수

붓다의 경영학을 알아?

"붓다가 법을 펴면서 설한 '자리이타(自利利他: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이롭게 한다)'는 현대 기업의 고객만족을, '발심(發心: 간절한 원을 세운다)'은 비전 제시의 필요성을 뜻합니다."

저서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 <CEO, 고전에서 답을 찾다> 등으로 널리 알려진 유필화 교수(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부학장)가 독일 대학원생들에게 '붓다의 경영학'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독일 대학원생들에게 '불교와 경영' 강의를 하는 유필화 교수.

독일 대학원생에 특강
인연과 내부마케팅 강조

유 교수는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SKK GSB)이 7월 21~23일과 28~30일, 독일 슈타인바이스대 기술경영(MBE)전공 대학원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단기 집중 여름학기 수업(슈타인바이스-SKK GSB과정)에서 '불교와 경영' '삼성전자 마케팅 성공 사례' 등을 강연했다.

올해 2번째인 이번 독일 학생 연수는 유필화 교수가 21세기 경영원리를 불교사상으로 재해석한 '불교와 경영' 강좌 등에 학생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다시 열렸다.

푸른 눈의 수강생들은 유 교수가 '불교와 경영' 강좌를 통해 전달한 인류 최초로 고객만족을 주창한 붓다의 정신과 불교사상에 담긴 경영의 핵심원리에 한껏 매료됐다.

강연에서는 <임제록>의 '수처작주隨處作主: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된다)'와 <대반열반경>의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 마음을 부처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주인의식으로 응용될 수 있는 경영원리라는 설명 등이 이어졌다.

붓다가 강조한 '지금 여기'를 강조한 가르침은 '순간순간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원칙으로, 절집 특유의 토론 문화는 바람직한 기업의 토론 문화로 모색됐다.

특히 유 교수는 미당 서정주의 시 '국화 옆에서'를 소개하며 불교의 인연법을 통해 조직 경영혁신이론인 내부마케팅(Internal Marketing)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유필화 교수는 "회사와 개인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얽혀있어 외부고객이 중요한 만큼 내부고객 역시 중요하다"며 "불교의 연기론적 사고가 없는 회사는 그 만큼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 현대불교로 맺은 '아름다운 인연' 이야기

"평생 도반으로 살자구요"

제천 문수회의 유쾌한 '나눔 실천' 본지 기사에 감동
美 김경자 보살 매월 '후원'… 부산서 '눈물의 상봉'

"아이고, 사진 보다 젊어 보이고 미인이시네~~."

"어머, 형님. 이렇게 여러분이 오셨네요? 형님들 정말 건강하시고 고우시다."

폭우를 퍼부어 대던 하늘이 갰다. 7월 19일, 부산 해운대 한 호텔 대연회장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결혼식을 앞둔 신랑 · 신부가 리허설에 열중이고 가족들은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쁘다. 아직 예식이 시작되려면 두어 시간이 남았는데 머리가 하얀 노보살님과 중년의 보살님들이 연회장으로 들어와 두리번거렸다. 잠시 후 선의화(박정희 74) 보살님이 '저기 있네' 하며 달려가 신랑 어머니 앞에 섰다. 이내 서로를 알아보고 와락 껴안는 두 보살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6년 동안 전화 안부만 전하다가 7월 19일 부산에서 만난 문수회 회원들과 김경자 보살(왼쪽에서 두 번째).

미국 시카고에서 둘째아들 결혼식을 위해 부산으로 날아 온 김경자 보살님(65). 전화로만 만났던 김경자 보살님을 만나기 위해 제천에서 달려 온 12명의 '문수회(회장 강봉순 56)' 회원 보살님들.

이 아름다운 인연은 '현대불교'를 통해 맺어졌다. 2003년 2월 5일자 현대불교(407호) 17면에는 즐겁고 유쾌하게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제천 문수회 보살님들이 소개됐다. 매월 승가원을 방문해 일손을 돕고 지역 복지관을 순례하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보살행은 미국의 독자들에게도 '감동'이었다.

김경자 보살님은 신문을 보고 곧바로 '현대불교'로 전화해 문수회 보살님들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매월 100달러씩 후원금을 보냈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을 선의화 보살님이 설명했다.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후원금을 보내는 김 보살이 고마워서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었지. 그래서 농사지은 깨나 고추 땅콩 등을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도 오고가고 가끔 전화 통화도 하면서 친구처럼 형제처럼 지내게 된 거야."

지난 6년 동안 공간을 초월해 '보살행'의 파트너로 살아 온 보살님들이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

"1978년에 이민 가서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이제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아들 3형제도 잘 컸어요. 교민사회에서 '교회 나오라'는 전도의 손길을 뿌리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민 가서 세탁소를 열고 이웃집 교포에게 바느질 기술을 배우려는데 '교회 나오면 가르쳐 준다'지 뭡니까. 그래서 교회 안가고 미국사람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그 미국인이 바느질의 달인이어서 기술 하나는 제대로 배웠어요."

한참동안 이어진 김경자 보살님의 이야기에 웃고 울던 제천의 보살님들이 뭔가를 내놓았다.

표고버섯과 김, 풍기 인견으로 만든 홈드레스 등이었다. 또 <법화경> 법문 CD 한 세트도 정성스럽게 포장돼 있었다.

"출 퇴근할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아니 이렇게 만난 것도 감사한데 선물까지 준비하시다니…."

김경자 보살님이 "평생 좋은 도반으로 살아요. 형님들 더 늙지 마시고…"라며 눈물을 닦아내자 제천의 노보살님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암우린 좋은 도반이고 말고"라며 어깨를 토닥였다.

이 아름다운 '상봉'을 취재하러 간 기자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결혼식은 진행됐고 제천의 노보살님들은 "우리가 손주며느리 얻는 기분"이라며 즐거워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보살님들은 다시 한 번 얼싸안고 "또 좋은 일로 만나자"며 인사를 나눴다. 김경자 보살님은 총총히 떠나는 '형님'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동안 합장하고 서 있었다.

"금생에 다시 못 만날지라도 다음 생엔 분명히 다시 만나 더 좋은 도반이 될 거예요. 부디 건강하세요. 형님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정부·여당 참회하라"
실천승가회 촉구

7월 22일 정부 · 여당의 미디어 관련법 등 강행처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법안)가 정부 · 여당의 참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실천승가회는 23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현 정부의 사죄를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미디어 관련법 통과로 조선 · 중앙 · 동아일보와 재벌이 방송에 진출하면 서민들의 주장은 이익집단의 소행으로 호도되는 등 여론을 변질시킬 것"이라며 "정부 · 여당은 강행처리한 법안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社告 '정법 잣대로 한국불교 재보자

정법불교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
8월 14~18일 실상사 일원에서 개최

초기 · 대승 · 선 · 현대불교가 하나로 관통되는 불교관을 확립하고 이론과 실천 수행과 생활이 통일되는 수행론을 형성해 현대문명의 문제에 응답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야단법석은 법사스님의 강의와 각본도 연출도 없는 허심탄회한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무비 스님 움직이는 선원 조실

혜국 스님 전국선원수좌 대표

향봉 스님 움직이는 선원 열중

도법 스님 움직이는 선원 열중

참가 신청 · 문의
-실상사 종무소: 063-636-3031 · 3191
-입금계좌:513160-51-024632(농협, 예금주:실상사)

주최:민족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 · 주관:실상사 · 후원: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Hot


효란 스님 14선지식

성운 스님 06복지

향적 스님 18책세상

법구경
악한 행위는 재 속에 숨어 있는 불씨처럼 어리석은 이의 뒤를 끝끝내 따라다닌다.

현대불교 e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패
용도:상량식,봉사 복장의식,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정다원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10,000원
A5 / 287쪽



죽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5억→5조원 봉은사땅값 만배

경기회복세에 따른 부동산 활성화에 강남 노른자 땅인 삼성동 코엑스 인근 한전 본사 부지 개발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전 본사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계획으로 2012년까지 전남 나주로 이전된다. 7만9342㎡에 달하는 한전 본사 부지는 시가 1조 2000억 원 수준으로 개발 가치는 5조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비싼 금싸라기 땅이 1970년대까지 봉은사 소유였다는 사실은 많은 불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당시 삼성동 일대는 상공부가 정부 인구분산 정책에 따라 대규모 종합청사 건립 부지를 물색하면서 매각됐다. 조계종은 1970년 5억 3000만원(평당 5300원)을 받고 10만 평을 한전 등 상공부 산하 기관에 넘겼다. 지금과 단순 비교해도 39년 간 약 1만 배가 높아진 것이다. 이는 무역센터와 인터콘티넨탈 호텔 등 당시 부지를 포함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당시 봉은사 소유의 땅이라도 처분권은 조계종 총무원이 가지고 있었다. 총무원이 땅을 매각한 까닭은 중구 중앙공무원 교육원 건물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강남 넓은 땅을 남산 건물 한 채와 바꾼 것이다. 절 땅 매각은 조선시대 억불숭유 정책으로 서울 주요도심 대형사찰이 몇 안 돼는 현재, 더욱 큰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교계 희생으로 각종 기관들이 강남에 이전돼, 지금의 번화한 강남이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구증가로 이미 설립된 도시 계획 방침을 몰랐던 것은 정부의 속임수에 넘어간 불교계의 '무지' 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삼보정재의 보전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왔다. 4년 임기의 사찰 주지가 남몰래 사찰소유지를 매각하거나, 소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설사암을 만드는 등 정재 유용사건이 발생했다. 종단 소유라도, 종단 권력계파 간 이해득실에 따라 처분되는 경우도 있었다.

종단 재산은 법적으로는 종단 소유로 돼있을지라도 모든 사부대중의 재산이다. 또 먼 훗날에 사찰을 찾고, 불교를 접할 미래불자들의 재산이기도 하다. 최근 국립공원 사찰경내지 제외 요청 등 불교계 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불자들은 옛 봉은사의 사례에서 재산권 행사의 근본목적이 삼보정재 보존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할 때다.

"사찰 경내지 자연공원서 해제하라"

조계종 전국 사찰서 한 목소리… 사찰별 활동 채택 위한 법회 8월 20일 예정

"전통사찰 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라!"

"종교활동 침해하는 자연공원 반대한다!"

사찰경내지의 자연공원 해제를 촉구하는 7 · 2본말사주지결의대회의 목소리에 2000만 불자가 힘을 보탰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7월 22일 조계사 등 3000여 사찰에서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기 위한 전국사찰 동시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첫 번째 동시법회로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해야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법회가 열렸다. 8월 20일(음7 · 1)에는 본말사 주지 결의사항에 따라 사찰 특성에 맞는 실천활동을 채택하는 내용으로 법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7월 22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기 위한 동시법회'에서 대중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전 11시 30분, 전국 사찰에서 범종이 여덟 번 울림과 동시에 시작된 법회는 대중들의 피켓팅 및 구호, 법문, 서명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직접 법문한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에서는 타종에 이어 1500여 사부대중이 일제히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지관 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오래된 사찰(전통사찰)은 예로부터 수행환경, 가람수호, 산림보존 등에 힘써왔다"며 "지금은 국립공원 등에 오래된 사찰이 강제로 포함되면서 무엇 하나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 말했다.

이어 스님은 "사찰경내지의 자연공원 해제가 단시일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 해를 잘하고 한 뜻을 모아 불교계에 대한 중첩 규제를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하나로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법회 후 대중들은 대웅전 앞에 마련된 서명용지에 서명을 하고, 정부에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의지를 모았다.

한편,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기 위한 서명운동은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해인사, 신흥사, 월정사, 화엄사 등 전국 조계종 사찰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진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군종특별교구 2기 교구장 자광 스님 취임

군포교를 진두지휘하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차기 교구장으로 자광 스님이 취임했다. 군종특별교구는 7월 24일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2층에서 교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자광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4년간 홀륭히 군종교구를 이끌어 온 일면 스님의 업적을 이어 군승뒷바라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건축법 개정, 전통사찰 개보수 가능

건축법시행령 중 일부 '적용 2년 유예'

건축법상 제약에 갇혀 화재나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진입로를 제대로 갖출 수 없어 불자 및 관람객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지켜봐야만 했던 전통사찰의 고충이 한시적이나마 해결될 길이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실장 장적)은 "7월 16일자로 건축법시행령에서 도로 및 면적산정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고 21일 발표했다.

16일 공포된 건축법시행령은 전통건축에 대한 개축 및 대수선 기준 개선과 특례 인정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처마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됐고, 개축 · 대수선시 지붕틀 범위에 서까래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도 기존 1m~6m 간격에서 처마선 0.5m~2m, 외벽선 1m~2m로 조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옥 양식을 갖춘 전통사찰의 개 · 보수와 도로로 인정받지 못해 확장이 불가했던 사찰 진입로의 증 · 개설이 가능해졌다.

장적 스님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은 수백년 전부터 존재했음에도 건축법상,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신행활동, 재난과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한 도로의 신설 · 확장 등을 할 수 없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온 전통사찰에 대한 예외적 인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장적 스님은 "건축법시행령 부분 개정을 통한 일부 해소에 그치지 않고, 조계종은 정부를 상대로 건축법에서 전통사찰을 근본적으로 적용 제외하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종단개혁 *new* 패러다임 모색

불교미래사회硏, 종책좌담회 29일 개최

1994년 종단개혁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산하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7월 29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변화와 합리적 개혁을 이야기한다'를 주제로 종책좌담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법안 스님을 비롯해 현응 스님(前 해인사 주지),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사회적 변화와 이에 따른 종무행정의 현실 진단 △삼권분립에 따른 종단 각 기관의 위상과 역할 평가 △종단 정치의 현실 진단 △종단의 사회참여와 과제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법안 스님은 "향후 미래지향적인 종단 운영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한류스타와 中 · 日 팬 만남이 절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팬미팅 템플스테이 추진

원조 한류스타 안재욱을 비롯한 인기 연예인들의 팬미팅이 사찰에서 열릴 전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7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안재욱과 김민종 등 한류스타 팬미팅에 참가하는 일본 · 중국인 팬들을 템플스테이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불교문화사업단 장보배 홍보팀장은 "스타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로 보다 친근하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전달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며 "스타와 팬이 함께하는 다양한 템플스테이 이벤트, 홍보작업 등을 진행함으로서 템플스테이의 이미지를 더욱 새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하반기 주요사업계획에서 국내외를 비롯한 외국인 참가자들을 위해 교육과 홍보물 제작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상언 기자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2009년도 2학기 신입생모집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특별 최고 과정	책임교수
풍수지리학 최고지도자과정	최병용
명리학 최고지도자과정	유방현
실상철학 최고지도자과정	안병철
한국전통 국악지도사	이정석

전문 최고 과정	책임교수
실전 사주명리학 영업 전문가과정(정규반/토요반)	김동현
육효학 전문가과정	최대환
타로카드 전문가과정	김희수

일 반 과 정	
건강과 양택 풍수인테리어	정안석
고미술품 감정학	정 황
관 상 학	최인영
구궁통기	나광영
구성기학	김도희
기문둔갑	신정균
논리로 푸는 사주학 Ⅰ	김윤연

일 반 과 정	
논리로 푸는 사주학 Ⅱ	박성희
논리로 푸는 사주학 Ⅲ	소재학
도가경전강독	윤무학
명리학 기초	정재혁
명리학 용신론	유경진
명리학 현장강의	장순옥
명상음악치료	보경스님
민 화	권청자
민속음악	이생강
문 인 화	하영준
불교전통의식(기초)	상진스님
불교전통의식(전문)	상진스님
사랑과 연민의 대화	김점란
사주내정법	윤예지
성 명 학	윤예지
실전치유기공	박형용
실전 추나(교정)요법	조혁태
실전 테이핑 요법	조혁태
인 상 학(야간반)	박정희
인 상 학(주간반)	박정희
약선요리와 전통요리	우신자
역점독해	조주은

일 반 과 정	
요가치유	임동호
유가경전강독	윤무학
육 임(실전반)	조태운
육 임(초급반)	최용균
육 효 학	김도희
이름으로 푸는 사주학	안희성
주역원전	신성수
최면치료	설기문
카이로프랙틱	정지문
한국무용(기본반, 살풀이춤, 민요춤)	한주연
한방과 사주학	한승철
현공풍수학	한승철

학 점 은 행 제		
동 양 화 전 공 (12과목)	문인화 Ⅰ	하영준
	문인화 Ⅱ	박병배
	서예 Ⅰ	곽노봉
	서예 Ⅱ	곽노봉
	수묵화 Ⅰ	최현익
	동양화기법	이용석
	기초동양화	하영준
	동양화론	하영준
	서화론	곽노봉
	채색화 Ⅰ	박만규
	현대회화론	하영준
	미학개론	하영준

학 점 은 행 제		
불교문예	불교학개론	심상현
	불교문화의 이해	주명철
자연치유	명상과 단전호흡	김형록
	스포츠댄스	천수정
외 국 어	영어	백원기
	생활중국어	조숙주
문화정보	공연기획과 실행	정달영
	인공지능의 이론	김두완
동양철학	중국철학사	윤무학
	유가철학	윤무학
전통공예	옻칠의 성분분석	권순섭
	옻칠기법	권순섭
미래예측	생활역학	박영창

등록기간
2009년 9월 1일 화요일 까지

등록방법
방문 및 전화접수(과목별 선착순마감)

개 강
2009년 9월 1일 화요일

지원자격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가능
(단, 학점은행제과목은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의 학력 인정 자)

문 의 처
■ 전 화 : 02)3668-9890, 9872
■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92-1
■ 오시는 길: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 버스환승 1111번, 2112번 → 동방대학원대학교 정류장 하차

※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풍수 · 명리분야는 자격기본법에 의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3668-9890, 9872 www.dongbang.ac.kr

"동국대의 내일 위해 혼신 다할 터"

東大 제36대 이사장 취임 정련 스님… 종하 스님, 발전기금 1000만원 전달

"동국가족들이 염원하는 안정과 화합, 변화와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가슴 깊이 새겨, 동국대의 내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 제36대 이사장에 취임한 정련 스님(부산 내원정사 · 사진)은 7월 2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다짐했다.

스님은 취임사에서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이사회를 안정화하고, 조계종단과의 관계를 생산적이고 협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련 스님은 "모든 현안을 충분히 풀어놓고 긴밀하게 상의해 나가며 협력이 필요하면 기꺼이 도움을 간청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누구와도 만나고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동국대가 그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지배구조와 운영체계, 리더십 등이 뒤쳐져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스님은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전제로 주요경영진의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점검하겠다"며 "명문사학으로의 재진입을 목표로 학교운영시스템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학제개편과 특성화 준비, 자원재분배와 재정운영의 안정화 등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련 스님이 취임사를 통해 보인 동국대의 비전은 △안정적인 이사회 운영 △법인의 학교에 대한 재정기여도 제고 △소통하는 열린 조직문화 조성 △자율과 분권을 통한 창의적 조직 운영으로 요약된다. 특히 과거와 달리 이사장 취임식에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참석한 것은 정련 스님의 화합과 개혁의 기조를 뒷받침 하는 부분.

지관 스님은 치사에서 "이사장 스님의 새로운 각오와 구성원들의 협



력으로 동국가족과 2000만 불자가 염원하는 대학이 되기를 바란다"며 "103년 전 불교 선각자들이 교육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동국대를 건립했다면, 지금은 불교와 민족발전의 새 전기를 위해 제2의 동국건학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동국대 이사장 취임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부림 · 정무 · 종하 스님과 포교원장 혜총 스님, 교육원장 권한대행 법장 스님, 정호 · 정여 · 혜림 스님 등 동국대 이사, 성직 · 대오 · 지홍 · 덕문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총무부장 원학 스님을 비롯한 교역직스님이 대거참석했다. 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허남식 부산시장,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자리했다.

이날 원로의원 종하 스님(서울 관음사)은 동국대 상임이사 성관 스님(수원사 주지)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써 달라며 1000만원을 전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동국대 총학생회는 취임식을 전후로 "무리한 학제개편과 학생징계를 철회해 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학생회장은 취임식에서 정련 스님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며 학생회의 요구가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2009 연등축제 시상… 한마음선원 등 정진상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위원장 지관)는 7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09 연등축제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한마음선원(주지 혜원),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 등 12개 단체가 정진상을, 옥천암(주지 정범) 등 7개 단체가 보현상을, 대불련 연희단과 동방불교대학 등 5개 단체가 원력상을 수상했다. 또, 감사패를 받은 가수 겸 작곡가 김현성씨를 비롯해 한마음선원 어린이회 최은화 지도교사 등 14명이 개인 표창을 받았다. 한편, 올해 시상은 우천 등 악조건 속에서 모두가 수고했다는 여론에 따라, 예년과 달리 봉축상과 연등상 없이 정진상과 보현상을 늘려 시상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서불대 '임원취임 승인 취소'

교과부 위법사항 시정 촉구… 이사장 지욱 스님 반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학내분규 중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사장 지욱, 이하 서불대)에 "임원취임 승인 취소"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교과부는 7월 17일 학교법인 보문학원에 감사처분 미이행과 관련한 2차 계고문을 발송하고, 1차 계고(5월 26일)시 미이행된 사항과 민원조사 결과 추가로 지적된 위법 · 부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2차 계고문에 따르면 보문학원은 8월 3일까지 △서불대 황윤식 총장 등 관련 교직원의 해임 징계 철회 △박성현, 성승연 교수의 재계약거부처분 취소 △김명권, 조옥경 교수의 복직 등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학원정상화를 위해 총장의 신분보장을 명시한 것이나 이사장 등이 학사행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서불대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는 조항은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사장 지욱 스님은 "교과부가 이사승인 · 취소건을 갖고 있다 해서 무소불위의 검을 휘두르고 있다"며 "교과부 계고를 따른다면 몇 안되는 종립학교 중 하나인 서불대는 망하고 말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스님은 "정관을 개정하려면 이사 5인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이사장은 업무정지 되고 이사는 4인뿐이며, 신규 이사 2인은 승인도 미루고 있으면서 정관 개정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지욱 스님은 "학칙을 개정하라는 교과부 요구는 과하지만, 교수권 · 학습권 보장 등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겠다"고 밝혀 교과부가 요구한 시정사항을 수용할 뜻도 있음을 내비쳤다.

서불대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가 2차 계고문에서 요구한 시정사항들을 환영한다"면서도 "7월 24일 현재까지 아무 변화가 없다. 황윤식 총장도 복귀만 됐을 뿐 총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은 막힌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서불대 학생회(회장 오세준)는 최근 조계종 호법부(부장 정만)에 "보문학원 이사인 A 스님(중앙종회 부의장)과 B 스님(용인 보각사 주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동섭 기자

'종교평화 블로거' 양성 조계종 나서

공직자 종교편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세영)와 불교아카데미(원장 박희택)는 8월 19일에서 11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종교평화블로거 양성과정'을 마련한다.

강의는 8월 19일 정웅기 불교아카데미 상임연구위원 '민족문화 · 사상 · 종교의 위기와 종교차별의 이해' 강연을 시작으로 총 12회로 진행된다. (02)2011-1824

노덕현 기자

다문화 가족 등에 '정성' 전해

조계종 · 아름다운동행 1억1600만원 보시

경제 양극화로 고통 받는 저소득 계층에 불자들의 따듯한 정성이 전달됐다.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은 7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다문화 가족, 난치병 환우 가족,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가족 등 2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의료비 지원 및 1차 긴급생계비 1억1600만원을 전달했다.



자비나눔 지원금을 전달하는 지관 스님.

전달식에서는 환아 및 다문화 가족 등을 보살피고 있는 조계사 김경숙 신도(500만원)와 영진사 영진원 진성 스님(200만원)을 포함한 111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1억1600만원이 전달됐다. 세부사항으로는 긴급생계비 6800만원, 난치병 및 다문화 가정 환우 치료비 4800만원이다.

이번 지원된 기금을 비롯해 지난 5월 1차 긴급의료비 7200만원 지원, 자비의쌀 지원 8000만원 등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이 그동안 지원한 금액은 총 2억6800만원에 달한다.

직접 대상자로 참가한 36명에게 단상에서 지원금을 일일이 전달한 지관 스님은 "전달된 이 돈은 적지만 불자들이 1배의 참회로 100원 씩 모은 소중한 돈"이라며 "넉넉히 보내준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 이타정신으로 모아진 것이므로 행복하게 써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저소득 · 실직가정돕기 자비나눔사업' 결과 7억 2317만원(약정 포함) 기금이 답도했음을 밝혔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社告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Dream 꿈 드림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현대불교신문사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드림'을 전개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4대강 정비사업 '멈춰'

불교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조계사서 농성

불교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준)는 7월 24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4대강 운하개발사업 저지 불교계 천막농성 입재식'을 개최했다.

입재식에는 조계종 환경위원장 주경 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현각 스님, 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 지관 스님, 광명불교환경연대 대표 승묵 스님, 실천승가회 환경위원장 정휴 스님 등 불교단체 대표와 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입재식에서 현각 스님은 "우리의 욕심이 뭇생명을 죽이고 있다. 불자들은 수행의 양심에 비춰 저지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불교계 각 단체는 10월 중순까지 매일 3000배 릴레이 기도정진 및 인사동 홍보캠페인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어 '생명의 강을 위한 작은 음악회'와 사진전, 세미나 등도 열 계획이다.(02)720-1654

노덕현 기자


前 세계 〝미세스 진〟 현지 방필석 촬영

신생아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네★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이름만 알려주어도 신비한 오행비법으로 건강, 적성, 재물,
미래운세 등 정확하게 무료상담하여 드립니다.

작명

이름을 잘 지어주면은
자식이 효도하고 어버이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고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같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0년 작명
국가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5577
* 작 명 : 국, 내외 우편발송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소장 방필석

운명을 바꾸는 아호, 개명

주역 개인지도

방필석 대외활동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 제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20차 세계불교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중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現 서울 보명사 주역강의 강사
前 세계불교도 우의회 홍보차장
現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現 한국민속철학연구소장

“화랑의 정신 이어 삶의 주인 되기를…”

파라미타청소년 경주서 전국 연합캠프… 유적답사 수상활동 등 청소년들 열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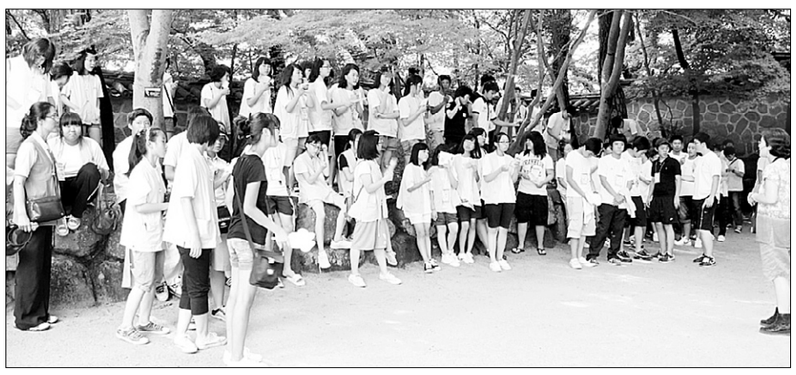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미래인 전국 청소년들이 화합과 교류의 어울림 한마당을 펼쳤다.

청소년 축제의 장이 되고 있는 제12회 파라미타청소년 전국 연합캠프가 7월 20~23일 경주 보문청소년수련원 및 경주 일원에서 개최됐다.

설립 13주년을 맞이한 파라미타(회장 도후)는 ‘화랑의 기상 파라미타!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불교문화유적을 참배하고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고 배우는 장을 마련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감염 확산으로 적은 인원이 참가할 것이라는 주최 측의 예상과는 달리 200여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가 더 모여 1400여 명이 참가해 프로그램 운영과 숙소 확보 등에 약간의 차질을 빚기도 했다.

캠프의 첫날인 7월 20일 저녁 입재식에는 연두색, 하늘색, 보라색으로 곱게 전통 복색의 단복을 입은 전국 파라미타 청소년들이 야외공연장 앞에 모였다. 입재식에는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총재 혜총 스님, 파라미타 회장 도후 스님, 파라미타 초대총재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사무총장 부명 스님,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이사 상인 스님 등이 함께했다.





경주 불국사에서 문화해설사와 함께 사찰순례를 하는 청소년들(왼쪽), 친구의 팔목 굵기에 맞춰 합장주의 매듭을 지어주고 있는 모습(오른쪽).

도후 스님은 대회사에서 “계층 간의 긴장과 갈등을 조절하고 완화해 단결된 힘으로 신라의 삼국통일에 크게 이바지했던 화랑의 정신을 본받아 스승과 제자, 친구 간에 배려하는 마음과 아껴주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생활로 이번 연합캠프가 성공적으로 회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둘째 날부터 진행됐다. 문수분단, 보현분단, 관음분단 등 3개의 분단이 신행문화 활동, 유적답사활동, 사찰 순례 등을 순차적으로 체험했다. 교리퀴즈, 컵 등 만들기, 합장주 만들기 등의 신행활동, 경주남산 · 분황사 · 안압지 등 유적답사, 불국사 · 석굴암 사찰순례, 조계종 포교부장 계성 스님의 특강, 청소년 백일장 등이 열렸다.

신행문화 활동이 한창인 현장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차분한 광경이었다. 고학년들은 컵 등이나 합장주 만들기에 익숙한 모습이었고 저학년들은 어렵기도하고 신기한 체험에 푹 빠졌다.

서대윤(제천 대제중학교)군은 “처음으로 합장주와 컵등을 만들어 보면서 조금 어려웠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어 즐겁고 신기하다”며 즐거워했다.

경주 불국사에서 진행된 사찰순례에는 문화유적해설가가 동행했다. 무더운 날씨에 많은 인원이 함께 다니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지쳐갔지만 해설가의 설명에 귀 기울였다.

범어사에서 온 정희택(고2)군은 “매년 오는 곳이지만 불국사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인 설명을 듣고 법당 참배하니 느낌이 새롭다. 무엇보다 여러 지역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22일 축제의 날에는 학생들이 가장 기대했던 감포 오류해수욕장의 수상활동, 음악놀이페스티벌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음악놀이페스티발에서는 청소년들의 경연대회로 대상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그 밖에도 자율선택활동으로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진행된 아침예불에는 7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어 야단법석을 이루기도 했다.

부명 스님은 “장마철에 신종인플루엔자의 염려에도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낸 만큼 실무자를 비롯한 봉사자들이 열심히 뛰겠다”며 “불교의 희망이고 한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경주 천년고도의 자리에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Hi! Hi! 토요영어법회

국제포교사회, 8월 1일부터 법회 시작

국제포교사회(회장 박상필)가 조계사와 인사동, 고궁의 문화벨트를 국제포교의 전진 기지로 삼고 토요영어정기법회를 시작한다.

국제포교사회는 8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4~6시 조계사 건너편에 있는 템프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외국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토요영어법회(Saturday Dharma Group)를 봉행한다.

법회는 참선, 예불, 법문, 신행체험, 문화체험, 문화유적 답사, 사찰순례, 친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박상필 회장은 “세계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었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불교와 문화를 접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어 토요영어정기법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8월 1일 첫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특별법문이 열릴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대불동, 군포교 활성화 시동

20여 명 법사진 갖추고, 군법당 지원



명호근 회장(오른쪽)이 군포교지원단 박호석 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한국대학생불교총동문회(회장 명호근, 이하 대불동)가 군포교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부쳤다.

대불동은 일부 대불련 출신 포교사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한 경우와는 달리 20여 명의 법사진을 갖추고 법사가 없는 부대의 법회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법사진으로 활동할 동문회원들은 스님을 비롯해 교육, 법률, 의료, 경제,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장병들에게 기존의 법회와는 차별화된 법회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불동은 이와 관련 7월 19일 서울 내방동 법당에서 ‘군포교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

군포교지원단 박호석 단장은 “군종이 파견된 지 41년이 됐지만 한 해 군포교 예산이 개신교 100억대, 가톨릭 30억대인 반면 불교는 고작 3억 원임에도 최근에 논산훈련소에서 법당을 찾는 신병들이 교회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며 “공병여단 법왕사도 지난 1년간 법회를 지원하다 보니 교회보다 신도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단장은 “잠재하는 지성불자인 대불동 회원들을 군포교 현장으로 이끌어내 조직의 활성화와 더불어 불교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만큼 전, 현직 교사(교수) 동문은 꼭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포교지원단은 7월 넷째 주 말부터 전방 육군 제1사단 12연대 무선사 법당 등, 총 11개 부대 법당을 대상으로 법사지원, 공연지원, 간식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금년 하반기에는 1군단 지역에서 법사가 없는 제1공병여단 등 7개 군법당에서 일반법회를 지원하고, 제1사단 등 4개 사단 신병교육대를 대상으로 공연법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02)720-1963

이상언 · 박선주 기자

신행게시판

●위빠사나 수행법회 봉행=상좌불교한국명상원은 8월 9일 오후 2시에 대구 구도회에서 제30회 대구 위빠사나 수행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묘원 법사가 지도하고 위빠사나 법념처 법문, 경행, 좌선, 면담 순서로 진행한다. (02)512-5258

●2박3일 집중 수행=제따나와 선원이 일일수행, 토요집중수행, 철야정진의 단기 수행에서 일정기간 집중적 수행으로 한 단계 심화된 수행프로그램을 마련했다. 7월 30일~8월 1일, 8월 6~8일, 13~15일 선원 일반 4만원, 운영회원 및 대학생은 3만원이다. (02)595-5115

●7일 용맹정진=부산 여래선원은 8월 11~19일 오후 8시부터 화명동 여래선원에서 용맹정진을 실시한다. 참가비는 7만5000원으로 간편한 참선복과 세면도구, 바루를 준비하면 된다. (051)362-0339

●여름수련대회=강릉 성원사는 8월 1~4일, 8월 30일~9월 2일 성원사 정중전에서 여름수련대회를 실시한다. 예불, 참선, 경전공부, 사경, 발우공양, 묵언 등의 수행생활을 스님들과 함께 진행하며 고등학생 이상 성인 남녀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참가비는 3만원이다. (033)661-5736

반갑다연우야, 국경 초월 행복 지원

몽골 대학생에 장학금

불교의료봉사지원단 ‘반갑다 연우야’가 국경을 초월한 나눔을 실천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부설 불교의료봉사지원단 ‘반갑다 연우야’(단장 구자선)는 7월 23일 조계종 중앙신도회관에서 몽골 대학생 3명에게 장학증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지난 5월 마하의료회와 반갑다연우야가 진행한 ‘행복한 몽골인을 위한 해외 의료 봉사’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학생들로 어뜨 후(몽골과학기술대학교2학년, 한국명 태수), 어트공 바타르(몽골 징기스칸대학교2학년, 한국명 민수), 나자르갈(몽골과학기술대학교3학년, 한국명 화성) 3명이다.



반갑다연우야는 7월 23일 중앙신도회관에서 몽골 대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황채운 봉사단장은 “국적을 떠나 집안 형편으로 인해 공부를 중단해야 하는 학생들의 현실이 남일 같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그릇을 키우고 발전해서 주변을 변화시키고자하는 마음이 대견스러웠다”고 전했다.

몽골 후원계좌 : 농협 301-0020-2041-01 (사)날마다 좋은날 (02)732-7272

박선주 기자

박동훈 회장 취임

대구불교약사회 새출발



대구불교약사회가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새출발을 다짐했다.

대구불교약사회는 7월 22일 저녁 대구불교회관 만불보전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갖고 수석부회장을 맡아온 박동훈(법명 원산 · 사진) 포교사를 2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박 회장은 “정법의 지혜를 닦고 보살행을 펼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구불교약사회는 지난 2005년 100여명의 약사를 중심으로 창립해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동생들 '댄스폭격'에 오빠들 '열광구호'

광동학원 댄스팀 호국연무사서 위문공연…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 마지막 '이벤트'

장마비 사이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7월 18일, 대한민국 젊은 혈기의 근원지, 논산 육군훈련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초대군종교구장인 일면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광동학원 소속 의정부 · 남양주 여고 댄스팀이 호국연무사를 찾아 위문공연을 펼친 것이다.

이날 위문공연은 4~6주간 외부와 격리된 채 고된 훈련으로 심신이 지친 훈련병들에게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여고생 댄스공연이 있다는 소문에서 일까, 호국연무사로 발맞춰 행진하는 훈련병들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침 9시가 되기 전에도 호국 연무사는 그야말로 북새통이었다. 최대 2000여 명을 수용가능하지만 수계법회와 위문공연 등 행사가 있을 때는 3000명에서 5000명까지 몰리기 때문이다. 이 날도 통로까지 채우고 남은 많은 훈련병들은 뒤에 서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공연 전 진행된 법회는 군장병 20만 수계 원력 하에 4년간 발벗고 뛰어다닌 초대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의 마지막 법좌이기도 했다. 교구장으로서 마지막 군법회로 감회가 남다를 터였지만, 일면 스님은 군장병들의 마음을 받아 짧게 법문했다.


광동학원 여학생들의 댄스폭격에 훈련병 불심 불붙다. 3000여 장병들이 열광하고 있다.

"이러한 인연이 닿아 군생활과 제대 후 자신의 마음자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스님의 법문이 끝나자마자 장내가 술렁거렸다.

곧 무대가 마련되고 여학생들이 입장하자 호국연무사는 환호성으로 터질 듯 했다. 의정부고 '무&유' 팀과 남양주 광동고 '카르페디엠' 팀 구성원 30여 명은 손담비 '토요일 밤에'부터 애프터스쿨 'AH', 2NE1 'FIRE', 4미닛 '핫이슈' 등 최신 댄스가요의 섹시댄스를 선보였다. 머리를 빡빡민 훈련병들은 '왼발, 왼발' 등 그들만의 구호와 각 노래의 코러스로 젊은 열정을 함께 발산했다.

열기가 넘쳐, 흐르는 땀이 증발할 정도가 된 것은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에 이어 'Gee'가 공연됐을 때. 서슴치 않는 스킨십 등 무대 매너에 훈련병들의 환호는 더욱 높아졌다. 1시간 가령 계속된 공연에 힘들 법도 하지만 여학생들의 얼굴에도 환희와 보람이 가득했다. 법당 가득한 젊음을 부처님도 흐뭇하게 내려 보고 있었다.

이날 공연팀 리더인 임해진(18) 양은 "호응이 높아서 뿌듯하고 시간도 금방갔다. 무대에 오르기전 다소 떨리기도 했지만, 군대 간 친오빠처럼 친근했다"고 수줍게 웃었다.

주지 보운 김종봉 법사는 "불교계에서 광동학원이 여고생 위문공연을 정기적으로 해줘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며 "1년에 몇 번 되지 않지만 파급효과가 엄청나다. 이 열기를 이어 군포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100일의 약속 '내 집 법당으로'

정토회, 제6차 백일기도 입재


6차 백일기도에서 원력을 다지고 있는 2000여 정토회원들.

장마가 한창이던 7월 19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정토회 제6차 백일기도 입재식이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정토회 회원 2000여 명이 모였다.

1부는 5차 백일기도 회향식으로 대표인사에 이어 참가단체 소개와 정토회 합창단의 음성공양, 정토행자 100일간 영상이 상영됐으며, 5차 백일기도 실천과제 결과 발표 및 시상도 이어졌다.

2부에서는 지리산 칠선계곡에 산다는 김대호씨 외 2명의 실천과제 사례발표와 함께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의 회향법문이 있었다.

점심공양 후 열린 6차 백일기도 입재식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신규 입재자 382명이 결의식을 가졌다.

법륜 스님은 입재법문을 통해 "운명이란 것은 원래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습관에 있다. 이런 습관의 업식이 내 운명이고 고통의 근원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업식을 끊기 위해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며 당부했다.

이어 이번 천일기도 6차 실천과제인 '내 집 내 직장을 법당으로' 개인 실천과제와 '열린 법회 3번 열기' 지역 정토회 실천과제, '행복을 전하는 전법 캠페인' 그리고 '가볍게 합시다' 명심문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노덕현 기자 · 혜철 충청지사장

"나라 안정 기원하는 불자 되자"

한국불교통합종단중흥회, 국태민안 법회

한국불교통합종단중흥회(회장 지암)는 7월 19일 홍천 연화사(조실 화담)에서 회장 지암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영산대재 국태민안 경제회복 대법회'를 봉행했다.


7월 19일 홍천 연화사에서 거행된 국태민안 대법회.

청파 스님 집전으로 시작된 영산재에 이어 열린 국태민안 경제회복 대법회에는 통합종단중흥회 회장 지암 스님, 통합종단중흥회 도산 스님, 종정협의회 회장 혜철 스님, 노승철 홍천군수 등 통합종단중흥회 각 원장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대법회는 정책원장 원당 스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의전원장 화담 스님의 환영사, 수석부회장 위산 스님의 격려사, 총재 도산 스님과 노승철 홍천군수의 축사, 재정원장 법광 스님의 기원문, 행정원장 법장 스님의 상축 순으로 진행됐다.

회장 지암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영산대재의 봉행 의미를 마음으로 되새겨 가정과 나라의 안정을 기원하는 진정한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055)338-4008 김성우 기자

"불자들은 복 받을 그릇 키워야"

원각사 개금불사 점안법회 봉행

충북 영동군 원각사(주지 자해)는 7월 21일 개금불사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중앙종회 부회장 원봉 스님(청주 보현사 주지)을 증명법사로 봉행된 이날 점안법회는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원해 스님(정심사 주지)을 비롯한 대덕스님과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대웅전에서 1부 점안식에 이어 2부에는 법회가 봉행됐다.

원해 스님은 격려사에서 "오늘 원각사 중창불사를 계기로 불사에 참석하신 모든 인연이 있는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 늘 함께하시고 불심이 날로 증장돼 모두 성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봉 스님은 법어를 통해 "복은 온천지에 가득한데 우리는 그 것을 받을 그릇이 작거나 없기에 못 받는다. 여러분은 그 그릇을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원각사 개금불사에 참석한 100여 대중.

한편 이날 점안법회에서는 김삼종 보현사 신도회장과 조명헌 신도에게 중창불사에 노력한 공로로 감사패가 전달됐다.

혜철 충청지사장

베트남불자 방한

대성사, 끄엉사 초청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는 7월 19~23일 베트남불교회 산하 하이즈엉도 끄엉사(주지 석끄엉)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끄엉사 석끄엉 스님과 신도들은 직지사, 법주사, 대둔사 등에 참배하고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진오),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 이주여성가정폭력지원센터, 옥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이주민 관련 우수 복지시설을 견학했다.

베트남불교회는 이번 초청 방문을 기념해 '꿈을 이루는 사람들'(대표 진오)에 베트남 스님을 상주시켜 베트남 법회를 주관할 것을 약속했다.

노덕현 기자

이주민 위한 통번역 OK

꿈을이루는사람들, 통번역원 양성교육 수료

'꿈을 이루는 사람들'(대표 진오)은 7월 18일 '유쾌상쾌소통 이주민 통번역 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식을 봉행했다.

구미시가 진행하는 '행복한 구미만들기 사업' 일환인 이번 양성교육을 통해 시민 및 공공기관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할 상담원 20명이 배출됐다.

이번 양성교육으로 번역원으로 활동할 몽골출신 엇경자르갈(27)씨는 "2007년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말을 몰라서 많이 힘들었다"며 "저처럼 한국에 막도착해 한국말에 서툰 이주여성에게 통번역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보람차다"고 말했다.

교육 관계자는 "30시간의 짧은 교육이었지만 이주여성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자국 언어지원 봉사로 이주여성들이 구미 지역민으로 한층 녹아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2000년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폭력과 임금체불, 인권침해 예방 등 이주민 복지사업에 나서고 있다.

혜철 충청지사장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험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식 소법륜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해 외 WORLD

– 특별기고

“불교가 마음과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대만불교에서 한국불교의 성장모델 보다

장마에 접어든 지난 주, 대만불교를 살펴보기 위해 중태선사와 불광산사, 자제공덕회, 자항사 등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학술답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인연이 주어졌던 것이다.

일행이 제일 먼저 방문한 사찰은 대만의 전형적인 사원인 용산사였다. 용산사는 타이베이 도심에 자리한 전통사찰로 일행이 방문한 시간은 저녁 퇴근 무렵이었다. 퇴근 후 참배하기 위한 사람들로 붐비는 사찰의 광경은 대만불교가 얼마나 생활불교로 자리하고 있는지를 실감나게 해주었다.

타이베이에서 1박을 한 일행은 다음날 오전 대만국립대학에서 세미나를 가진 후, 대중(臺中)에 위치한 현대식 대형사찰인 중태선사(中台禪寺)를 참배했다. 필자는 중태선사에서 첫 번째 대만불교 탐방에서 느꼈던 감동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중태선사의 웅장함이 아닌 종무소에서 직접 종무행정을 처리하는 스님들의 모습이었다. 사무에 중점을 둔 종무행정뿐만 아니라 참배객 안내, 사찰 청소, 건축불사 운력 등 한국불교에서는 스님들의 영역으로 여겨지지 않는 분야에서 조차도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의 자세로 사원을 지키고 있었다. 한국불교와는 사뭇 다른 이 광경은 불광산사와 자제공덕회에서도 지속되는 신선한 모습이다.

다음날에는 중태선사를 떠나 까오슝의 불광산사를 찾았다. 중태선사가 하나의 현대식 대형건물에 집약된 사원배치구조라면, 불광산사는 넓은 대지에 여러 건물이 산재해 있는 사원배치구조이다.

성운 스님으로부터 직접 인간불교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성운 스님이 말하는 인간불교는 부처님이 내걸었던 인간본위의 불교였다. 성운 스님은 인간불교를 설명하면서 우리 일행에게 “한국불교는 스님과 사찰을 위한 불교에서 사회, 가정, 신도를 위해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잔잔한 미소 속에서 편안히 하신 말씀이셨으나,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볼 때 결코 가볍지 않은 당부였다.



자제공덕회의 정사에서 스님이 양초를 만드는 모습.



대중들과 법당을 소제하는 모습.

성운 스님의 만남을 뒤로 하고 불광산사를 벗어난 일행은 대동(臺東)을 거쳐 화련(花蓮)으로 이동해 자제공덕회를 방문했다. 자제공덕회에서의 일정은 자제병원을 거쳐 정사정사에 이르는 순례였다. 자제병원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타행(利他行)이 자리행(自利行)이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또 정사정사에서 양초와 미숫가루를 만드는 스님의 모습은 중태선사와 불광산사에서 접하였듯이 권위를 벗어난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우리 일행이 이번 대만불교 답사를 통해 접하고 들었던 것은 속세를 떠난 스님들의 수행담이나 깨달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중태선사의 유각 스님, 불광산사의 성운 스님, 자제공덕회의 증엄 스님 등 오늘날의 대만불교를 자리매김 시킨 스님들은 한결같이 “불교가 사회로 마음으로 생활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의 실천을 ‘인간불교’를 통해 실현하고 있었다. 불교교학을 주로 연찬(研鑽)해 온 우리 일행에게 ‘인간불교’를 실천하는 대만불교의 모습은 침체된 한국불교가 지향할 중요한 모델로서 다가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조기룡(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조교수)

고령화시대에 맞는 전문노인요양원 ‘우뚝’

삼천사 인덕원, 21세기형 최첨단 노인복지타운 문열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절반 이상이 불자들입니다. 급속화 되는 고령화시대에 불교계의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합니다.”

불교계 복지포교의 ‘성공모델’로 꼽히는 삼천사 인덕원 대표이사 성운 스님이 또 한 번 큰 불사를 일으켰다.

성운 스님은 최근 국내 최대 노인복지시설인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을 개관해 30년 복지포교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은 삼천사가 기존의 요양시설인 호암마을을 대신해 총공사비 150여 억원을 들여 건립한 시설. 소요비용 150억 중 국고지원은 40%로, 나머지 60%를 자비부담했다. 시설은 대지3110㎡, 건물 6488㎡의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 300여 병상을 소화할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인덕원은 복지포교 30년의 운영노하우로 큰 규모만큼이나 시설 내 서비스와 운영방식 또한 차별 · 선진화해 인덕원만의 21세기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성운 스님(원내)의 30년 복지포교 노하우의 결실을 그대로 담은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 태양열시스템, 종교별 공간 마련, 1:1케어 등 21세기형 선진노인복지시설을 지향하고 있다.

‘One-Stop 토탈케어시스템’을 표방하는 시설은 치매 ·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에게 필요한 의료 · 재활 · 문화 · 여가 · 작업치료 · 종교생활 등이 한 곳에서 모두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에너지절약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가 국내 요양시설 최초로 도입돼 눈길을 끈다. 전력수요가 높지 않은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수축열 시스템, 집열기에 태양열을 모아 물을 데워 온수와 급탕으로 활용하는 태양열 시스템 도입은 그야말로 21세기를 지향한다.

이와 함께 인덕원은 최신 전자동 목욕기를 도입, 와상 · 와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이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다. 당뇨 · 고혈압 등 각 어르신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180여 대의 CCTV를 설치해 사전에 사고 발생을 최소화한 것도 특징. 시설 곳곳에 설치된 CCTV는 24시간 어르신의 안전을 철저하게 살펴 어르신과 가족 모두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인덕원은 불심을 갖춘 150여 명의 전문 인력과 1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인적네트워크로 24시간 1:1케어가 가능하도록 해 타 시설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서울의 지붕인 북한산에 둘러싸여있는 인덕원 주변 절경은 한 폭의 그림 같다. 인덕원은 건물 옥상에 하늘공원을 조성, 원두막을 마련해 어르신과 가족이 편하게 쉬며 자연경관도 구경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마리아의 집, 예수마을, 붓다마을 등 각 종교별 공간이 마련된 것도 눈에 띈다.

성운 스님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용시설의 종교적 편향에 의해 어르신이 평생 믿어온 종교를 바꿔야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어르신의 인권 존엄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고령화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전문노인요양 인덕원이 되겠습니다.”

이나은 · 이은정 기자

천태종 복지재단 신규위탁체 선정

서울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으로 최종 선정

천태종복지재단(대표이사 정산)이 서울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신규위탁체로 선정됐다.

7월 말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시복지재단이 최근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총 26개 항목을 심사, 서울시가 결과보고를 토대로 천태종복지재단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발표를 접한 천태종복지재단 사무총장 월도 스님은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서울의 훌륭한 노인복지기관을 운영하게 되어 기쁘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걸쳐 선정된 만큼 우리 재단의 투명성과 노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흐뭇하다”고 말했다.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나태선 부장은 “불교 주요종단인 천태종의 복지법인이 신규위탁법인으로 선정돼 마음 든든하다”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한 29명의 직원이 다시 한마음으로 뭉쳐 서울시 최고의 어르신 복지서비스기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에 위치한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33㎡의 규모로 2000년 10월 개관한 이래 다양한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 재가복지사업, 복리후생사업, 지역복지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현재 복지관은 하루 평균 1400여 명의 어르신이 방문해 이용중이다. (02)992-6783 **이나은 기자**

조계종 복지재단, 지난 15년 공과 말하다

불교사회복지연구소 23일 사회복지정책포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이 2010년 창립 15주년을 앞두고 성과와 미래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재단 산하 불교사회복지연구소는 7월 23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15년의 성찰과 미래비전’을 주제로 전법회관에서 사회복지정책포럼을 열었다.

김응철 교수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5년의 회고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복지재단은 한국 불교복지의 중흥조로서 역할을 다하며 120여 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괄목할만한 규모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복지재단이 주체가 돼 공공복지시설 위탁만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불교사회복지연구소가 7월 정책포럼으로 조계종 복지재단의 15년간의 공과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전문 인력의 부족 △복지연구소 운영의 한계, 연구성과의 회향 미비 △불교사회복지 이념 정립의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불교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영역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 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향적스님의 가톨릭 수도원 체험기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
Un pèlerinage dans un monastère de France

해인에서 삐에르-끼-비까지

수도원의 체험은 향적스님의 안목과 지평地平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이때가 향적스님의 견성체험見性體驗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종교적 교의가 다르고 의식과 문화가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에서 서로 같은 점을 찾아내고 궁극적으로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을 깨달은 것 같다. 정휴스님 | 시인

동양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서양 가톨릭 수도원의 생활이었으나 향적스님은 겸손함으로 우리 수도사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더불어 우리 수도원의 의식과 생활을 함께 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종교를 신봉하지만, 상호의 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F. Luc, abbé | 삐에르-끼-비 수도원 원장

세월이 흐를수록 따뜻한 향기와 기품을 더해가는 수행자의 모습이 곳곳에 스며있는 책,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타종교의 문화를 폭넓게 수용하는 스님의 글들은 연꽃처럼 둥글고 아름다운 지혜로 우리를 초대 합니다. 이해인 | 수녀 · 시인



김시조 PUBLISHERS
도서구입문의
TEL. 02)2278-8728 FAX. 02)2278-8729
E-MAIL. gumsijo@yahoo.co.kr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buddhanews.com

화합하려면 구분에서 벗어나라

박재현 교수 '한국근대불교의 타자들'에서 주장

불법(佛法)은 불이법(不二法)이다. 상대적 차별 없는 절대적 평등을 바탕으로 진리를 설하는 불교지만 실정은 어떨까?

근대에서 이판사판의 갈등은 비구 · 대처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작금에는 출 · 재가자가 단순한 구분을 넘어 경계로 굳어져 가는 양상을 띄고 있다.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서야 안 되겠으나, 구분이 차별로 이어져 대립과 반목이 길어질수록 화합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박재현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가 <한국근대불교의 타자들>(푸른역사 刊)에서 출가자와 재가자, 이판과 사판에서 비롯된 비구 · 대처 등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근현대 불교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박재현 교수와 그가 발간한 <한국근대불교의 타자들>.

'대처' 통한 근대사 재인식

근래까지 대처(帶妻)는 일제강점기 왜색불교의 영향으로 간주해 말하기조차 꺼리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최근에서야 불교의 근대화 몸짓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박재현 교수는 "이제 수세적 방어논리가 아닌 적극적 자세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박 교수는 "불교를 다루는 학문(불교학 선학 사학 철학 종교학)의 연구방법이 대체로 역사학적 시각과 문제의식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며 "대처 문제를 주제로 한 연구성과들 역시 보는 시각은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대처=왜색불교의 산물'이라는 등식은 비구 · 대처의 갈등을 일본불교와 민족불교의 대결구도로 인식했다. 근대 불교학 연구물의 대다수가 민족사나 교단사 차원에서 진행됐을 뿐 철학적 맥락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박재현 교수는 "역사학적 시각과 문제의식을 무비판적으로 불교에 적용하다보면 역사학계의 근대성 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비켜가기 어렵다"며 주장했다.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은 '반쪽'으로 표현된다. 친일 · 사회주의 · 월북 등 낙인이 찍혀 평가의 기회조차 박탈된 걸출한 인사들이 '반쪽' 시비의 희생자들이다.

박재현 교수는 "근대불교는 반쪽성을 여실히 반영한다"며 "일제강점기 조선불교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노력은 이판 · 비구승이 주도한 근본주의적 개혁노선과 사판 · 대처승들이 주도한 현실반영적인 유연한 개혁노선으로 양분돼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판 · 비구승과 사판 · 대처승의 대립은 이승만 정권시절 불교정화로 이어졌고, 정화 후 독신 비구승단이 한국불교의 주류로 등장했다.

박 교수는 "한국불교사 전체로 볼 때 1954~1962년의 정화는 반쪽의 역사가 굳어지는 과정"이라며 "대처논란의 본질은 종교가 사회를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봐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가자' 통한 승가 재구성

1920년대 시작된 임제종운동은 일제강점기 항일과 민족의 상징이었다. 임제종은 선학원과 조선불교선종으로 이어져 조계종으로 계승됐다.

박재현 교수는 "임제종-선학원-조계종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이 비구승이 차별화를 통해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며, 누군가를 타자화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비구승이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타자화된 것은 대처만이 아니었다. 재가자도 그랬다.

지금은 출가자의 전유물로 인식돼버린 선원만 해도 1950년대까지는 출 · 재가 구분이 없던 공간이었다.

1924년 수덕사 능인선원 동안거 방함록(안거 때 동참자의 성명과 소임 등을 적은 기록)에는 36세의 김상은과 연령 미상의 송진정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1936년 견성암선원의 방함록에는 65세의 이대원행 거사가 중진급 선방 수좌들이나 맡을 수 있었던 선덕(禪德)의 소임으로 기록돼 있었다. 범어사 금어선원, 직지사 천불선원, 도리사 태고선원, 봉은사 선방 등 다른 선원에서도 재가자들은 화주를 비롯한 여러 소임을 맡으며 안거했다.

박 교수는 "해인사 퇴실선원의 방함록을 보면 1961년 이후 방함록에서 화주나 원주의 직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화를 거치면서 선원과 사찰의 경계가 의미해지고 선원 수좌들이 사찰 운영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이라 말했다.

수좌들이 사찰운영에 참여하면서 더 이상 선원이 독립체제로 유지될 필요가 없어졌고, 화주의 역할 역시 불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박재현 교수는 "선방에서 재가자들이 배제되면서 젊고 유능한 재가자들이 불교에서 급속히 멀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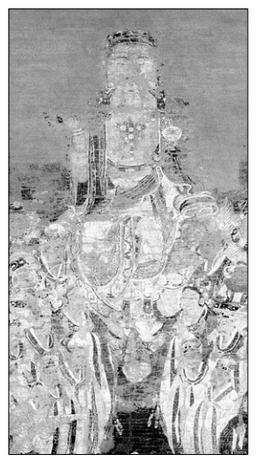
고려문화재 한자리에 '고려실' 신설

국립중앙박물관, 통일신라 · 발해실 등 상설전시실 개편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에 고려실이 신설돼 고려시대 문화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됐다. 또, 통일신라 · 발해실이 확대되는 등 상설 전시실이 개편됐다.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실 전시품 중 수월관음도(고려 14세기. 보물 제1286호. 우학문화재단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실 전시품 중 지장시왕도(고려 14세기. 보물 제1048호. 호림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은 7월 24일 박물관 1층 역사의 길에서 '일맥상통 우리역사'를 주제로 상설전시관 개편을 기념하는 개막식을 갖고, 이를 고려왕조의 개국기념일인 25일부터 일반에 공개했다.

2005년 10월 28일 신축 개관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설전시는 고고관과 역사관으로 나뉘어 있다. 고고관은 구석기실부터 통일신라 · 발해실까지 시대순으로 구성됐지만 고려시대 이후 유물은 한글실, 금석문실, 왕가 국가실 등 주제별로 전시돼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맞아 지난해부터 주제별 전시체제를 시대별 전시체제로 개편하기로 하고 준비해 온 끝에 고려실 등을 신설 · 개편했다.

1325㎡ 면적으로 신설된 고려실은 고려1실(후삼국 통일과 문벌귀족의 시대), 고려2실(대외관계, 무신정권과 고려의 정신문화), 고려3실(원의 간섭과 새로운 모색)로 나뉘어 총 759점의 문화재가 전시됐다.

특히 고려실에는 경원 여진문자비, 황산대첩비명탁본 등이 최초로 공개되는 것을 비롯해 국내에 드물게 전하는 고려불화인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우학문화재단 소장)'와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 호림박물관 소장)' 등 국보 5건, 보물 18건이 동시 소개돼 눈길을 끈다.

통일신라 · 발해실도 기존보다 면적과 유물 수에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통일신라실은 기존의 명품 위주 전시를 탈피해 황복사 사리기 등 90건 120여 점의 유물이 △왕권의 성장 △불국토 △왕경문화 △지방문화 △바다(해상왕국)의 주제별로 전시됐다. 복제품이 다수였던 발해실은 러시아 연해주 출토 발해유물을 중심으로 발해 불상 등 실물위주의 110여 점으로 바뀌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상설전시개편은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급자중심 전시'에서 스토리텔링 전시기법을 활용한 '수요자중심 전시'로 전환을 시도한 첫 성과"라며 "내년에는 조선실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불서 6종 2009 우수학술도서 선정

문광부 10개 분야서 349종 발표

불교학연구지원사원회가 지원 · 출간한 <선종과 송대 사대부의 예술정신> 등 불교 관련 도서 6종이 '2009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광부)는 7월 16일, 종교 철학 예술 등 10개 분야에서 2009 우수학술도서 349종을 선정 · 발표했다.

불교학 관련 종교분야에서는 <선종과 송대 사대부의 예술정신>(씨아이알 刊)을 비롯해 <붓다의 입멸에 관한 연구>(민족사 刊), <일본불교사 근대>(동국대 출판부 刊), <고려 말 선시의 미학>(불광출판사 刊)이 선정됐다.

예술과 역사분야 에서는 각각 <교류로 본 한국불교 조각>(학연문화사 刊)과 고려후기 사원경제 연구(경인문화사 刊)가 뽑혔다.

한편,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도서는 문광부가 1100만원 상당 도서를 구입해 전문도서관 공공도서관 해외문화원 병영도서관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송광사 문화재 디지털화

성보박물관 추진… 전남대 도서관 웹서비스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는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인 불서와 고문서 등 문화재를 디지털화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7월 22일 밝혔다.

송광사 성보박물관에는 국보 제43호인 '고려고종제서(高麗高宗制書)'와 보물 제572호로 1281년 원오 국사(圓悟國師)가 작성한 노비문서(奴婢文書), 2004년 천왕문(天王門) 해체 때 복장에서 출토된 '묘법연화경찬술(妙法蓮華經纘述)'을 비롯해 구산 · 인암 스님이 기증한 전적, 수도암에서 이관한 고문헌 등 국보와 보물을 다수 포함한 5500여 점의 문화재가 소장돼있다.

전남대 도서관은 성보박물관이 소장한 자료를 사진 등 디지털 작업을 통해 연말부터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웹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학계에서는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가 디지털화되면 호남지역 불교연구를 비롯해 고려시대 서울경제, 지방사회구조, 고려와 원나라의 역사적 관계 고찰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광사 성보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학술적 가치를 활용하지 못했던 고문헌이 이번 기회에 디지털자료화 돼 불교학과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초등생 눈높이에 맞춘 사천왕사

국립경주博, 초등생 가족 대상 프로그램 운영

통일신라시대 으뜸가는 호국사찰이었던 경주 사천왕사를 초등학생의 눈높이로 만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초등학생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7월 31일, 8월 7일과 14일 세 차례에 걸쳐 '함께 떠나는 사천왕사'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후 2시 30분~5시 진행되며, '사천왕사' 특별전 관람과 가족단위 체험활동, 발굴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천왕사 터의 대표적인 출토품인 녹유소조상 편 등을 상상해 그림으로 완성해보고, 퍼즐을 통해 사천왕상을 결합해 보는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경주박물관 관계자는 "참가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사천왕사 발굴조사로 확인된 녹유소조상의 위치와 배치상태를 익히는 한편, 이전의 가람배치와 다른 사천왕사 가람배치의 특징 등을 강의와 견학을 통해 학습할 예정"이라며 "사천왕사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감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떠나는 사천왕사' 행사 참여는 경주박물관 홈페이지(gyeongju.museum.go.kr) '이달의 행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신청가능하다. 행사 전 주 화요일부터 초등학생을 포함한 15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054)740-7541

조동섭 기자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09년 7월 15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09년 9월 7일 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교예술대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모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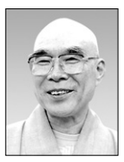
◇원서교부 : 2009년 7월 15일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09년 8월 6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969-4981 / 팩스 02)964-2433

일주문



명사 초청법회서 법문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은 안양 선우정사(주지 선타)가 8월 23일 10시 개최하는 '큰스님 및 명사초청법회'에서 설법한다



대구사원주지련 윤달 수계산림법회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법혜 스님은 7월 16일 불교대구회관에서 대구지역 불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달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수능 학업성취 108일 기도 입재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은 7월 28일~11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수능 학업성취 108일기도 법회를 개최한다. (02)732-2183



중창불사 1080배 입재

잠실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7월 25일 경내 보광당에서 불광사 중창불사를 위한 1080배 기도 입재를 봉행했다.



대구세계육상대회 성공기원 공연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8월 2일 동화사 봉서루에서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성공기원 행사를 개최한다.



큰 스님과 함께하는 생전예수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7월 17일 ~ 9월 3일 지안, 정우, 묘허, 혜국, 월파, 혜인 큰스님과 함께하는 생전예수재와 백중천도법회를 봉행한다.



백제불교회관 자비나눔 희망 개최

대전 백제불교회관 이사장 장곡 스님은 7월 24일 시티맵버스 부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비나눔 일일희망(hope)' 후원행사를 개최했다.



장애우 함께하는 학교 개최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륜 스님은 장애 · 비장애 아동 통합계절학교 '신나는 더위탈출'을 8월 10~17일 실시한다. (054)633-6415



외국인보호소 한국문화 교육 실시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혜철 스님은 7월 21일 외국인보호소에서 30여 보호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및 불교예절 교육을 실시했다.



사찰생태연구소 강화지역 생태탐방

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 대표는 8월 1~3일 강화 볼음도 및 강화지역에서 시민모임 '두레' 및 생태연 회원과 함께 생태문화탐방을 실시한다. (02)745-5812

40년 원력 불교문화재단으로 꽃피다

여진불교미술관, 법인화로 포교 박차

40여 년 모은 전 재산을 희사한 대전 여진불교미술관 이진형 관장의 노력이 문화재단 법인화로 열매를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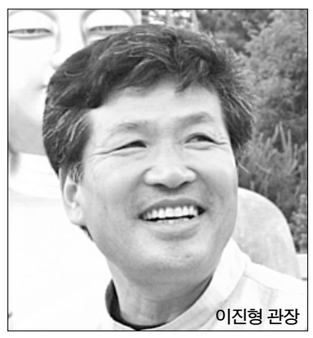
여진불교미술관은 지난 5월27일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데 이어 최근 여진불교문화재단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화로 9명의 이사와 감사가 선임돼 각종 행사 등을 기획하고, 불교유산을 지키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북대전 나들목 근처인 대전 유성구 탑립동에 있는 여진불교미술관은 미술관 본관 1층 건물로, 1실과 2실로 구성돼있다. 1실 한 가운데는 몸에 3,000분의 부처를 새긴 웅대한 삼천불석가여래와 책을 읽는 경책관음, 금동불 조성과정, 부처님의 족상(足像) 등이 전시돼 있다. 2실에는 천수관음상과 휴식 공안 등이 마련돼 있다.

여진불교문화재단이 탄생하여 재단이 설립되기까지 14년간 한결 같은 원력으로 이를 이끌어 온 이진형 관장의 노력이 있었다.

이진형 관장이 불교문화재단 설립에 뛰어든 인연은 불상을 조성하며 불법홍포의 서원을 세우면서 부터다. 가정생활을 위해 95년 부산에서 목공예 일을 시작한 이 관장은 전국 3,000여 사찰에 불상을 조성했다. 하지만 점차 탱화, 불상 등 광범위한 불교예술의 한계를 체험하고 방황 할 때 고산 스님을 만나게 된다. 스님은 "수에 집착하지 말고 한 점 옳은 작품을 조성하라"는 화두를 내렸고, 이후 이 관장은 사업을 정리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전에 진정한 불교미술의 완성을 위해 여진불교미술관을 개관했다.

허허벌판에 무일푼으로 시작한 불모의 길이었지만 성상을 조성한다는 마음으로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녔다. 이 관장은 어렵게 수집한 자료를 정리해 2008년 <불상조각기법의 어제와 오늘>이란 책을 내고, 전국 각 사찰에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이진형 관장

이진형 관장은 "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한국사찰 문화 복원이 여진의 과제"라며 "친환경적 사찰 풍습과 어른공경의 아름다운 불교문화를 계승하는 일을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042)934-8466

노덕현 기자, 혜철 충청지사장

법왕사, 백고좌 법회 '입제'

법왕사창건 20주년 기념해 다양한 행사 계획

대구 수성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7월 20일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스님 법문을 시작으로 100일간 고승대덕 100명을 초빙하는 '백고좌 법회'에 들어갔다.



7월 20일 봉행된 법왕사 백고좌 법회 입재식.

지난 94년 시작돼 20 회째를 맞은 이번 법왕사 백고좌 법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100일간 날마다 이어진다.

법왕사는 백고좌 법회 20회와 사찰 창건 20주년을 기념해 이달 말부터 매주 한차례 노인 무료급식을 벌이고 초중등 한문학당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행사도 계획하고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부처님 가르침따라 나라 경제 극복하자"

해동불교범음大 팔관재 및 생전예수재 봉행

해동불교범음대학과 팔관재전승보존회, 태고종 인천교구종무원은 지난 7월 12일 인천 천마산 용천사(주지 대은)에서 제15회 팔관재 및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인천교구 원당 원로 스님을 비롯해 해동불교범음대학장 대은 스님, 청담 인천교구종회 부의장 혜천 스님 등 400여 대중이 동참했다. 팔관재는 해동불교범음단 스님들의 집전하에 점안, 대령, 관욕, 예수재, 법문, 팔관재계 수계, 상단공양, 전시식, 봉송 등이 진행됐다. (02)741-0495



7월 12일 용천사에서 봉행된 팔관재.

대한불교소년소녀 무용단 초격 스님 이사장 취임



7월 17일 대한불교 소년소녀무용단 이사장 취임식에서 인사하는 초격 스님.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은 7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초대 이사장 초격스님 및 임원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초대 취임임원으로는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금선사 주지 법안 스님,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조계종 방생법회장 이건호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추대됐다. 이사에는 현등사 주지 가산 스님, 광주 불국사 주지 가섭 스님, 극락사 주지 자용스님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합창무용단은 1993년 창단했다. 창단 17주년을 맞아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 불교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제2의 도약을 시도했다.

이상언 기자

ROTC후배위한 장학기금 쾌척

성영석 동문회장 3000만원 기부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최근 성영석 동국대 ROTC동문회장(61세 · '더 팀즈' 회장)이 후배 ROTC 후보생들을 위해 장학금 3000만원을 동국대에 쾌척했다"고 7월 21일 밝혔다.



오영교 동대총장(왼쪽)과 서영석 동문

또 동문회 차원의 장학기금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금 조성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성영석 회장은 "동국대 ROTC 발전을 위해 전체 동문들이 합심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겠다"며 "2010년까지 1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 조성으로 향후 1~2년내 동국대 ROTC 후보생 전원이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봉은사, 자비나눔기금 전달

21일 아름다운 동행에 4000만원 전달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은 7월 21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에 자비나눔 기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진화 스님

이날 전달식에는 봉은사 총무국장 진화 스님을 비롯해 봉은사 신도회 황남수 회장과 황채운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기금을 포함해 21일까지 모금된 자비나눔기금은 총 7억 2317만원(약정액 포함)이다.

노덕현 기자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 착공식

16일 희생자유족회 제주지부 주관

약천사(주지 성원)는 7월 16일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 조성 착공식을 거행했다. 오는 10월 완공 예정인 위령탑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제주지부가 주관한 것.



7월 16일 제주 약천사에서 열린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 착공식.

이날 착공식에는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과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고인형 대표, 위령탑 설계자 임춘배씨와 유족 회원들이 참석했다. 성원 스님은 "약천사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위령제를 모시고 유골 반환등 유족의 일에도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자 격
승려 및 범음범패에 관심 있는 모든 재가불자

교육과정 1년

내 용
범 패 : 거불 / 복청계 / 가영 / 향수나열 / 도량계 / 다계작법
작법무 : 천수바라 / 사다라니 / 법고
※ 각단 불공 및 사찰의식 전 과정
※ 천도재 및 49재 의식을 중심으로 교육

시 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3시간)

교육장소 해동 성취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317-4

강사진 : 교육원장 해륭 큰스님 (무형문화재 9호)
교수_ 보암 스님
전문강사_ 우암 스님, 동암 스님, 송암 스님

문의 전화 051) 727-0859
팩스 051) 727-0809
휴대전화 010-3004-0859
010-2847-3500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 빙의 · 퇴마 ·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_ 6주
• 모집 인원 _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_ 100만원
•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 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숙식제공
★ 개인 특별지도 ★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특별상담환영
http://www.yuma119.com

(사)유마 최면 연구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6-20번지 ☎032)349-0666
» 수련원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171번지 백련사
010-5100-6612

한방(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괌 유일의 한국사찰 낙가사 개산대제

개산 10년, 1000년 대계를 세우다





부산 경기민요전수소의 경기소리 공연 모습.

적도의 뜨거운 태양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부신 천혜의 자연환경과 세계2차대전의 상흔이 공존하는 섬, 남태평양 괌. 1997년 KAL기 추락사건과 인근지역 쓰나미 참사,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발병 등 여행 자제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는 이곳의 경제불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불자 교민들의 정신적 의지처가 되어준 보타산 낙가사(주지 도휘)가 개산 10주년을 맞았다.

괌 유일의 한국사찰 낙가사는 개산 10주년을 맞아 7월 17~19일 3일간 개산대제를 개최하고, 더불어 숱한 전쟁으로 희생된 유주무혼 영가들을 천도하는 수륙대재 및 생전예수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7월 17일 저녁 생전예수재 회향법회는 종호 스님, 월봉 스님, 정만 스님 등의 증명 하에 한국불교 전통의식에 따라 엄수됐다.

개산일인 18일 오전 10시 낙가사 도량에서 10분 거리의 아산비치에서 현지 교민 및 한국에서 동참한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가사 10주년 개산대제 법요식을 봉행했다.

1부 기념식은 발원문 낭독, 경과보고 및 주지스님 인사, 공로패와 감사패 수여, 신도회장 봉행사, 초대신도회장 및 한인회장 축사, 종호 스님 법어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낙가사 신도회 김보현화 회장은 봉행사에서 "남태평양의 작은 섬 괌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힌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헌신적인 신도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며 아상(我相)에 머물지 않는 봉사와 신행생활로 끊임없이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신현국 초대신도회장은 "오늘의 가슴 벅찬 10주년 기념법회가 있기까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서로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넘길수 있도록, 변함없이 낙가사를 지켜주신 주지 도휘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축하했다.

이날 저녁,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볕더위를 몰아낸 낙가사 야외특설무대에서는 한터 민족민속음악연구회(단장 강성인)의 축원무, 부산 경기민요전수소(소장 김선옥)의 경기소리, 교방전통김해예술단(단장 최경옥)의 전통무용 살풀이 등 다채로운 국악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번 낙가사의 개산 10주년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괌 전체 인구의 70%는 가톨릭이고, 한국 교회는 20여 곳에 이르지만, 불교 사찰은 대만 사찰 1곳과 한국 사찰인 낙가사 등 단 2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년간 지속된 경제불황으로 힘들게 사는 우리 교민들과 현지인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한국 사찰로서 법등(法燈)을 밝혀왔기에 10년의 역사가 더욱 뜻깊다.

낙가사에서 처음 한국불교를 접한 현지민 폴 언탈란(법명 선재)씨는 "원래 이웃종교인이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이곳에 와서 주지스님께서 <지장경>을 설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이 너무도 좋아 매일 낙가사를 찾아와 108배를 드리며 불법을 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괌 한인회 전상대 회장도 "지금도 주위에서 개종하라는 권유를 참 많이 받지만, 수많은 한국교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올 수 있는 정신적 귀의처가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괌 낙가사=오세룡 부산지사장



종호 스님의 법문에 앞서 합장하는 월봉 · 정만 · 도휘 스님(왼쪽부터)과 낙가사 신도들.

7월 17~19일 수륙대재 생전예수재 등 봉행

'무주상보시 실천과 봉사로 정진할 것' 다짐

"불법 배우는 가람 만들 터"

낙가사 주지 도휘 스님

괌 유일의 한국사찰 낙가사의 10년이 있기까지 주지 도휘 스님과 신도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도휘 스님(사진)이 그리는 낙가사의 청사진은 희망의 환희심으로 가득하다.



도휘 스님은 "10년 전 여름의 어느 좋은 날, 이곳 괌에서 뜻있는 불자님들과 함께 신심을 모아, 부처님 법음으로 고통 속에 힘겨워하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청정한 도량 불사의 원력을 처음 세웠다"고 회상했다.

오늘의 낙가사가 장엄한 도량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대발원을 한지 어느덧 10년. 주지스님의 감회는 남다르다. 스님은 "우리 낙가사 대중은 좁게는 자기 자신과 주위에 자비를 실천해야 하지만, 넓게는 고국을 떠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괌 지역사회, 나아가 세계 인류에 이르도록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공항 인근에 새로운 사찰 부지를 마련하고 내후년부터 전통한국사찰 방식으로 도량불사에 들어간다"면서 "우리 낙가사는 1000년의 대계를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가람 건립이란 대작불사를 발원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스님은 "지난 10년이 신심을 고취하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참선과 염불, 주력 간경 등 지혜를 증장시키기 위한 도량이 될 것이며, 자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라고 밝혔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잘 살려면? 죽어라… '임종체험' 인기

통도사 '감사하는 삶 행복한 만남' 수련회서 '거듭나기' 신설

"자,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스님의 저승사자와 같은 목소리에 수의를 입은 대학생들이 차례로 관에 몸을 뉘였다. 관 속에서 가진 10분 간의 명상. 가늘고 긴 흐느낌과 숨소리, 몇몇의 흐느낌조차 이 무거운 침묵을 가르진 못했다. 산사에서 미리 만나본 죽음의 순간은 극도의 공포였을까? 아니면 기분 좋은 꿈결처럼 편안했을까?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감사하는 삶 행복한 만남'을 주제로 한 제30회 하기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산문을 활짝 열었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나눠 총 7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수련대회에는 적멸보궁에서 임하는 템플스테이 외에도 '거듭나기- 임종체험'이 신설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7월 17일 통도사 대학생 수련회에서 참가자들이 임종체험을 하고 있다.

7월 17일 오후 8시 캄캄한 법당에 제2차 대학생 수련회에 참가한 60여 명의 대학생이 모였다. 이번 시간은 지난 삶을 정리하는 '남기는 글'을 쓰고, 임종체험 후 새 삶을 향한 발원문을 다시금 써보는 이른바 '거듭나기'다.

먼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일 5가지와 잘못한 일 5가지, 그리고 남기는 말 등을 종이 한 장에 차분히 써내려간다. 죽비소리에 맞춰 수의를 입고, 입관해 관 덮개를 덮고 못을 박고 흙을 뿌린다. 실제와 같게 하기 위해 스님들이 손으로 못을 박듯 두드리고 흙이 덮이듯 쓰다듬는다. 관에서 나온 후 새 삶을 향한 발원문을 작성하면 비로소 '거듭나기- 임종체험'은 끝이 난다.

관에서 나오며 눈시울을 붉힌 허아현(22)씨는 "훗날 진짜 죽음이 다가왔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며,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유난히 밝은 미소로 임종체험에 임한 정지선(25)씨는 "처음 경험해보는 낯선 임종체험이 두려웠지만 막상 관에 누워보니 의외로 아늑하고 향나무 냄새가 편안해 죽음이 마냥 무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박재훈(31)씨도 "죽음이 이렇게 편안한 것인줄 알았으니 진짜 죽음의 순간에도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한 순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듭나기 임종체험을 진행하는 포교국장 정묵 스님은 "우리는 '죽음'이란 것을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해 매순간을 절실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거듭나기'에서 바로 이 삶에 대한 절실함을 깨달아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루하루를 더욱 귀하게 살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055)384-7085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울산 최초 유치원, 수행공간으로

해남사 동국유치원 '해남사 수행관' 리모델링 완공

울산 최초의 유치원인 해남사(주지 만초) 부설 동국유치원이, 해남사 신도들의 독립된 수행공간인 '해남사 수행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지금으로부터 60여년 전 울산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유치원으로 한때 울산 최고의 명문으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최근 저출산과 경기침체,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득이 휴원하고 있던 중 신도들을 위한 수행전문도량으로 리모델링을 결정했다.



해남사는 7월 24일 해남사 수행관 개관식을 봉행했다.

7월 24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점안식을 갖고, 10시 개관불공, 이어 11시부터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및 울산시 각 기관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봉행했다.

이날 개관식은 주지 만초 스님의 인사 및 경과보고, 내빈 축사,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의 축하법문, 개관 테이프 컷팅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주지 만초 스님은 "73년 전 통도사를 세운 통도사의 주지셨던 구하 스님은 산중에 머물러 세상과 멀어진 불교를 세상 속에서 함께 하고자 울산의 중심에 '울산포교당 해남사'를 세우신 만큼,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불자들을 달려나가 맞이하는 행복한 수행정진의 도량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만초 스님이 해남사의 주지 소임을 맡은지 불과 1년 3개월 가량이 흘렀지만, 그간 변화발전한 도량을 보면서 매우 기쁘다"며 "울산 최고의 유아교육 명문기관에서, 이제는 신도들의 수행과 포교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약 4개월에 걸쳐 완공된 '해남사 수행관' 1층에는 신행상담 및 만남의 장, 차담을 나누는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관음당'과 기도용 보조법당과 각 신행단체의 소그룹 법회에 적합한 '아미타당', 그리고 편집실 및 각 신행단체의 사무실이 개설됐다. 2층에는 합창단 연습실인 '문수당', 불교신행학교의 수업이 진행될 '보현당'이 들어섰다. 3층에는 다목적 수행관으로 참선 및 기도법회를 중심으로 운영될 기도전용 '비로당'이 새롭게 마련됐다.

앞으로 '해남사 수행관'에서는 신도들의 심신 수양을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가 개설된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꽃꽂이반',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8시 30분~10시 '요가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다도반'이 운영된다. 또 참가자들의 자율수행으로 진행되는 '참선수행반'도 새롭게 선보인다.

박지원 기자

달맞이언덕 산책하며 '가족·나·돈·학력' 명상

대광명사, 문탠로드 테마명상법회 개최

세계적인 휴양지 해운대의 명소, 달맞이언덕에서 산책을 하며 이뤄지는 '테마명상법회'가 새로운 수행문화로 주목받고 있다.

해운대 중동 대광명사(주지 목종)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설치된 문탠로드에서 주지 목종 스님과 함께 '테마명상법회'를 개최한다.

'가족' '나' '돈' '학력' 등 현대인이 주로 고민하는 것을 테마로 정해, 총 4개 구간으로 나눠진 명상포인트에서 보다 심화된 테마 소주제로 들어가 깊이 있는 명상으로 자기 성찰을 이끌어낸다.

문탠로드 입구 표지판에 집결해 주지스님으로부터 오늘의 명상 테마를 듣고 약 10분여 걷기 명상에 심취하다보면 탁트인 동해바다가 한눈에 바라다보이는 '달빛가온길'에 다다른다. 이곳에서 첫 번째 명상 테마에 관해 걸어오며 생각한 것들을 돌아가며 발표하고, 두 번째 테마를 받는다. 이어 만나게 되는 흙내음 짙은 숲속 '달빛바투길'과 '달맞이 산책길'에서도 역시 각자의 감상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나를 괴롭혀오던 번뇌와 고통을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게 된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 해운대 달맞이언덕 문탠로드를 걸으며 테마명상법회를 봉행하는 목종 스님과 불자들.

기존의 명상법이나 법회의식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산책이라는 익숙한 방법과 누구나 한번쯤 고민하는 테마를 설정해 불자는 물론 타종교인도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다.

스님은 "흔히 나를 속박하던 것들로부터의 일탈이라고 하면 몸이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이 벗어나야 순수한 일탈"이라며 "산책을 통한 테마명상법회에서 몸과 마음에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742-7610

박지원 기자

문탠(Moontan)은 여름철 일광욕인 선탠(Suntan)과 대비되는 말로, 문탠로드란 해운대 달맞이언덕 입구에서 출발해 달맞이 '어울마당'과 '해월정'을 거쳐 '달빛나들목'에서 다시 돌아오는 약 2.2km의 산책로다.

종립학교 교직원 심성 가꾸기

금정중 범어사서 특강 · 참선 등 수련대회

금정중학교(교장 현익채)는 7월 15일 설립본사인 범어사(주지 정여) 휴휴정사에서 제37회 교직원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7월 15일 범어사서 금정중학교 교직원들이 수련대회를 했다.

불교종립학교의 교직원으로서 갖춰야할 불자적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수련대회에는 총 50여 명의 교직원이 참여했다.

입제식은 前 중앙승가대학교수이며 법인이사인 홍선 스님의 법문과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의 인사, 범어사 승가대학 강주 용학 스님의 '참다운 불자의 삶'을 주제로 한 특강 등이 이어졌다.

수련대회에는 현익채 교장과 이석언 교법사의 특강, 범어사 연구국장 도명 스님의 참선, 108대참회 등 내실있고 다양한 수련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박지원 기자

환우돕기 일일찻집

생명나눔부산 창립3주년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창립 3주년을 맞아 '난치병 환우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개최했다.

7월 23일 영광문화예술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오후 2시 가수 이진석의 라이브공연과 국악인 이금옥의 가야금 연주가 있었으며, 이어 오후 7시 현악4중주 등의 특별공연이 함께 마련돼 즐거움을 더했다.

이날 마련된 수익금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김지민(13) 어린이 등 난치병 환우들의 치료비 마련에 전액 후원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힘든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차량구입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같아요, 어머니는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 : 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물결 따라 살랑 살랑 연등 흐르네

2009 전주 덕진연못 연꽃문화제 성료


7월 18~19일 전주 덕진연못에서 열린 2009 전주 연꽃 문화제에서는 바라춤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됐다.

아름다운 연꽃으로 유명한 전주 덕진연못에서 '2009 전주 연꽃 문화제'가 7월 18~19일 화려하게 펼쳐졌다.

'천년 전주의 향기 속으로'를 주제로 전북사암승가회(회장 원행 · 금산사 주지)와 우리문화연구원(원장 이용의), 전주시가 공동주최한 이번 연꽃문화제는 전주시 출범 6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불교계가 함께 힘을 모아 개최해 그 의의를 더했다.

불교문화의 저변확대와 문화예술의 접목을 통한 시민축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주시 출범 60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전주시 시민동아리회원들의 공연한마당, 승무, 법고춤, 나비춤, 바라춤 등의 공연과 연꽃가요제, 기와 단청체험, 염주만들기, 연등만들기, 사경, 연꽃문양만들기, 연꽃사진전시, 다도체험, 민속놀이 체험, 서각체험, 한지 공예등 다양한 우리문화를 접할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국가위기극복과 전북도의 발전,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발원하는 1500여 개의 유등이 덕진공원 연못을 화려하게 수놓은 가운데 전북사암승가회에서 주관한 유등제와 용왕제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완주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은 "불가에서는 예로부터 전주에서는 동고사, 서고사, 남고사와 함께 덕진연지 또한 부처님의 도량으로 해마다 유등제와 용왕제가 봉행돼왔다"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모두 부처님을 향한 기도로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진신사리가 일반 전시물?

미륵사지 특별전 중 참배하려던 불자들 고충 겪어

1400년만의 익산 미륵사지 진신사리의 외출이 7월 26일로 끝났다.

익산 미륵사지에서 열렸던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특별전'에서 소개된 부처님 진신사리의 신성성과 사리장엄구가 보여준 예술성은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특별전에 다녀온 불자들은 마음 한 켠에는 사리친견을 했다는 환희심 보다 큰 서운함을 담아올 수 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특별전'은 6월 27일부터 한달 간 열렸다. 이 기간 동안 특별전이 열린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고성이 오갔다.

특별전에 다녀온 한 불자는 "특별전을 주관한 문화재청과 전북도 · 익산시 등 관계기관의 사리에 대한 몰이해와 미숙한 운영이 불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사리는 불가(佛家)에서 가장 으뜸가는 복전(福田)으로 여기는 소중한 성보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일은 곧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다.

사리를 성보로 대하는 불자들과 달리, 문화재 담당자들은 사리를 단순한 문화재로 취급하면서 전시관 내에서 일체의 종교행위를 금했다.

지역불교계 인사들은 "진신사리 전시를 결정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사항"이라며 "관계기관과 참배 등에 대해 협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신사리가 전시된 유물전시관에는 참배할 공간도 마련하지 않았을 뿐더러 목탁 · 죽비를 치거나 정근도 허락되지 않았다.

부처님과 같은 사리를 겨우 합장만 허락된 채 친견해야 하는 불자들의 고충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배승훰)'를 구성하고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 승격 시키겠다고 나섰다.

전시관 현장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1만명 서명운동을 벌인 위원회는 그 명단을 각각 국회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삼업 참회하자"

익산 백운사 생전예수재


7월 21일 익산 백운사에서 봉행된 생전예수재.

익산 백운사(주지 우성)는 7월 21일 윤달을 맞아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우성 스님은 법문에서 "예수재를 통해 육근으로 인한 삼업을 참회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성 스님은 그동안 공석이던 백운사 신도회장에 이수원 거사를 임명했다. 또 이번 가을부터 3개월 과정의 신도기초교육과정을 마련한다며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을 지도법사로 임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중앙승가대 첫 학교발전 연찬회

개교 30주년을 맞은 중앙승가대(총장 태원)가 개교 이래 처음, 교수와 교직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발전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중앙승가대는 7월 20~21일 영암 도갑사(주지 월우)에서 학교발전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교수협의회 회장 종석 스님과 교학처장 보각 스님, 불교학연구원장 미산 스님 등 교수 16명과 교직원 14명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미산 스님이 '불교 기본교육의 강화를 위한 교과목 개편안'을, 최종남 · 유승무 교수가 '교양과목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연찬회에서는 △대외협력사업 강화 △불교중앙도서관 건립 △안암학사 활용방안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개설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연찬회에서 참가자들은 제도적 검토와 실질적인 문제점 등을 나누며 "학술적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신설된 기획실(실장 김응철 교수) 주최로 실시된 행사는 향후 학교발전을 위한 진지한 발표 토론의 장으로, 학내 구성원들간의 화합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기획실장은 "더 나은 30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승가대에 불자들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낙도어린이 전통문화에 빠지다

도갑사서 암태초교생 초청 산사체험 진행

낙도어린이들의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행사가 열려 화제가 되고 있다.

월출산 도갑사(주지 월우)는 7월 21~23일까지 전남 신안 암태초교 학생 40여 명을 초청해 산사체험을 진행했다.

<명심보감>강의, 전통문화체험,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된 행사는 특히 포교의 사각지대라 불리는 남도의 섬지역 어린이들에게 문화적 소양을 높여주는 계기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산사체험은 불교레크레이션협회 전문강사들의 지도로 21일 입제식과 조별모인, 환영 레크레이션, 22일에는 자연생태계 처험, 풍선아트, 자연수영장 물놀이,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등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도자기 굽기, 주변관광지 탐방이 이어졌다.

월우 스님은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지 못하는 낙도어린이들에게 문화체험과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은 큰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외국인 노동자 위한 체육대회 열려

광주의 대표적 불교 외국인 복지지원 단체 중 하나인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7월 19일 비아초교 체육관에서 불교국가 출신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을 초청해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더불어 살아가는 Happy 친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타국에 나와 힘든 노동을 견디며 근무하는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등 외국인들이 참가해 족구, 배구, 피구, 줄다리기 등 열띤 경기를 펼쳤다.

체육대회를 후원한 비전사 주지 보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준비한 이주성 센터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성오 스님

"남은 생 부처님 은혜 갚고파"

남에게 베푸는 포교열정 가져야



호남에서 포교사업, 특히 불교대학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성오 스님(사진)을 만났다.

스님은 얼마전부터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주최의 경전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역 신행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전강좌에는 50여 회원들이 스님의 강의를 듣고자 모였다.

비단 이곳 뿐 아니라 스님은 향림사 광주불교대학, 관음사 호남불교대학, 목포불교대학, 해남불교대학, 조계사, 불교방송, 나주 심향사 등 스님을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가서 강연을 하고, 포교 사업을 도와왔다.

"벌써 절에 들어온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처님의 은덕으로 살았지만 남은 인생과 다음 생은 부처님 은혜를 갚으면 살고 싶습니다."

성오 스님이 생각한 부처님 은혜를 갚는 길은 포교에 전념하는 것.

제18교구 본사인 백양사 주지를 역임하고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광주지역 어른스님이지만 스님은 포교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다. 성오 스님은 전국에서 가장 불교세가 약하다는 호남의 광주, 그 광주 중 가장 불교의 불모지라 일컫는 광산구에 포교당을 설립하는 등 포교일선에서 정진하는 쉽지 않은 일을 해 왔다.

지난 2004년 스님이 개원한 마하보리사는 주택가에 위치한 포교일선의 장소.

이곳에서 현재 8기 기본교육 수료자까지 불교공부와 신행을 직접 지도하고 있다. 특히 기도법회 회원을 중심으로 매월 1만원의 후원금을 적립해 소년소녀가장 돕기, 종립학교인 정광중고등학교 결식아 급식 지원, 군부대 지원 등을 진행해 왔다.

또한 방생과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그 이익금을 예치해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

성오 스님은 동진출가를 했다. 은사인 장조 스님은 동국대 전신인 중앙학림을 2회에 졸업하고 신학문을 일찍 공부한 당대의 선지식이었다. 후에 백양사에서 불교경전 외에 외전으로 측량과 제도, 산술 등을 가르치며, '부지런히 읽어서 머리에 넣어야 한다'는 말을 늘 강조했다.

성오 스님은 이런 은사의 가르침을 이제야 깊이 깨달았다.

그래서 스님은 지금도 매일 붓을 잡고, 글을 쓴다.

"앞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 끼니를 먹지 못하는 이들이 많거든요."

스님의 바람처럼 사찰마다 매월, 매주, 매일 무료급식소 같은 일들을 해낸다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일일 것이다.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배우는 것을 남에게 베푸는 포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호남에서 불교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원력으로 살았으면 해요."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인들의 정신적 치유, 구병시식, 중생제도 안식처

'빙의 치료 대가' 혜봉 스님

구병시식, 빙의퇴치 영가천도 지장도량



3권 모두 1만원 보시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농협 703088-51-013554
예금주 : 지장선원]

낙태영가 장애로 인한 청소년 빙의 퇴치 전문


부처골 지장선원 종정 혜봉 대종사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인 정신적인 '빙의'는 오랜 시간을 지내오면서 스트레스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 인간이 생활해 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한 영적현상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심령(心靈)치료이며 그 중의 하나가 병의 원인을 풀어 나가는 핵심이라고 본다. 그런데 '빙의 치료 대가' 혜봉 큰스님을 만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 또한 중생들에게 기쁨의 소식 아닌가!! 현대의학에서 풀지 못한 미스테리한 병을 심령치료로서 지친 영혼들의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며 영적치유로 새 삶을 누릴 수 있는 '영험이 살아 있는 소원성취 기도도량 천년고찰 부처골 지장선원'

■ 주소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리 458-1번지
■ 전화 : 054)383-8553 / 011-9585-4908
홈페이지 www.jijangsw.com
다음카페 '부처골 풍경소리' http://cafe.daum.net/jijangsw/www.jijang999.com
※ 한국심령과학연구회 회원모집 (기공사, 점사, 빙의치료 관심 있으신 분)

부처골 지장선원 종정 혜봉 대종사

하룻밤에 깨친다고? 내 '욕심'은 봤다

성주 천상곡 도솔암 철야정진

#만남

"아악~!"

비명소리가 고요한 암자의 정적을 깼다. 성인 엄지손가락 한 마디정도 크기의 말벌이 발바닥에 일침을 가하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졌다. '출발할 때부터 풀리는 일이 없더니 될 일도 안 될 날인가보다' 라는 짜증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나만을 위한 딱 하루의 시간이 절실한 요즘이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만사에 의욕 상실은 물론이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마저도 상실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숨을 쉬어도 늘 갑갑한 가슴을 뚫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도 쉽지 않은 일이다. 경북 성주군 금수면에 위치한 천상곡 도솔암으로 '1박 2일 철야정진' 취재. 지방 출장 명이 떨어졌다. '딱 하루만' 쉬었으면 했던 나의 바람이 산산이 무너지자 가슴이 죄어오기 시작했다. 더욱이 출발부터 도착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도착한 이곳에서 날 처음으로 반긴 것이 말벌이었으니 허탈한 웃음과 고통을 부여잡는 눈물이 절로 나왔다.

7월 18일, 저녁 10시가 되자 서울에서 온 5명의 보살님들을 비롯해 사찰에 기거하시는 보살님 등 15명이 법복을 맞춰 입고 가부좌를 하고 앉는다. 매주 토요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진행하고 있는 철야정진에 참가한 재가자들의 마음에는 이미 고요가 찾아들었다.

나? 벌에 쏘이고 보살님들의 극진한 응급처치를 받고도 통증이 쉬이 사라지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된장을 펴 바르고 앉아있다. 된장냄새는 슬금슬금 올라오고 욱신욱신 거리는 발의 통증은 발목까지 올라오고 있다. 그냥 된장냄새 맡으며 나를 쏘고 열반에 든 벌을 추모(?)하며 몸을 뒤틀고 있었다. 수행이고 뭐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으나 천상곡에서 나의 생각들은 불필요한 소음일 뿐이었다. 도솔암 수행자들의 고요한 숨소리는 바람 따라 퍼지는 개구리울음소리, 풀잎소리, 새소리, 빗소리와 함께 성성적적(惺惺寂寂)에 잠겨있었다.

수행은 50분 참선, 10분 포행을 반복했다. 자정이 되자 도솔암 주지 지해(智海) 스님의 우레와 같은 죽비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해 스님은 <초발심자경문>으로 법문을 시작하셨다.

"참나는 무엇입니까? 탐 · 진 · 치의 어두운 그림자는 참나를 가리고 있습니다. 늘 남탓을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방해하는 어리석은 일들로 아까운 세월만 낭비합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경책하게 됩니다."

스님의 나지막한 음성을 타고 전해지는 법문이 경종으로 다가왔다. 무절제와 불규칙한 생활로 스스로에게 화를 내고 때론 소중한 이웃을 탓하기도 했던 나의 삶이 스쳐지나간다.

"인간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탐욕은 마음의 눈을 멀게 하고 만겁 세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 본래 밝고 깨끗한 나와 이웃 모두를 못살게 합니다. 욕심을 내면 당장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데 어떻게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대해탈, 대자유, 마음의 광명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순간, 단 몇 시간 만에 깨침을 얻어야 한다는 욕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다. 깨달음에 대한 욕심도 아무것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듯, 바람 따라 흘러가는 자연의 소리처럼 조금씩 마음을 비우기로 했다. 비움의 미덕을 갖추지 못한 채 헛된 소유에 집착하며 살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조용히 되돌아본다.

"최소의 의식주만을 갖추되 남는 것은 이웃을 위해 유감없이 공양하고 보시하는 무소유의 삶을 사세요. 항상 예불, 공양, 발원하며 지혜를 갖추고 깨어있는 삶, 대자유의 삶을 사십시오. 참선하는 불자는 참 자아를 찾아 참 자기를 밝히고자 하는 사람이기에 출가자와 진배없습니다."

지해 스님은 수행자들을 아낌없이 격려하고 칭찬했다. 깊은 밤, 모든 것을 끊어 본래 마음 자리에 들어가기에는 힘들었다. 단지 아픈 발을 바라볼 뿐이었다. 허깨비에 홀린 듯 살아오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늘 놓치고만 살아왔음을 알 뿐이었다. 내가 여기서 하루만에 깨쳐 해탈하리라는 기대와 욕심에 본래 마음자리도 계속 놓치고 있듯이 말이다.

철야는 비교적 수월했다. 고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삶 속에서 고요를 찾는 것이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갑갑한 나의 일상에 묵묵한 답변이 쏟아져 나왔다.

벌에 쏘인 발에서는 된장냄새 머릿 속엔 망상 가득
조금씩 마음 비우며 고요속에 잠기니 '헛된 집착' 보여

#교감

이튿날. 지해 스님은 멀리서 온 서울 보살들에게 다담(茶談)을 청하셨다.

'스스로, 고요히, 자유롭게' 라는 글이 눈에 띄는 스님의 방은 소박했다.

"차를 마실 때는 자세를 똑바로 하고 색향미(色香味)를 봅니다. 담담한 차색을 묵묵히 바라보고 코끝으로 은은한 차의 향을 맡아봅니다. 한 방울의 차를 혀끝에 올려 연잎에 구슬을 굴리듯 차 한 방울을 올리고 굴려 보십시오. 멀리 떠나있던 마음을 찾고 삶의 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신다는 것은 도를 찾아가는 길과 같습니다."

몇 잔의 차가 오고갔다. 아직은 서툰 다도였지만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은 자연의 향과 맛과 색이었다. 도솔암은 거짓도 억지도 꾸밈도 없는 자연 그대로다. 무명의 잡초를 거두고 지혜를 밝히듯 꾸밈새가 지혜로 풍만한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문득 습관적으로 바른 화장품과 향수의 향들이 얼마나 인공적인 향을 내고 있는지를 느끼게 했다. 이곳에서는 노트북을 켜는 것도 MP3를 통해 음악을 듣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쥐고 내일을 걱정하는 허황된 모습, 산사의 적막을 깨우는 거친 걸음소리 등 행동 하나하나의 경거망동함이 자연의 거울에 훤히 비춰졌다.

다도를 마치고 울력에 들어갔다. 지난 밤 무섭게 내린 빗물은 법당 뒤에 조성되고 있는 '참선동산'의 토사를 씻어 내렸다. 수행자들과 스님은 삽과 괭이를 들고 장화를 신고 수습에 나섰다. 스님의 수행은 다른 것이 아닌 생활 그 자체였다. 밥을 먹고, 그릇을 씻고, 울력을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수행의 일환이었다. 모두가 수행이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도솔암에 49재 막재로 분주한 한때를 보내고 나자 암자에 또다시 산사의 고요함이 숨을 쉬고 있었다.

산사에 홀로 남았다. 함께 있었던 도반들도 다 떠나고 나 홀로 덩그러니. 깊고 깊은 산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바람으로 전해지는 자연의 소리뿐이었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해지는 서쪽하늘을 바라본다. 차의 향처럼 알듯 모를 듯 한 어둠이 몰려왔다. 멀리서 지해 스님이 바람에 흔들리는 연잎처럼 손짓을 하신다. 스님과 짧고 고요한 대화가 오고 갔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육관 설립을 서원하고 계신다고 했다. 나는 무슨 서원을 세웠지? 난 서원이 아니라 욕심이었다. 더 모아야 하고 더 가져야 한다는 탐욕에 물들어 있었다. 순간, '딱 하루만'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다리를 틀고 있는 것만이 수행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우스웠다. 수행은 일상생활에서 적게 먹고, 적게 자며, 말을 적게 하고 안일한 생활을 삼가는 것이다. 어려운 일도 평상심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하며 참기 어려운 것을 달게 참으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하심하고 근검절약하고 회향하는 삶이다. 고요한 하루를 보내고 방에 들어왔다. 양말을 벗어보니 발이 퉁퉁 벌겋게 부어 올라있었다. 벌에 쏘인 자리는 하루 동안의 통증이 사라지자 간지러워 죽을 지경이었다. 이게 삶 아니겠는가. 좋은 날 올 것 같지만 또 역경에 부딪히고 마는 것. 점차 현실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출발

새벽예불을 마치고 급히 길을 재촉했다. '하루만 더'라고 욕심을 부려봤지만 그것도 집착이다.

이곳에서 많은 선사들을 만났다. 자연의 미소를 품고 있는 지해 스님, 모든 일에 게으름이 없었던 행자님, 도솔암에 와서 겨울산 같던 마음의 눈이 녹아 내려 따뜻한 봄을 맞이했다는 보리자님, 입던 법복도 선뜻 벗어주며 초행자의 수행길을 도와주시던 광명보살님, 어머니와 같은 손길로 응급처치를 해주시던 여원행님, 초심자의 마음으로 마음을 교류했던 보련화님, 울력에서 남다른 기량을 보여주신 보리심님, 따뜻한 할머니 보살님들, 지나가는 이방인에게 '쉿다 가입소'라며 환영해주는 산골 주민들. 자연과 같이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히 사는 그들이 선사였다.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았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본다. 천상곡을 막 떠나려는 순간 말벌이 나에게 소리친다. 할!

이상언 기자


철야정진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오른쪽 두번째가 지해 스님.


서울에서 온 보살들에게 찻자리 법문을 들려 주는 지해 스님(가운데).


대웅전 법당뒤에 조성되고 있는 '참선동산'에서 울력을 하고 있는 수행자들.


지허스님 지음
135쪽 | 5,000원
선방일기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중생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납니다. 부조리한 백팔번뇌의 인간이 조화된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감산대사 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감산자전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집착에 있다.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착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현대불교@장터
www.HyunbulShop.com
기존의 「여시아문」이 「현불샵」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불교상품에서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 각종 이벤트 등
「온라인쇼핑몰 현불샵」을 인터넷에서 만나보세요.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2010 불교달력출시
국6절 · 12절 · 두달 · 차걸이 · 미니 · 다이어리 · 탁상 · 한지
창립 35주년 기념으로 달력가격 대폭인하 !!!

불서보급 35년 전통과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불교달력과 불교용품을 직접 생산, 판매합니다. [공장직영]
불교용품/불교서적/불교달력
침향/주목/염주/염주주머니
4·8용품/등표/전선·전구
공단등/바림등/만월등/청사초롱
봉축카드/생일카드/프린트용지
예수재용품/영가옷/탑다라니
사경책/사경지/한지108사경
양초/향/고급다포/타올다포
※ 달력카다록 ·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검색창에 [붓다쇼핑]을 치세요!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888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E-mail dongjin8888@naver.com
※ 대량구입시 가격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26

대자대비에 귀의하고 行하라

[원문]
병상록양삼제하(甁上綠楊三際夏)
암전취죽시방춘(巖前翠竹十方春)
일엽홍련재해중(一葉紅蓮在海中)
벽파심처현신통(碧波深處現神通)
–운문사 관음전

[번역]
꽃병에 꽂힌 버들 항상 여름인데
바위위의 대나무는 시방의 봄 일세
한 잎 연꽃은 바다 가운데 떠 있고
푸른 파도 깊은 곳에 신통으로 나타나시네.

[선해(禪解)]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류의 정로(正路)를 명시(明示)하셨으며 우주의 본체를 구명(究明), 미신의 테두리를 벗어나 즉심시불(卽心是佛)의 사자후를 토하여 암흑천지를 밝혀주기 위해 불교를 창도하셨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 귀의하라.' 자신 이외의 신에게 의지한다거나 남을 의존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것이라고 강력히 역설하셨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은 바로 이런 뜻을 확실히 명시하신 일대 혁명선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도(大道)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소 변질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그 방편(方便)의 가설(假設)들이 너무나 다양다색(多樣多色)하게 나타나 불교의 진수(眞髓)와 정로(正路)를 찾기가 매우 혼미해졌다. 불교가 여러 종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여러 곳에서 거의 매일 법회(法會)가 많이 열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불교가 생활 깊숙이 자리하는 증거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다행한 일이요 경복(景福)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옛날과 달리 스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깊은 교리를 전문성 있게 연구하여 이론상 또는 학술상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런 분들이 곳곳에서 불교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불교는 대중화 현대화 되었다. 하지만 이것을 아무런 비판과 분석조차 없이 그냥 발전현상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불교란 이론과 설명과 학술에 그 진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수행과 정견의 정진에 진실한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론이나 설명 따위는 실천의 수행과 정견의 정진을 하기 위해 그 바른 길을 찾는데 필요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이론과 설명을 가지고 성불했다는 사실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건혜(乾慧)나 지식(知識)만으로 해탈의 정상을 점거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 불자들이나 불교 학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불교는 참으로 다양해 졌다. 매년 사찰들은 일반 불자들을 단기 출가로 이끄는 행사를 하고 있으며, 사찰 템플스테이도 그 중의 하나이다. 심지어 불교TV에서는 금강경을 경제에 접목시켜 우승택의 '32개의 경제지표로 공부하는 금강경'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김홍경의 '마음의 학'도 바로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불교 포교적 관점에서 볼 때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불교는 승가(僧家)의 전유물이 아니며 또한 고인 물처럼 불교도 한 곳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한다. 흐르는 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불교도 끊임없이 발전하여야만 한다. 이런 와중에 보다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 변화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근본 사상은 자비사상이다. 그리고 끝없는 자기 수행을 통한 성불이다. 이를 간과해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를 우리 스님들과 불자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운문사다. 운문사 사적에 의하면, 진흥왕 때 한 신승(神僧)이 북대암 옆 금수동에 작은 암자를 짓고 3년 동안 수도하여 도를 깨닫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7년 동안 동쪽에 가슬 갑사, 서쪽에 대비 갑사(현, 대비사), 남쪽에 천문 갑사(현, 운문사), 북쪽에 소보 갑사를 짓고 중앙에 대작 갑사를 창건하였으나 현재 남아 있는 곳은 운문사와 대비사 뿐이다.

그 후 600년 원광 국사가 중창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당시 그는 대작 갑사와 가슬 갑사에 머물면서 점찰법회를 열고, 화랑도인 추항과 귀산에게 세속 오계를 내려줌으로써 화랑정신의 발원지가 되었다.

오갑사가 창건된 시기는 신라가 불교를 중흥하고 삼국통일을 위해 국력을 집중, 군비를 정비할 때였다. 이때 오갑사가 운문산 일대에 창건되고 화랑수련장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곧 신라가 서남일대 낙동강 유역으로 국력을 신장해가는 과정으로서 운문사 일대가 신라의 병참기지로 전략상의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그 후 당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와 후삼국의 통일을 위해 왕건을 도왔던 보양(寶壤)이 오갑사(五岬寺)를 중창하였다. 고려 태조 왕건이 보양의 공에 대한 보답으로 운문선사(雲門禪寺)라고 사액하였다. 조선 임진왜란 때 당우 일부가 소실되었다가 숙종 때 다시 보수가 되었다. 현재는 30여 동의 전각이 있는 큰 사찰로서 규모를 갖추었다. 운문사는 1958년 불교정화운동 이후 비구니 전문 강원을 개설했고, 1987년 승가대학으로 개칭되어 승려교육과 경전연구기관으로 수많은 수도승을 배출하고 있다. 현재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이곳에서 경학을 수학하고, 계율을 수지봉행하고 있으며,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 청규를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 운문승가대학은 국내 승가대학 가운데 최대의 규모와 학인수를 자랑하고 있다.

그럼 관음전 주련 내용을 살펴보자.

'병상록양삼제하/ 암전취죽시방춘: 꽃병에 꽂힌 버들 항상 여름인데, 바위 위의 대나무는 시방에 봄 일세.'

꽃병위에 꽂힌 꽃은 시들 뿐 변하지 않지만 사계는 항상 변화한다. 이러한 순환이 없다면 인간은 살수 없다. 이 대자연의 법칙 속에서도 인간의 존재는 무기력하다. 하지만 부처님의 근본 사상은 늘 있는 그대로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온 중생이 그 위대한 가르침을 실천할 때 불국토는 성취된다. 이 구절이 낯익은 독자도 있을 것이다. 낙산사 홍련암의 주련을 얘기할 때 음미해 본 구절이다. (736호 13면 참조)

관음보살은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중생 보살펴
시간과 공간 초월한 가르침 실천할 때 불국토 성취

'일엽홍련재해중/ 벽파심처현신통: 한 잎 연꽃은 바다 가운데 떠 있고 푸른 파도 깊은 곳에 신통으로 나타나시네.'

관세음보살님은 한 잎 연꽃 바다 한가운데 떠 있고 언제나 정법, 상법을 두루 사바세계에 펼치면서 일체 중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대성자모관세음보살님이다. 여기에 어머니 '모(母)'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넓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중생들의 어머니인 것이다. 중생은 그 한량없는 대자대비에 귀의하고 또 스스로 그 대자대비를 베푸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오늘 날 문명은 오직 머리와 지식만을 믿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됨이 파괴되고 있다. 어쩌면, 미래에 우리는 아주 절박한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어머니와 같은 자비심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이 곁에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힘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26

모양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원문]

本性卽是心 心卽是性 此卽諸佛心 前覺後覺 只傳此心 除此心外 無佛可得 顚倒衆生 不知自心是佛 向外馳求 終日忙忙 念佛禮佛 佛在何處 不應作如是等見 但識自心 心外更無佛 經云凡所有相 皆是虛妄 又云所在之處 卽爲有佛 自心是佛 不應將佛禮佛 但是有佛 及菩薩相貌 忽爾見前 切不可禮敬.

"본성이 마음이고 마음이 곧 본성이니 이것이 곧 부처님들의 마음이니라. 앞서 깨달은 부처님과 뒤에 깨달은 부처님이 오직 마음으로 전하신 것이므로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이룰 수 없느니라. 도리에 어긋난 생각 때문에 어리석은 중생은 자기의 마음이 바로 부처인 줄 모르고 밖으로만 구하느라 분주하게 염불하며 열심히 절하는데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 이와 같은 견해를 내지 말지니라. 자기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느니라. 경에서 말씀하시길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다'하셨고 '존재하고 있는 곳이 곧 부처가 있는 곳이다'하셨느니라. 자기의 마음이 부처이니 부처가 부처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헛되이 부처와 보살의 모습이 홀연히 나타나면 절대 예경하지 말지니라."


이당 김은호의 '달마 도강도(渡江圖)' (간송미술관 소장).

[해설]

가섭존자가 깨달은 진리는 우주의 근본실상, 즉 마음이요, 본성이요, 부처라는 것은 단지 이름일 뿐 입니다. 깨닫고 보면 그 어떤 표현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깨닫지 못한 분 입장에서는 깨달은 분이 위대한 분이고 신기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같은 경지에 들어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서 깨달은 분이나 뒤에 깨달은 분이나 똑같은 그 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본래 마음이 부처인줄 모르고'라는 말씀은 달마 스님께서 말세에 사는 우리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가 부처인데 밖으로 도를 구하려고 어리석은 수행을 하는 우리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염불을 한다면 부처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영원히 부처를 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내 마음이 본래 부처다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되며 절을 할 때도 문자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상의 자리에 마음을 두고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 표현으로 합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주 근본 마음자리에 두고 해야 공덕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내지 말아라'고 하신 것은 우주의 근본실상만 알면 부처는 따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그대로 현상계 부처 아닌 게 없는 까닭입니다. 하나로 봐야 된다 이 얘깁니다. 이렇게 보고, 염불할 때도 그 놈이 우주와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 그대로 염불선(念佛禪)이 되면서 조사선(祖師禪)도 되는 겁니다.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밖에서 구하는 염불을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간화선도 없었어요. 염불이나 계율을 지키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 밖으로 부처가 따로 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경에서 말씀하시길 '무릇 모양(형태, 생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다'하셨고 '존재하고 있는 곳이 곧 부처가 있는 곳이다'하셨느니라."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진실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형상 그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부처다. 부처 아닌 게 없고 마음 아닌 게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 아닌 것이 없으니 모두 마음이니까 꽃도 부처, 시계도 부처, 노보살님도 부처, 개부처, 소부처 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불교는 개도 부처고 소도 부처"라고 비아냥 거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리 상에서 보면 하나이니까 '소부처', '개부처'요 하고 이름을 붙여놓았을 뿐이지, 본래 실상은 표현 할 수 없으니까 실상은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이 부처이니 부처가 부처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내가 부처인데 왜 부처한테 절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처가 안 됐잖아요. 중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자리에 돌아가기 위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불상을 향해 절을 하지만 마음은 절을 하고 있는 본래 마음자리를 향해 절을 하며 본래 성품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셔야만 됩니다.

정진을 하다 부처가 보이고 보살이 보이면 '무엇을 봤다'고 공부가 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얘깁니다. 절대 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보살 형상이나 부처 형상은 삿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부처는 모양이 없으니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말라는 얘기죠.

정진 중에 나타나는 환(幻)의 현상은 마음에 틈이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또한 마음이 맑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로 정진 중에 나타나는 현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더욱 집중을 통해 뛰어넘어야 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맨입으로 염불하면 헛수고… 48대원 믿는 게 '본원'

오봉사 회주 효란 스님

진실로 믿고 일심염불하는 순수함이 정토신앙 근본

"강의하다 죽어도 좋다"… 90노구에도 매주 '열강'

본원 믿는 것이 '발보리심' 염불공덕 쌓아 '극락왕생'

서울 강북구 수유시장에 한 노파가 있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평생을 보낸 억센 노파였다. 욕도 잘 하고 사람들과 말싸움을 하기고 하며 억척같이 살아 온 노파는 어느 날부터 한 평생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말했다.

"이제 나도 살만치 살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좋은 일보다는 남에게 해될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구먼."

"시장에서 장사하며 한 평생 살았는데 좋게만 살 수 있는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래서 말이여. 나는 죽어서 지옥 갈 것이여. 근데 지옥에 가면 계속 지옥에만 있게 되나? 아님 부처님이라도 있어서 누가 구해 주는 법도 있는감?"

"낸들 알어? 그게 궁금하면 저 위 서원사 큰스님에게 여쭤봐야지. 그 절 큰 스님은 이녁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지 않을까 싶네."

노파는 벌떡 일어서서 가게 정리도 하지 않고 한 걸음에 서원사로 달려갔다. 그리고 효란(曉鸞 · 90) 스님을 뵙고 다짜고짜 여쭈었다.

"스님, 지옥에도 부처님이 계신가요?"

"예?"

"아, 지옥에도 부처님이 계시냐고요. 나 같은 사람은 죽으면 암만해도 지옥 갈 텐데, 거기도 부처님이 계신지 어쩐지 궁금해서 그래요."

"계시고말고요. 지옥이든 어디든 중생이 있는 곳엔 부처님도 항상 계십니다. 근데 왜 지옥 갈 생각을 먼저 하시오?"

"아따, 시장통에서 평생 억세게 살아 온 나 같은 사람이 극락갈 수 있다면 지옥이 텅 비었게요?"

효란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아직 살날이 많으니 다른 생각 마시고 염불을 하세요. '나무아미타불'만 열심히 하시면 지옥을 면할 수 있어요. 극락정토에 가실 수 있으니 믿음을 굳게 하시고 열심히 염불하세요."

노파는 한 마음으로 염불만 열심히 하면 지옥을 면한다는 효란 스님의 말씀을 듣고 춤을 추듯 좋아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노파는 입만 열면 '나무아미타불'이었다. 노파는 오직 스님의 말씀을 믿고 염불을 입에 달고 살았다. 물론 손님들과 입씨름 할 시간도 없이 염불만 했고 남을 대하는 것이나 가족들을 살피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렇게 염불삼매에 들다시피 한 생활을 하다가 노파는 병이 들었다. 효란 스님이 병문안을 갔더니 노파는 평온한 얼굴로 "스님, 저는 지옥 안가요. 죽는 순간에도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죽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노파는 잠을 자는 듯 그지없이 편안한 얼굴로 이승 인연을 마감했다.

이 일화를 두고 효란 스님은 "그 보살이 유식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일심염불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별이 많고 의심이 많으면 그렇게 염불에 매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는 게 많으면 신심은 적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대로 믿는 그 마음이 염불의 근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종교도 신앙할 수 없어요. 그 철저한 믿음을 바탕으로 쉼 없이 정진하는 것이 도를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엇을 믿으란 말인가?

장마전선이 남하 하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효란 스님을 뵈러 갔다. 노파가 찾아 간 서원사가 아니라 경기도 연천군 고문리 오봉산 계곡에 위치한 오봉사로 가야 했다. 수유리 서원사에서는 효란 스님의 제자인 서진 스님이 국내외에서 찾아 온 제자들을 가르치며 불자들에게 염불 신행을 지도하고 있다. 서진 스님은 효란 스님의 뒤를 이어 정토학을 연구하며 신행을 지도한다. 지난해에는 <불이정토론>을 펴냈다. 원효대사의 <양권무량수경종요>와 <아미타경소>를 번역한 뒤 엮은 책이다. 서원사는 생활불교잡지 <참불교>를 통해 신행을 안내하기도 한다.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로 조선말엽까지 향화가 꺼지지 않았던 오봉사는 일제 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을 겪으며 피폐 일로를 걷다가 효란 스님이 1993년 중창을 발원하고 법당을 지으면서 염불도량으로 가꾸어져 왔다.

해가 비스듬히 비치는 오후, 오봉사 마당에 들어서자 끊임없이 염불소리가 들린다. '무량수전'이란 글자가 커다랗게 새겨진 현판을 달고 있는 법당에서 젊은 스님이 쉰 목소리로 염불삼매에 들어 있다. 저렇게 목이 쉬고 또 쉬기를 반복하는 동안 젊은 스님의 정신과 육신에는 공덕의 향이 그윽하게 베일 것이다. 황금색 글자를 담은 현판은 서쪽에서 비껴드는 햇빛에 눈이 부시고 목탁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염불소리는 귀를 가득 채웠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한 걸음에 효란 스님을 찾아간 노파의 간절함 만큼은 안 되겠지만, 절을 한 번 하고 마주 앉자마자 '한 마디'를 여쭈어 바쳤다.

"근본소원을 믿어야지요."

지체 없이 떨어지는 스님의 대답. 귀에 보청기를 하셨지만, '한 마디'는 즉시 '한 마디'로 답하셨다. 그리고 어리둥절해 하는 기자를 위해 친절을 베푸셨다.

"근본소원이란 <무량수경>에 나오는 48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래 원력 다시 말해, 법장보살의 48대 원력을 믿고 염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본원염불이라 합니다. 염불신앙은 오직 본원염불이어야 잡되지 않아요. 48대원을 뿌리삼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꾸 접목시키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염불신앙이 자꾸 번잡해 지는 겁니다."

그냥 맨입으로 염불하는 것은 헛수고라는 말씀이다. 48대원을 믿고 알고 행(염불)하는 것이 진짜 염불수행이라는 것. 효란 스님은 일심으로 믿고 염불하면 공덕이 생기고 그 공덕으로 업장을 소멸해 극락왕생 한다는 순수한 마음 외에 다른 것에 정신을 팔지 말라고 당부한다.

"원효 스님도 <아미타경소>에서 왕생의 정인(正因)은 발보리심이요 염불은 조인(助因)이라 했습니다. 본원(48대원)을 믿는 것이 발보리심이고 염불로 공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48대원을 바르게 철저하게 믿고 염불을 하면 부처님의 공덕이 회향되어 그 힘으로 성불을 하는 것입니다."

효란 스님은 염불을 하되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8대원을 믿는 순수한 마음으로 염불에 일념을 바치라는 것이다.

일구미타무분별(一句彌陀無分別)
불로지탄도서방(不勞指彈到西方)

"(본원을 믿고)분별하는 마음 없이 나무아미타불 한 구절만 염불해도 손가락 튕기는 수고 없이도 서방정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육조 혜능대사의 말입니다. 염불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순수하고 행(염불)함이 한결 같으면 되는 것입니다. 본원염불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외길신앙입니다."

외길신앙, 효란 스님은 일본의 정토진종 사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의를 여러 번 했다. 물론 일본 스님과 불자들이 이 주장에 공감하며 더욱 신심을 낸다고 한다.

#"내가 이 책을 드렸던가?"

효란 스님이 내놓은 책은 <일광삼존불의 유래와 신앙>인데 표지가 노란 것이 한글로 된 책이고 사이즈가 크고 은색표지를 한 것은 일본어판이다.



효란 스님은 …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13세에 수덕사 만공 스님에게 출가했으나 도일(渡日)해 와세다 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해 독립운동에 관여해 옥고를 치렀다. 동산 스님의 사제인 동원 스님을 은사로 재득도하여 정토교학 연구와 염불수행에 매진했다. 한 일 양국을 오가며 강의를 하고 국제진종학회 한국대표를 맡기도 했다. 현재는 서원사와 오봉사 회주. 저서로는 <염불신앙법요집> <정토삼부경역본> <진실한 불교는 본원에 있다>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나> <정토삼부경강설> 등 다수.

선지식을 찾아서 효란



중생 있는 곳엔 부처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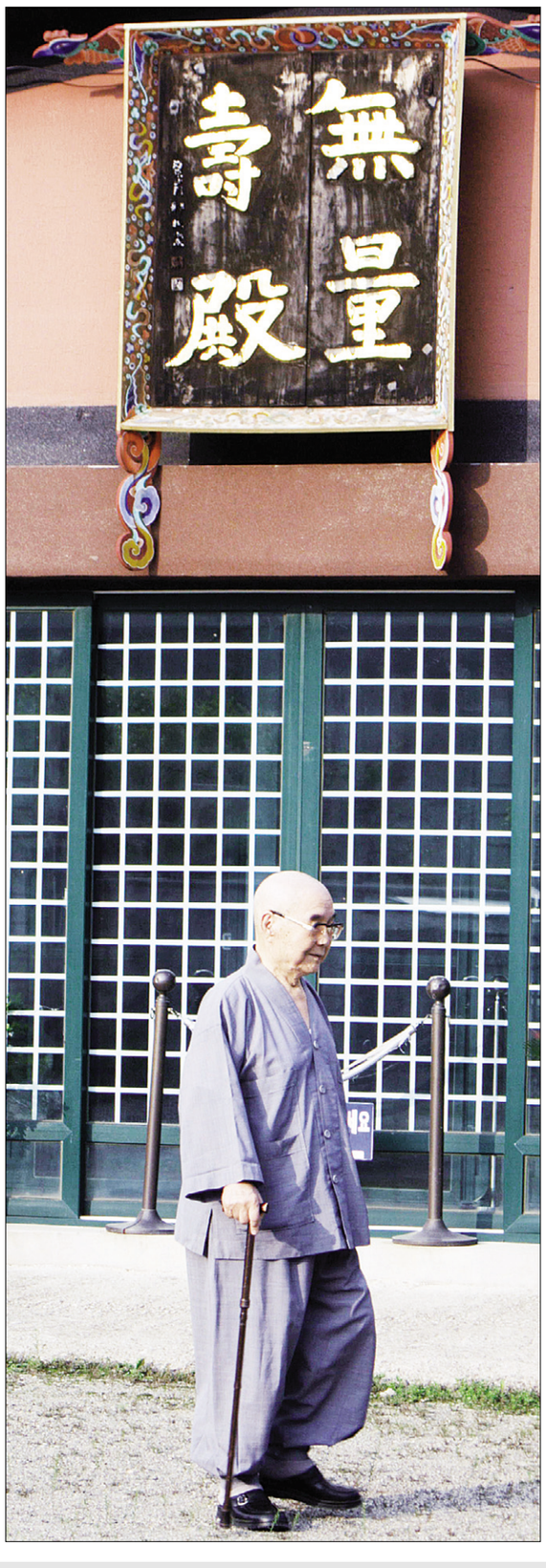
일광삼존불(日光三尊佛)의 유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67세 때 비사리국 암라수원(菴羅樹園)의 대림정사(大林精舍)에서 설하신 <청관세음보살소복독해다라니주경>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일광삼존불상은 아미타불과 좌우보처인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함께 조성한다.

일본의 장야현 선광사(善光寺)에 모셔진 일광삼존불상은 백제 성왕이 서기 552년에 일본의 흠명천황(欽明天皇)에게 보낸 것이다. 백제에서 봉송될 당시에는 '석가불금동상'이라 불렸으며 일본에서는 '선광사여래'라고도 불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성왕은 삼존불을 보내면서 "서방(중국)의 성인들은 깨우치지 못했지만, 오직 깨달은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뿐이다"라는 편지를 함께 보냈다고 한다.

효란 스님은 10년 전 일본에서 발간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일광삼존불의 유래와 신앙>을 한글판과 일본어판으로 펴냈다. 그리고 백제 성왕이 모시다가 일본으로 봉송했던 이 삼존불상의 분신불을 조성해 1983년 서울 서원사에 모셨다. 분신불의 조성에는 일본 진종다까다파의 고승들이 정재(淨財)를 내놓았다.

"인도에서 백제로 비래(飛來)하신 삼존불이 다시 인도 땅으로 가실 인연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한 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9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 스님들이 입회한 가운데 국내에서 일광삼존불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네팔의 카트만두에 세워진 일본 정토진종 본원사에 모시게 됐습니다."

효란 스님이 이 불사를 주도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원이 성취되어 모든 업보중생이 성불하길 바라는 원력 때문이었다.



#"강의 하다가 죽어도 좋다"

효란 스님은 언제 어디서든 강의 요청이 오면 달려가신다. 법회에서 법문하는 것 보다는 강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 법문은 일회성이기 쉽지만 강의는 텍스트(주로 정토삼부경)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세속 나이가 90인데도 매주 수요일 연천에서 분당 아미타사(前 약사암)까지 강의를 하러 가신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강의는 <무량수경>을 마무리하고 곧 <관무량수경>으로 넘어간다고 한다. 효란 스님은 직접 펴내신 <정토삼부경 강설>을 강의 교재로사용 하신다. 두 말할 것 없이 정토신앙의 근본요체가 삼부경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정토삼부경 강설>을 선물로 주시곤 한다.

효란 스님은 경전을 귀하게 여기고 경전을 해석한 책 나눠 주기를 즐기신다. <정토삼부경 강설>의 서문에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석가세존께서 설하신 경전은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인도에서 중국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발전했는데 여기에는 경전을 소중하게 의지해 온 수많은 학승들의 노고가 있었다. 때로는 설산에서 동사(凍死) 직전에 이르기도 하고 빙하에 빠져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기도 하는 등 말할 수 없는 노고와 참기 힘든 고독과 불굴의 정신이 이 많은 경전들을 인도 중국 한반도 일본으로 전했으며 열성적 역경사들에 의해 혼신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여 번역됐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봉사 뒤편 숲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31호인 오봉사지 부도가 있다. 효란 스님은 이 부도를 지극한 정성으로 모신다. 초목을 베어내고 주변을 정갈하게 보존하고 있다. 오봉사의 역사가 스며 있기 때문이다. 또 효란 스님은 인근 심원사 부도밭에도 많은 정성을 쏟았다. 군사지역에서 방치된 부도밭을 인근부대 불자 장교들의 도움을 받아 정돈하고 아미타부처님을 모시기도 했다. 한 때 심원사 부도밭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적도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존치하게 됐다고 한다.

역사적 연원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효란 스님은 정토신앙이 보다 넓게 확산될 때 인류와 만생이 이고득락하길 염원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봉사를 나와 임진강과 나란히 달리는 37번 국도에 멈춰 섰다. 북한 지역의 산들을 배경으로 서쪽 하늘에 걸린 붉은 해를 한참동안 바라보았다. 저 황홀한 노을빛은 서방정토 극락세상의 한 풍경일 것만 같은데 우리민족은 분단되어 있다. 나무아미타불.

글 · 사진=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54. 태고종 승정 충담 대화상

충담(1913~1998) 대화상은 1913년 경기도 가평에서 성균관 박사 이승노씨 삼남으로 태어났다. 집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17세 때 삼각산 승가사 심월 스님께 득도하고, 봉운사 강원을 수료했다. 1943년 중국 연변에 들어가 독립지사들을 격려하다가 1944년 귀국, 왕십리에 승가사를 다시 짓고, 1956년 경기도 가평 호명산에 감로사를 창건하였다.

감로사에서 20하안거를 성만하고 <관무량수경>의 16관법 중 일상관(日想觀) 수행한 스님은 1962년 권상로 스님 등 종도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종권수호를 위한 7일 단식 철야정진을 했다. 1970년 7월 1일 태고종으로의 관할청 등록 당시 관등록 사찰 1호로 승가사를 종단에 희사하는 등 종단발전의 공로를 남겨 태고종도들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에 빛을 보였다. 스님은 항시 약왕보살의 소신공양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나이 들어 내 죽게 되면 이 몸 그대로를 부처님께 바치고 싶어"하고 말씀하셨다.

"약왕보살의 소신공양(燒身供養)은 명자 그대로 5분향입니다.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켜 윤리도덕의 향을 만들고, 선정과 지혜를



잘 닦아 정향(定香)과 혜향(慧香)을 마련해 일체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거기서 생긴 해탈지견으로 소신공양할 것이니, 몸도 몸이지만 마음공부를 더욱 깊이 하여야 합니다."

"그래. 내가 어려서 출가하여 이력도 보고 선방도 들렸지만 세속 인심에 찌들어 번뇌덩어리가 되었지 뭐야. 그래서 상좌고 자식이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앓고만 있었는데, 내 이제부터 정진하여 아상(我相) · 인상(人相) · 중생상(衆生相)을 버리고, 수자상(壽者相)까지도 싹 털어 버릴테니 보라구."

그 뒤 스님은 행 · 주 · 좌 · 와, 어 · 묵 · 동 · 정이 모두 선이고 염불이라 가든지 오든지 걱정 없는 사람이 되었다.

1998년 5월 단오날 소신공양 하시려고 청평 감로사에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고 석유통을 미리 가져다 놓았는데, 신도들이 불공드리러 왔다가 발견하고 모두 다 숨겨버려 결행하지 못하고 단오재만 소리 없이 잘 지냈다. 스님은 단오재를 마치시고 서울 승가사로 와서 생각하셨다.

"옛 사람이 한 생각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생사라 하더니 생사 없는 곳에 적조영지(寂照靈知)한 것이 하늘까지 머금었으니 이것이 무엇인가. 눈도 청정하고, 귀도 청정하고, 코 · 혀 · 몸 · 뜻도 청정하니 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몸을 바치고 중생들을 위해 그 공덕을 회향하리라."

6월 27일(음력 윤 5월 4일) 새벽 다섯 시, 호명산 부처님께 다시 한 번 예를 올리고, 높이 장작더미에 올라 앉아 불을 붙이니 푸른 산골짜기에 한 송이 연꽃이 피어 올랐다. 조국 통일, 생로병사의 중생 제도, 불교계 화합흥륭 등 세 가지 대원력을 세우고 소신공양의 원력을 성취하신 것이다. 가평 소방서 사람들이 엠브런스

'한국의 포대화상' … 통일·중생제도·교계화합 발원 후 소신공양

받았다.

필자는 70년대 말 정두석 박사님의 뒤를 이어 승가사 법회를 5년 동안 보았는데, 부대(富大)한 얼굴에 항상 싱글벙글 웃음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포대화상'으로 불렸다. 귀가 크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얼굴이 유리알처럼 맑았다. 한 번도 화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만나기만 하면, "고맙네. 누가 불교를 위해 자네처럼 뛰는 사람 있는가. 우리 지성이도 좀 자네 같은 포교사가 됐으면 좋겠어"하셨다. 여름에는 하얀 모시옷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느티나무 밑에 앉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늘 염불로서 대했기 때문에 왕십리 일대에서는 충담스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스님의 아들 지성이 일찍이 출가하여 불교정신문화원 사무총장을 하면서 포교사 전문대학과 불교한방병원, 불교유치원을 잘 관리하였으므로 현대불교 포교를 몰아 달려갔으나 이미 스님의 법구(法軀)는 한 줌의 재가 돼 앉은 자세 그대로 소화돼 있었다.

중생부도처(衆生不到處)에
별유일건곤(別有一乾坤)이로다.
차문시하처(此問是何處)냐
대적열반문(大寂涅槃門)이로다.

중생이 이르지 못한 곳에
따로 한 세계가 있으니
이 곳이 어느 곳인가
대적열반문이로다.

이것은 고려 때 진각 국사의 임종게이나 살아서 그 몸을 그렇게 회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얀 모시옷에 백옥 같은 모습을 하고 왕십리 느티나무 밑에 앉아 108염주를 굴리시던 스님은 지금도 극락세계 문전에서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이 돼 있을 것이다.



한국 불교 최고의 신문!

현대불교신문사 충청지사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불교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보도하는 현대불교신문은

연합뉴스, 뉴시스, 충청뉴스, 한국불교신문, BBS 청주불교방송, HCN 충북방송, 충청권 일간신문(충북일보,충청매일, 충청타임즈,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청타임즈, 대전일보)에 실시간으로 기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충청지사
대전,충남,충북
+ 사찰의 법회, 행사 취재 보도
+ 사찰의 홍보 및 광고
+ 신문사(통신사)에 기사작성 제공 (연합뉴스, 뉴시스, 충청뉴스)

제보 · 구독 · 광고문의
• 충북지사 : 043-732-5560 • 대전지사 : 042-223-8214
• 지사장 : 010-9522-8453 (혜철스님) / E-mail : ksson108@hanmail.net
• 기자 : 010-5078-9748 (이한배 기자)

현대불교신문 1인 1부 구독하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최고를 지향하는 충청지사가 되도록 저희 임직원 일동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지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편리합니다. (통장번호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정토원 초코파이고봉스님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탁월한
당뇨에 좋은 웰빙 당조고추 개발



제일종묘사와 농촌진흥연구소 및 강원대와 공동으로 3년 연구 끝에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AGI(A-Gluosidase Inhibitor)라는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신 기능성 고추를 개발하였습니다.

AGI는 십이지장 등에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데 당조고추를 당뇨에 걸린 쥐에 투여한 결과 식후 30분 후 혈당치가 120-150mg/de로 평소 180mg/de에 비해 상당한 혈당강화 효과를 거두었다.

정토원 주지 고봉 스님의 당조고추

"현시대 불교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사를 찾던 중 새롭게 개발된 기능성 고추인 당조고추를 재배하게 되었다." 평소 농사를 수행처럼 생각하시던 스님은 대중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당조고추에 천연항생물질(프로폴리스)을 살포하여 기능을 강화시키고 고추작물에게 나무아미타불 염불과 명상음악을 듣게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황금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체 친환경농법을 사용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7월 초 첫 출하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식품검사소에서 농약잔류검사를 의뢰하여 280성분수의 농약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 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

✔ 크기 및 색상
고추명은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라 하였고, 이 당조고추는 다른 고추에 비해 20-50% 가량 크고 색상은 파피색이나 연노랑에서 오렌지색으로 크며 익을 땐 일반고추와 같이 빨강색으로 익습니다.

✔ 맛
당조고추의 맛은 일반 고추 맛과 똑 같으며 안 매운 것과 약간 매운 맛으로 구분됩니다.

✔ 혈당저하 체험
당뇨환자들이 식사 전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서 당조고추 3-4개를 먹고 40여분 경과 후 혈당을 측정하여 보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체험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 성인병 예방에 효과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장기 섭취를 하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된장이나 쌈장에 찍어 먹어도 되며 파프리카와 같이 생식용이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 품종
우리나라 고추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기능성고추입니다. A-Gluosidase Inhibitor 기능성 성분이 다량함유되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계최초 기능성 당뇨고추입니다. 농림부 산하 농림기술관리센터의 농림기술개발사업지원으로 육성된 품종입니다. 강원대학교 이해익 교수와 원예연구소 조명철 박사가 제일종묘농산과 공동으로 연구, 육성한 품종입니다.



■정토원 :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22
☎ 054-383-0407

7월 첫 출시를 앞두고 "당조고추"가 필요하신 불자님들 전화주시면 "당조고추"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8>

'국가 개입 필요성' 외면 '약탈자본주의' 형성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예속된 불안한 세계 경제 지속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시장의 실패'에 대해 얘기 했다. 시장의 실패란 간단히 말해 '자유경쟁 시장 매커니즘'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시장은 일정 부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완전경쟁의 조건은 출발선상의 동일을 요구한다. 출발선이 동일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려가 필요하다.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다시는 동일한 출발선에 서지 못한다. 이들에 대한 국가의 배려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시장의 실패' 가능성과 '국가 개입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자본(부르주아) 세력들은 이 부분을 애써 모른채 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 결과는 이른바 '약탈자본주의' 시대의 도래이다.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18시간 까지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그렇게 일해도 받을 수 있는 소득은 가족들이 목숨만 간신히 연명할 정도 밖에 안되는 빈궁한 생활수준 이었다. 부녀자, 노약자, 어린 아이들도 최소한의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 동일한 노동조건에 내몰리게 되었다.

공장의 노동환경도 열악한 상태였다. 노동자들은 석탄가루를 마시고 졸린 눈을 비벼가며 심야 노동 등에 혹사당했고, 과로사(過勞死)로 노동자들은 쓰러져 갔다. 이와 같은 '빈궁의 고통'을 불경(법원주림)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講)하고 있다.

어떤 것을 고통이라 하는가,
이른바 빈궁이 바로 그것이며
어떤 고통이 가장 심한가,
이른바 빈궁의 고통이 그것이네

죽음의 고통과 빈궁의 고통
이 두 고통은 다 꼭 같나니
차라리 죽음의 고통을 당해도
빈궁하게는 살지 않으리.

노동자들의 가난과 빈궁의 고통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는 소요사태가 자주 벌어진다. 경찰과 군대가 동원되어 진압되곤 했으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의 그룹이 생겨난다. 이들이 처한 비참한 생활상은 무언가의 구조적인 왜곡(歪曲)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시작되었지만, 칼 마르크스(K.Marx)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들은 기득권 세력이 내세우는 논리에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 보다 100년 전, 18세기에 산업자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신흥세력이던 시절, 그들은 중상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기득권 세력(절대왕정 + 상업자본가 + 교회의 연합세력)의 논리와 사상체계, 이를 기반으로 한 탄압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 산업자본가 자신들마저도 기득권세력이 된 것이다. 부처님 말씀과 같이 참으로 세상사는 제행무상(諸行無常) 그대로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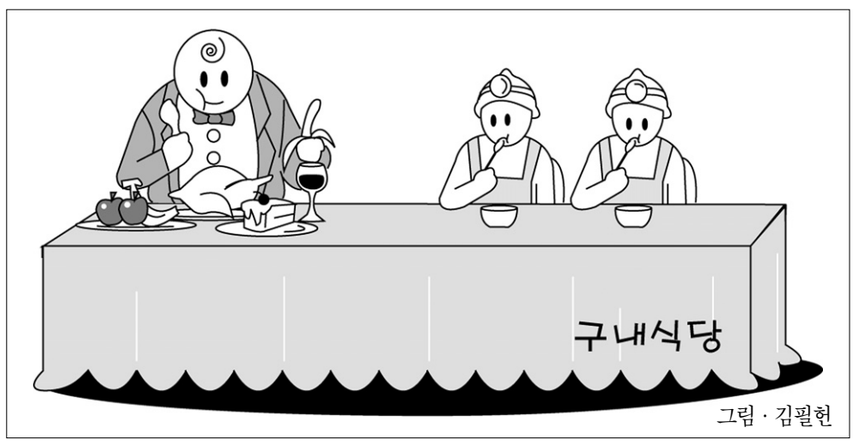


그림 · 김필헌

'비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에 맞추어 세상을 바꾸려 들고 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에 맞추어 자신을 바꾼다'고 한다. 그런데, 도저히 당시의 세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비합리적인 한 사내(男)가 대영제국의 무료 도서관에서 비장한 각오로 집필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가난해서 책 한권 살 여유도 없었던 그에 의해 <자본론>은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다.

이 책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내적 구조와 운동법칙을 자세히 서술하고 이 체제의 내적 붕괴의 경향을 도출하고 있다. 2, 3권은 그의 사후에 절친한 동료인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해 편집, 출간되었다. <자본론>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잉여가치 생산과 그것을 전유하는 자본가와의 갈등관계, 즉 착취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묘사하고 있다.

칼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태어나 만년을 영국에서 보내고 거기서 생애를 마쳤다. 그는 고국인 독일에서도, 자본주의의 모국인 영국에 있어서도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가는 현실과 곤궁한 노동자들의 생활상을 생생히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토록 비참한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의 정과 정의감이 <자본론>집필의 초발심이 되었던 것이다. 이 점은 아무리 마르크스 경제학을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요소일 것이다.

스미스(A. Smith)와 리카도(E. Ricardo)의 학설과 같이 '모든 가치의 원천'이 노동(labor)에 있다고 한다면, 노동의 종사자가 노동의 모든 결과를 가져야 하며, 지대(地代)가 불로소득(不勞所得)일 뿐만 아니라 이윤(利潤) 또한 불로소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실제경제 현실은 이와 다르다. 생산물의 총부가가치의 몫은 대부분 자본가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린다. 경제사회조직에서 노동자가 얻는 임금은 극히 적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에 의하면, 이는 불공정한 부의 분배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이른 것은 사유재산제도와 과당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토지 기계 등의 고정자본의 사유화를 금지하여 사회의 공유로 할 것을 역설한다. 그리고 그는, 헤겔(Hegel, G, W, F)의 '변증법' 철학에 근거를 두고 영구적 원리를 부인하여 자본주의적 사회조직은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며, "자본주의 시장체제는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붕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의 예언대로 영국과 미국에서 계속 금융공황이 발생한다. 계속된 금융공황으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 내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겨났는데, 그것은 수차례 반복된 금융공황으로 인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예속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글로벌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대규모 제조업체 소유자의 대부분은 은행자본이며, 그 은행자본이 세계 경제 파탄의 주역이 되고 있는 점을 볼 때, 그 점 만큼은 마르크스의 예언적 혜안에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⑧ 코칭의 언어학 2 - 질문

허달의 불교와 코칭

스스로 행동하게 하는 강력한 질문 '효과적'

2004년 오스카 상을 휩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주연의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는 매기라는 여자 복서와 프랭키라는 코치의 이야기이다. 향후 선수생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기에 임한 매기가, 적어도 두 번 상대방의 강타를 허용한 힘든 라운드를 싸우고 코너에 돌아와 스툴 위에 주저앉자, 코치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진행된다.

매기: (상대가) 너무 강해요. 파고들질 못하겠어. 펀치를 먹일 거리까지 접근이 안돼요.

프랭키: 왠지 알아?

매기: 왜죠?

프랭키: 상대가 너보다 나은 선수이기 때문이지. 너보다 젊고, 너보다 세고, 경험도 많아. (잠시 침묵) 자, 이제 어떻게 할래?

공이 울리고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자, 매기는 몇 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을 매트 위에 쓰러뜨리고 승리한다.

권투 코치 프랭키가 이 장면에서 한 이야기를 기법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면, 이 기법은 열린질문(Open Questions)이라는 코칭 기법이다. 열린 질문은 발견질문이라고도 하며 상대방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말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말한다.

코치가 공감적 반응과 경청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그의 마음을 열게 만들면 고객은 코치의 질문에 대답할 마음의 상태를 갖추게 되는데, 이런 때 코치는 열린질문을 활용하여 고객의 생각하는 기능이 풀 가동하도록 돕는 것이다.

앞의 예에서 프랭키가 여느 코치처럼, "왼쪽 가드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라든지 하는 기술적 조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프랭키는 달랐다. "자! 이제 어떻게 할래?" 라는 강력한 질문이 매기의 존재(Being)에 작용하여 두뇌 회전을 가동시키고 경기의 패러다임을 두뇌를 가진 복서와 두뇌를 갖지 않은 복서의 싸움으로 전환시키도록 도운 것이다.

코칭에는 20/80의 룰이 있다. 코치와 고객의 대화 비율이 정량적으로 20/80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 20을 이루는 코치의 대화내용이 간결하고 열린 질문, 강력한 질문 등이어야 20/80의 비율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그러므로 열린 질문은 멋진 질문이 아니고 가장 보편적인 질문들이다.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가 코치의 언어와 다른 경우가 자주 있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가급적 고객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이 사용하는 말에서 실마리를 얻어 여기에 의문부사를 적절히 붙여 질문을 만들면 훌륭한 열린 질문이 된다.

예컨대 프랭키의 "자! 이제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매기가 대답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오른 쪽을 열어서 상대의 강함을 역이용해 보겠어요" 라고 했다면 다음에는 "그것 외에는 또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이 평범하지만 강력한 질문이 된다. 이처럼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자극하여, 스스로 답을 발견, 실행케 하는 힘을 갖고 있다.

코칭이 컨설팅이나 멘토링 등과 다른 점은 이와 같이 코치의 질문을 통하여 고객에게 전달되는 관심사가 일(doing)이나 솔루션에 연결되어 있기 보다 그 존재(being)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코치는 고객의 잠재력이 무한함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존재에 다가가서 그 작동기제를 건드려주기만 하면 고객 스스로가 솔루션을 창출해 낼 것을 굳게 믿는다.

코칭의 언어 중 질문에 버금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침묵이다. 공감적 반응과 경청의 기술에서도 침묵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었지만, 열린 질문을 하는 코치가고객이 생각하는 충분한 시간적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또한 발견질문의 구동력이 정점에 도달하도록 타이밍을 맞추기 위하여 '강력한 침묵'을 구사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코치는 고객의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를 응시하는 성실성과 연민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수보리야, 네 뜻에 어떠하냐? 여래가 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느냐? 또한 여래가 내린 가르침이 있었더냐?" 경(經)에 수록된 바, 금강과 같은 지혜를 여는 질문들은 모두 언어의 길이 끊어진 중도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손가락이요 뗏목이라 하겠다. 이들이 중생계의 눈높이에 맞는 열린 질문과 강력한 침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한번 눈여겨 볼만 하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진시황제가 비밀시 활용하던 천비술서! 금쇄옥약시의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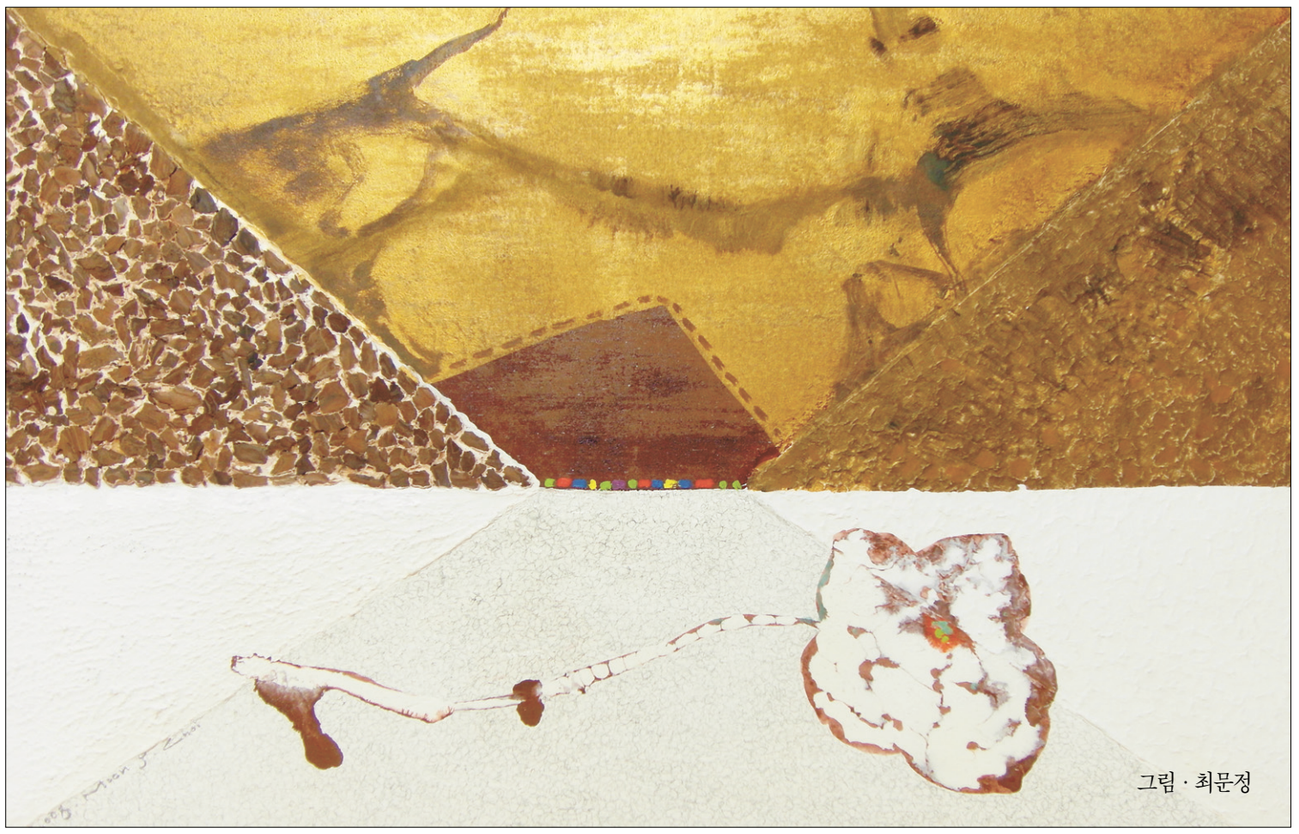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720면/정가 각120,000

십자성 래정비법 전수생모집
사주를 뽑지않고, 자신이 갖고 들어온 점괘로 쉽게 푸는 법
1:1강의 저자 백초스님 직강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죽을지라도 꼭 해낸다고 결심하면 성공한다




그림 · 최문정

설악산 오세암에서 생식하며 장좌불와 공비도 감동해 하안거 동안 불단에 식량 놓고가

혜암은 산철에도 천제굴에 남아 정진하려고 했다. 동안거를 나면서 받은 득력(得力)이 해제 이후에도 성성하게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천제굴에 오는 신도 모두 혜암을 보고는 얼굴이 더 맑아졌다고 좋아했다.

그러나 혜암은 천제굴을 떠나야만 했다. 천제굴에 머물기를 원하는 수좌들도 있었고, 성철을 친견하고 싶어 찾아오는 신도들이 너무 많았다. 신도들이 계속해서 천제굴로 와 속세의 그림자를 떨어뜨려 놓고 갔다.

도반 격인 서옹, 청담, 향곡 등이 자주 와 법담을 나누었고, 성철이 기대했던 비구니 인홍과 혜춘은 물론이고 불교신자인 장관과 장군도 성철의 설법을 듣고 갔다. 산청에 사는 성철의 속가 식구들까지 들렀다가 불연(佛緣)을 맺고 갔다.

그날도 혜암은 성철을 찾아온 마산신도들을 피해 은봉암으로 올라갔다. 은봉암은 성철이 천제굴을 짓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암자였다. 은봉암은 벽발산 7부 능선쯤에 있었다. 은봉암에서는 남해가 한눈에 보여 산자락에 숨은 천제굴과 달리 전망이 시원했다.

혜암이 거대한 입석 같은 성석(聖石)으로 다가가 합장하자 은봉암 주지스님이 나와 반겼다.

"혜암스님, 무슨 일로 올라오셨습니까."

"은봉암 법당에서 좌선이나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하하. 아예 은봉암으로 오시어 사시지요. 공부 잘하는 스님 같은 분이 은봉암에 계셔야 합니다."

"제가 뭘 잘 산다고 그럽니까. 여기 계시는 스님들도 좋은 분들입니다."

"아닙니다. 전쟁이 나는 바람에 암자가 숙박업소 같이 변해버렸습니다. 공부하는 스님은 없고 피난 다니는 스님뿐입니다."

목숨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는 자신 자책

은봉암 주지는 수행풍토가 변한 것을 전쟁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성철스님 같은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스님들은 전쟁에서 화를 면하고 살아날 궁리만 하고 있으니까요."

순간 혜암은 부끄러웠다. 자신에게도 그런 면이 조금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참선수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라지만 목숨이 안전한 남해안 지방의 절들에서 안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수행을 게을리 하는 것은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들이나 이리저리 피난을 다니는 백성들에게 죄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철스님께서 은봉암에 계실 때부터 3천배를 받았는데, 더 철저하게 정진하시기 위해 3천배를 받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성철이 신도들에게 요구한 불전(佛前) 3천배는 은봉암에서 시작했다고 봐야 옳았다. 수행자로서 자신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은봉암에서 시작한 불전 3천배는 천제굴에서 성철식의 화두처럼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혜암은 법당으로 들어가 자신의 처지를 자책했다. 수행자에게 목숨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민망하고 어이가 없었다.

'아, 나는 아직도 공부하는 데 죽을 각오가 돼있지 않다. 목숨에 대한 애착을 떨어뜨리지 못했다. 날마다 알곡 한 톨과 한 방울의 물로 이어간 부처님의 6년 고행에 비하면 나는 너무 사치스럽다.'

혜암은 오후 한 나절을 은봉암 법당 부처님 앞에서 안일한 자신을 참회했다. 천제굴로 돌아왔을 때는 땅거미가 깔리어 어두워지고 있었다. 사립문을 들어서자 성철이 말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노."

"은봉암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거기, 밥값 못하는 중들 많대이."

"지금은 주지스님만 있고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은봉암 법당도 좌선할 만했습니다."

성철은 혜암의 마음을 간파한 듯했다. 혜암이 불편해 한다는 것을 며칠 전부터 눈치 채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천제굴은 이제 시장바닥이 됐대이. 3천배를 시켜도 부산 마산 신도들이 찾아오니 어떡하겠나. 중노릇 잘하기도 참으로 힘든기라."

"스님께서도 더 깊은 청산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더 깊은 청산은 마음속에 있으니 어디로 가겠노. 방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암자 둘레에 감옥소처럼 철조망을 둘러치는기라.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올끼다."

"천제굴에 철조망을 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기는 아니다. 지형이 요새 같아야 하는기라."

"스님, 그것은 괴각이 하는 방편입니다."

"하하하. 혜암 수좌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기라. 나는 세상을 향해 철조망을 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철이 암자 둘레에 철조망을 쳤다고 할기라."

성철은 3천배도 효과가 없으니 암자 둘레에 철조망을 치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천제굴은 철조망을 칠 수 없는 곳이었다. 아무리 철조망을 친친 두른다 해도 암자 뒤에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지형이었다.

"성철스님, 저는 철조망을 두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가려고."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안 된대이. 북쪽은 위험하다카이. 목숨이 있고 나서 불법도 있고 우주도 있대이. 죽고 나면 모든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노."

"참선수좌에게 목숨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생각하니 부끄럽습니다."

"혜암 수좌가 가고자 하는 데가 어디고."

"오세암입니다."

"공양은 어떻게 하고. 공비들이 진즉 다 털어갔을 기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부만 하다 보면 천우신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즉생이제. 그기 진짜 수좌의 길이고, 법을 위해 몸을 버리는 위법망구(爲法亡軀)의 일념인기라"

"죽을 각오로 공부하다 보면 제석천왕이나 호법선신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죽을 자리를 가도 안 죽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혜암의 믿음은 확고했다. 훗날 제자들에게도 법문 중에 늘 강조하곤 했다.

<사람이 죽을지라도 가서 내가 요거 꼭 해낸다고 결심하면 안 죽고 그 일을 성공해요. 그런데, 아이고 무서우니까 못 하겠다, 고생스러우니까 못 한다, 피곤하니까 못 한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죽어버리고 성공 못해요. 죽을 일이라도 끝끝내 버티면 천우신조로 이 천지 이치가 그 사람을 도와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적에 귀신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절대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고 가요.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가면 귀신들이 나에게 갖다 주게 돼 있어요. 옳은 일을 하면 먹는 것이 내 뜻과 같이 돼버려요.>

"혜암 수좌 말이 옳대이. 제석천왕 얘기는 참선하는 수좌라면 누구나 새겨들어야하는 기라."

"오래 전 은사스님에게 들었던 제석천왕 얘기입니다."

이후에도 혜암은 제석천왕 얘기를 제자나 신도들에게 즐겨 들려주곤 했다. 죽을 각오로 공부하면 눈에 안 보이는 제석천왕이나 호법신장과 산신이 도와준다는 요지의 얘기였다. 혜암스님의 육성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다.

<옛날에 한 스님이 공부만 잘하면 하늘이 먹을 것을 갖다 준다는 말을 믿고 깊은 산골로 들어갔어요. 공부만 잘하면 제석천왕이 밥을 갖다 준다고 했으니까 부처님이 거짓말은 안 했겠지 하고 그냥 빈 몸으로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공부만 했는데도 제석천왕이 밥을 갖다 주지 않아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을 갖다 주지 않는 거지요. 아, 부처님이 거짓말은 안 했을 건데 갖다 주지 않는 겁니다. 스님은 제석천왕이 밥 갖고 오는 것을 보려고 여기도 내다보고 저기도 내다보고 그랬대요.

결국 스님은 사흘이 지나서는 '제석아, 제석아. 빨리 밥 가져오너라.' 하고 소리를 쳤지요. 마침 그때 어느 마을의 부자가 잠을 자다가 어떤 스님이 깊은 산골에서 공부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깨어난 부자는 이상하다, 하고 생각했어요. 다른 꿈과 달리 유난히 또렷하고 영롱했거든요.

부자는 허탕 칠 생각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꿈에서 본 산골로 갔다고 해요. 어디쯤 가는데 '제석아, 제석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요. 부자의 이름이 제석인지라 자신을 부르는 곳으로 갔더니 한 스님이 있더랍니다.

공부하는 스님은 부자인 제석을 부른 것이 아니라 제석천왕을 부른 것인데, 딱 조화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공부하는 스님은 끝까지 부자를 제석천왕으로 알고 '사흘이나 굶기느냐' 고 막 야단을 쳤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 이름은 제석인데 현몽하여 이 산골까지 음식을 준비해서 왔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인연으로 부자는 스님에게 양식을 계속 대게 되었고, 스님은 마침내 공부를 잘하여 성불했다고 해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다는 얘깁니다. 공부만 잘하면 천하가 하나로 통해져버리니까요. 나는 이 얘기를 믿고 6.25전쟁 때 설악산으로 가서 공부했어요. 당시 설악산에 호랑이가 나오고 귀신이 산다고 했지만 정작 나는 그것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감자를 좋아하는 멧돼지도 내가 심어 놓은 감자는 해치지 않아요. 다른 논밭은 두둑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소나무 뿌리를 씹어놓고 가는데도 말이에요. 산짐승도 부처님이나 산신님이 스님들 것은 손대지 말라 하면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절대로 손대지 않거든요.>

결국 혜암은 그해 봄이 가기 전에 천제굴을 떠나 설악산 오세암으로 갔다. 피난을 다니면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 속으로 자신을 던졌다. 오세암으로 가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인민군들에게 붙잡히어 두 손이 묶인 채 총살을 당할 뻔도 했고, 또 한 번은 검문에 걸려 납북당할 뻔도 했으나 그때마다 위기를 넘겼다.

천신만고 끝에 찾아든 오세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인민군이 빈 오세암을 찾은 혜암에게 군인과 경찰의 첩자라며 경계했다. 그러나 혜암은 오세암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노지 소나무 그늘에서 하루 종일 참선을 했다. 비오는 날만 법당으로 들어가 정진할 뿐이었다.

구해온 콩과 솔잎으로 하루에 한 끼 생식을 하면서 장좌불와를 이어갔다. 그러자 며칠째 산속에 숨어 혜암의 동태를 감시하던 공비가 감동했던지 자신이 먹을 식량을 법당 불단에 몰래 놓고 갔다. 하안거 동안 내내 식량을 불단에 올려놓고 갔다. 그러니까 혜암을 해치려던 공비가 신장이 되고 산신이 되고 제석천왕의 역할을 한 셈이었다.<계속>



불서광장



틱낫한의 행복/틱낫한 지음/진현종 옮김/경덕출판사/1만2000원

"나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털 받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전환시킬 수 없다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틱낫한은 우리 마음 속의 화와 두려움 고통 등을 없애는 것이 행복으로 이르는 길임을 강조한다.

그가 펴낸 여러 책들에서 행복의 길을 일러주는 대목들을 발췌해 묶었다. 프럼 빌리지의 수행공동체 생활을 담은 사진과 다양한 이미지들이 눈을 시원하게 한다.



티베트의 즐거운 지혜/욘게이 밍규르 린포체 지음/류시화 김소향 옮김/문학의 숲/1만2800원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는 티베트의 신세대를 대표하는 수행자다. 네팔 누브리 계곡에서 태어나 티베트 밖에서 교육받은 그는 캉규르 린포체(1898~1975)의 환생으로 인정받았다.

그러한 밍규르 린포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과 세상을 인식하는 지혜를 전한다. 그는 마음속의 두려움과 장애를 없애고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을 기도하듯 우리에게 알려준다.



유교경/김지수 옮김/하늘북/1만원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을 담은 <유교경>의 갖춰진 이름은 '불수열반략설교계경(佛垂涅槃略說敎誡經)'이다. 구마라집 한역본을 김지수 교수(전남대 법대)가 우리글로 쉽게 풀었다. 앞 시대의 선지식들이 밝혀 놓은 원문과 절요, 주해 풀이 등 여러 과정을 거쳐 경문을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됐다.

옮긴이는 "앞부분의 부처님 가르침 원본만 따로 읽고 마음에 새겨 궁행한다면 뒷부분은 펼쳐보지 않아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실정치와 미래 한국의 비전/윤소암 지음/솔과학/1만5000원

'바보 노무현의 꿈과 사랑'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바로 오늘의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예리한 시선이 책의 곳곳에 꽂혀 있다. 투쟁과 대립의 정치상과 사회구도 시대착오적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종교집단, 노무현 前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지도자들의 뒷모습, 이명박 현 대통령으로 표상되는 정치적 이해와 국가통솔의 채널들, 황우석 · 지율스님 · 운암 · 김성숙 · 버락오바마 등을 통해 보는 '오늘'이 진지하다.

저자가 최근 7년간의 한국사회를 바라보며 쓴 다섯 번째 평론집이다. 서문에서 저자는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다"고 고백하며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좌우이념 충돌과 흑백논리, 그리고 약육강식의 권력 투쟁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밝히고 있다.



울지말아요 티베트/정미자 지음 박선미 그림/책먹는 아이/1만원

티벳트의 어린이들은 왜 그 험한 히말라야를 넘는가?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훨씬 높은 그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의 아이들은 티테트의 아이들이 굶주림과 공포를 안고 추위와 싸우며 히말라야를 넘는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13세 보건이가 아빠와 함께 티베트를 여행하며 보게 되는 그곳 아이들과 스님 그리고 아저씨들. 보건이는 너무나 새로운 세상에 상상한 적도 없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이해하게 된다. 그 아이들에게는 달라이라마가 있다는 것이 열쇠였다.

스님이 수도원에서 수행 했다??

향적 스님의 가톨릭 수도원 체험기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



"베네딕트회의 묵상 방법이 묵조선과 매우 유사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경산 선본사 갓바위 주지 향적 스님이 프랑스 수도원에서 고행한 내용을 담은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이 화제다. 1989년 12월부터 1990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프랑스 삐에르-끼-수도원 체험을 회고하며 쓴 '해인에서 삐에르-끼-비까지'란 글에서 향적 스님은 가톨릭과 불교와의 수행방법을 비교하고 있다.

책에서 향적 스님은 "은둔 수행자로서 가톨릭의 성인이 된 베네딕트가 강조한 것은 금욕생활, 기도, 묵상, 성경공부 그리고 육체노동이었다"며 "이는 선가에서 교학과 선학을 겸수할 것과 울력을 통한 청빈함과 육체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한 것이 공통점"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가톨릭에서 명상할 때 성인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방법과 침묵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방법은 염불선과 묵조선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삐에르 - 끼 - 수도원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는 향적 스님.

더욱 놀라운 점은 베네딕트가 63세의 나이로 몬테카시노 성당에서 기도하다가 선 채로 선종(善終)했다는 것. 이에 대해 스님은 "선종의 조사들이 앉거나 선 채로 열반(坐脫立亡)에 드는 경우가 많듯이, 종교를 떠나 수행을 열심히 한 분은 생사(生死)에 자재함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적 스님은 프랑스 수도원 생활을 회고하면서 "'모든 종교는 대자연과의 소통을 추구하고 대중을 위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요약했다.

발문을 쓴 정휴 스님은 "향적 스님은 불교의 자비와 가톨릭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생명관을 통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나아가 하찮은 미물까지도 그 안에 하느님의 영혼이 살아 있고, 부처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있다"고 풀이했다.

추천사를 쓴 삐에르-끼-수도원 룩 원장은 "향적 스님은 겸손함으로 우리 수도원의 의식과 생활을 함께 했다"며 "우리는 상호의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종교를 넘어 우정을 나누고 있는 이해인 수녀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타종교의 문화를 폭넓게 수용하는 스님의 글들은 연꽃처럼 둥글고 아름다운 지혜로 우리를 초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에는 이해인 수녀와의 종교화합 대담', 칼럼집, <러시아지성사>에 대한 소고', 법문 등이 게재돼 있다.

금시조/1만5000원 김성우 기자

"바른 믿음에 도움 되길…"

광우 스님 '회향' 출판기념법회



광우 스님

서울 성북구 삼선동 언덕에 위치한 정각사에 1000여명의 불자들이 모였다. 법당과 앞마당이 불자들로 가득 찼다. 부처님오신날 말고는 이런 일이 없는 절인데 7월 22일은 특별했다. 비구니계의 원로 광우스님(前 전국비구니회장)의 가르침을 담은 <회향> 출판을 기념하는 법회였다.

"와~~~~"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광우 스님이 법당에 들어서자 환호성과 박수 소리에 법당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인기스타의 등장에 열광하는 '오빠부대' 같았다. 사회를 맡은 최정희 前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이 마이크를 잡고 "안녕하세요. BBS 초대석을 진행하는 최정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다시 한 번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법회는 그렇게 신명나게 시작됐고 시종일관 즐겁고 진지했다. 광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내가 오랜 세월 써 온 '신행불교'의 권두언들이 책으로 묶여 세상에 회향되니 기쁘다"며 "이 책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믿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수필가 맹란자씨가 <회향>의 출간 과정을 설명하고 호진 스님(前 동국대교수)이 책의 의의와 광우 스님이 불교현대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업적을 남겼는지를 설명하는 동안에는 눈물을 훔치는 불자들도 있었다. 서윤길 교수(동국대)는 광우 스님의 인품과 여러 일화들을 소개했다.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은 동참한 불자들에게 <회향>을 법공양 했다. 지난 봄 주지에 취임한 정목 스님은 주변의 취임법회 권유를 물리치고 동국대와 여러 복지시설에 나눔 기금을 전달했다. 때문에 "주지 안 하겠다고 10년을 버티던 정목 스님이 이제 주지를 맡았으니, 새로운 정신으로 포교의 길을 넓혀 나갈 것으로 믿으며 나와 여러분들이 축하 하는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내자"는 광우 스님의 한 마디에 참가자들이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법회에는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정덕 스님과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고문과 이은영 원장, 홍사성 유심아키데미 원장 등이 참석해 <회향>의 출간을 축하 했다. 임연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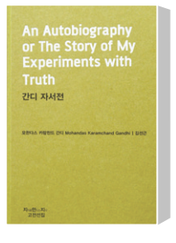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2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5	쉬고 또 쉬고	무여	새로운 사람들
6	지리산 스님들의 못말리는 수행이야기	천친, 현현	불광출판사
7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8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9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10	부처를 쏴라	현각	김영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간디의 진정한 선물은 '무외시'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위대한 혼이자 성인으로 추앙되고 전 세계인들에게 휴머니즘의 극치로 존경 받는 간디의 자서전이다.

간디는 인도인에게 '두려움'을 제거하는 용기를 주었다.

다름 아닌 '무외시'다. 공포심의 제거는 바로 용기와 신념을 생기게 하는 원동력이고 진리를 실천하는 궁행의 원천이다. 침체되고 비겁하고 의기소침하던 인도인들에게 당당함과 신념과 자존심을 불어 넣은 간디의 생애를 간디 스스로 '진리의 실험'으로 응축한다.

처음 자서전은 1927년과 1929년에 두 권으로 출간 됐고 이후 한 권으로 나왔다. 다시 <영 인디아>지에 연재된 영문 원고들이 책으로 묶여졌다. 가문과 출생, 일찍 결혼을 하고 영국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종교에 관심을 갖는 대목이 자서전의 초입이다. 이후 아프리카에서의 생활과 인도로 귀국하여 벌인 비폭력 투쟁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른다.

역자는 자서전의 많은 분량을 간추리는 대신 많은 역주를 달아 간디의 생애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간디 자서전/김선근 옮김/지식을 만드는 지식 /1만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으로 오세요
www.hyunbul.com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새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초발심자경문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합장
8치, 1자, 1자 2치, 크기로 조성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식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째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예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비구, 가섭삼형제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 (우루빈나가섭의 오백제자, 나제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야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을 말합니다."
◈ 1,250 나한도 1권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애경)
불사 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011-743-5167


핀란드에서 온
100% 야생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기능성 색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폭격하던 영국공군 조종사들이 야간비행 전에 블루베리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이후 물체식별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량의 안토시아닌 덕분에 블루베리는 우리몸의 젊음을 지켜주는 과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할인판매

블루베리 파우더
~~35,000원~~
⇒32,000원

블루베리 주스
~~46,000원~~
⇒42,000원

크랜베리 주스
~~46,000원~~
⇒42,000원
YADANBEOPSEOK 야단법석 구입문의:010-5318-0704
www.01053180704.com

한국 시조 세계화를 꿈꾸며…

2009 만해축전, 8월 11~15일 만해마을서



지난해 열린 만해축전 장면과 올해 만해대상 수상자들(왼쪽 위에서부터 로버트 하스, 김종길, 시린 에바디, 이소선, 빤냐와로, 김용직).

만해 한용운(1879~ 1944) 스님의 개혁정신과 문학사상을 기리는 '2009 만해축전'이 8월 11~15일 만해마을에서 거행된다.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와 강원도, 인제군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문인협회와 한국작가회의, 불교평론 등이 주관하는 이번 축전은 입재식을 시작으로 제13회 만해대상 시상식, 제7회 유심상 시상식, 학술심포지엄, 문예행사, 특별기획행사, 주민과 함께하는 축전 대동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 만해 스님의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축전 메인행사인 입재식과 만해대상 시상식은 12일 오후 5시 만해마을 님의침묵 광장에서 열린다.

제13회 만해대상 수상자는 이란 인권변호사 시린 에바디가 평화부문에 선정됐으며, 붓다 넷 웹마스터 빤냐와로 스님이 포교부문, 이소선 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고문이 실천부문, 김용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학술부문으로 각각 결정됐다. 문학부문은 로버트 하스 미국 버클리대 교수와 김종길 고려대 명예교수가 공동 수상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유심상 특별상은 김재홍 문학평론가 △시 부문 유안진 △시조부문 백이운 △평론부문 박찬일씨로 선정됐다.

만해 스님의 철학과 문화 등을 재조명하는 학술심포지엄은 그 어느해 보다 풍성하게 펼쳐진다. 시조관련 7건, 문학일반 7건, 불교 및 종교관련 5건 등 총 19건의 학술행사가 열린다.

특히 △하버드대 한국시조 페스티벌(5월 15~16일) △19세기 시가문학(6월 13~14일) △시조문학(6월 27일) △시조 형식과 운용의 미학(7월18일) △현대시조 특성과 전망(8월 1~2일) △현대시조 창작방향(8월8일) △동아시아 시가와 세계화시대 한국문학(8월 15일) 등 시조 관련 학술행사가 예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 이와 관련,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은 "만해실천선양회는 그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시가형식인 시조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올해 만해축전은 그 연장선상에서 국정교과서에서 마저 제외된 한국 시조의 중흥과 세계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문학일반 심포지엄은 △한국문학(8월 10일) △시인협회(8월 12일) △현대시(8월 12일) △중국작가 초청 국제문학(8월 13일) △한국문학(8월 13일) △현대시(8월 14일) △문인협회(8월 15일) 등이 열리며, 불교 및 종교관련 심포지엄은 △종교와 사회(7월 8일) △도의국사와 가지산문(7월 11일) △선과 서양사상(8월 11일) △불교문학의 상상력(8월 12일) △불교평론 창간 10주년 기념 '불교와 서양의 대화'(9월 12일) 등이 축제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개최된다.

다채로운 문예행사도 열린다. 국보순례 시낭송회(5월 23일~7월 25일)를 시작으로 제7회 '님의 침묵 서예대전'(8월 12일)과 축전 시인학교(8월 11~13일), 만해 스님의 채근담 서예전(8월 11~18일), 만해음악예술제(8월 12일) 등이 만해마을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와 함께 공식일정 이외에도 다양한 특별 기획프로그램이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돋군다.

8월 17~22일 '2009 국제환경리더스 페스티벌'에서는 평화생명지킴이 협약식, 평화콘서트, 엄홍길 대장과 동행하는 설악산 등정, 백담사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돼 있다. 또 12월 3~4일 만해마을에서 '세계 대학생 영어시조 짓기 대회'도 열린다. 시상식과 함께 데이빗 맥캔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특강, 서울대 전통음악연구소 초청공연, 초청시인 시낭송도 준비돼 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측은 "올 축전은 만해 스님의 자유 · 민족 · 진보 · 평화 사상을 기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선양하는 축제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033)462-2304

김성우 기자

	시간	행 사	장 소	주 관
8월 11일	오후 2시	만해시인학교 입교식	만해학교	시와시학사
	오후 2시	학술세미나-서양사상과 선	실라벌성 대강당	시와세계
	오후 4시	만해 스님의 채근담 서예전 개막식	한국미술관	초대작가 김재봉
	오후 6시	유심작품상 시상식	님의 침묵 광장	만해마을
	오후 7시	축전 전야제	님의 침묵 광장	만해마을
8월 12일	오전 8시	인제군 노인게이트볼 대회	북면 게이트볼장	인제군게이트볼연합회
	오전 10시	학술세미나-불교문학과 생태적 상상력	실라벌성 대강당	현대불교문인협회
	오후 12시	전국고교생백일장	수련원 강당	강원일보사
	오후 1시	학술세미나-국보의 원형 심상과 시적 상상력	시와 시학사	만해학교
	오후 3시	학술세미나-현대시의 기법과 실제	실라벌성 대강당	한국시인협회
	오후 4시	님의 침묵 서예대전 시상식	박물관 2층	강원도민일보사
	오후 5시	입재식 및 만해대상 시상식	님의 침묵 광장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오후 6시 30분	전국고교생백일장 시상식	님의 침묵 광장	강원일보사
	오후 7시	국보사랑 시 제전	실라벌성 대강당	한국시인협회
	오후 7시	만해음악예술제	님의 침묵 광장	만해예술원
8월 13일	오전 10시	학술세미나-한중 문학의 오리엔탈리즘	실라벌성 대강당	창작21작가회
	오후 1시	만해시인학교 수료식	만해학교	시와시학사
	오후 2시	학술세미나-한국 문학과 종교적 영성	실라벌성 대강당	시사랑문화인협의회

'삼국유사'의 모든 것 한 자리에

삼국유사 문화축전 8월 27일 개막… 다례재 등 행사 풍성

'삼국유사 문화축전'이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했던 경북 군위 인각사(주지 도권)에서 8월 27일 개막된다.



일연 스님 진영.

축전은 27일 오전 10시 인각사 국사전에서 열리는 일연 스님 입적 720주기 추모 다례재를 겸한 영산회상 시연을 시작으로, 삼국유사 골든벨, 문화의 밤, 학술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인각사와 군위군 군위교육청이 9월 4일 오전 10시 군위 삼국유사 교육회관에서 공동주최하는 골든벨은 <삼국유사> 내용에 관한 퀴즈대회로 진행된다. 대구경북권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부문별로 6명씩 선정해 시상하며, 행사 후에는 인각사와 화북댐, 제2석굴암 등을 견학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산사음악회와 뮤지컬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지는 '삼국유사 문화의 밤'은 9월 29일 오후 6시30분 학소대 수변무대에서 열린다. 올해는 <삼국유사> '효선'편에 수록된 '손순이 아이를 묻다'가 뮤지컬로 선보인다.

11월 24일 열리는 '삼국유사-일연 학술대회'는 일연 스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인각사는 10월 31일까지 일연 스님의 사상과 <삼국유사> 내용 중 미발굴된 자료에 대한 논문을 공모한다. 논문주제는 △삼국유사 및 일연선사의 생애와 사상연구 △고려사와 고려불교사를 포함한 중세한국사 △유적발굴에 대한 연구 등 이며, 공모자격은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전공자에 한한다. 우수연구 논문 7편을 선정해 각각 국무총리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의 상과 상금을 지급한다.

인각사 주지 도권 스님은 "민족자주사학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가이자 문학가였으며, 팔만대장경 재조를 이끌었던 일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지자체와 함께 재조명하는 문화행사를 마련했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054)383-1161

김성우 기자

눈과 입, 마음으로 즐기고 느끼자

옥천포도축제 제다체험 큰 호응

옥천포도축제에 연꽃 및 수생작물 체험전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옥천군이 옥천농심테마공원과 옥천휴게소 등 일대에서 7월 15~19일 4박 5일간 개최한 옥천포도축제에 옥천전통문화연구회 안미자 회장 외 회원 6명이 출품한 덩굴 식물 터널과 연향차 시음, 제다 체험이 큰 호응을 얻었다.

옥천 전통문화연구회 안미자 회장과 강경미 지도사범 등 회원 6명은 덩굴 식물터널(수세미, 조롱박, 머루, 색동호박, 뱀오이)에서 연향차 시음 및 제다체험, 연 잎차 덖음 체험, 천연염색제품(스카프)을 직접 체험하도록 행사장을 마련했다.



옥천포도축제에서 연향차 시음 등을 진행한 옥천 전통문화회.

강경미 지도사범은 "잠깐 스치는 구경이 아니라 눈과 입과 마음으로 느끼고 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보다 체계화된 체험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심테마공원 연꽃축제 행사장을 찾아달라"고 말했다.(043)733-5959

혜철 충청지사장

청주 무심천서 유등문화제를

청주청원불교련 9월 4일 개최

청주청원불교연합회(회장 광해, 금불사 주지)는 7월 16일 청주 대성사(주지 학송)에서 정기 월례회의를 갖고, 오는 9월 4일 '청주 무심천 유등문화제'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청주청원불교연합회는 "청주가 직지의 본고장으로, 불교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불교행사가 미비했다"며 "2005년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 등을 살려 '직지찾기 유등문화제'로 개최해, 5000여 명 이상이 동참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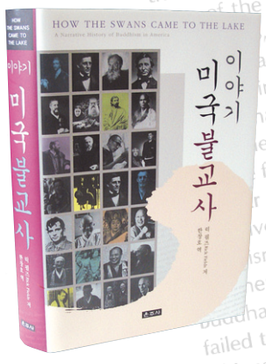
이에 따라 무심천 유등문화제는 창작유등공모전과 전통불교의식이 연이여 열리는 청주시 최대 축제로 기획된다. 창작유등공모전은 충북파라미타 청소년협회에서 주관해 9월 4일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주변에서 창작유등경연대회와 전시회, 유등띄우기 순으로 열린다. 이어 권공 및 축원 등 전통불교의식과 기념법회, BBS 인기가수 축하공연 등도 진행된다.

혜철 충청지사장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미국불교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역사와 그 현장!

전 세계 모든 불교가 공존하는
미국불교의 놀랍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

- 미국에서 불교는 어떻게 전파되고 진행되었는가?
- 미국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 애쓴 주요 포교사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활동을 하였나?
- 미국인으로 불제자가 되어 활약한 사람들은?
- 미국 내의 일본, 티베트, 중국, 한국, 베트남 불교도의 활동 및 전보는?
- 미국불교의 특색은 무엇인가?
- 미국인에게 불교는 무엇이며, 미국불교의 미래는?
- 유럽인들과 불교는 어떻게 만났는가?
- 미국불교가 한국불교에 던지는 교훈은?



릭 필즈 저, 한창호 역/
신국판양장/672쪽/30,000원

이야기 미국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2) 926-8362, 주문 (02) 3672-7181 붓다북 www.buddhabook.co.kr

한국의 불교문화가 한 손에!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다양한 불교문화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

한국불교문화사전



일반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불교문화 안내서

우리나라 국민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유 · 무형의 불교문화에 대해 짧으면서도 평이한 설명을 하여, 일반 대중들이 불교에 접근하는 것을 돕고, 불교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불교의 역사, 인물, 전통, 사찰, 건축, 회화, 조각, 공예, 경론, 의식, 수행생활, 불교용어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14명의 해당 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700여 개의 표제어와 150여 컷의 사진으로 꾸민 한국 최초의 불교문화사전이다. 부록에는 대표적 불교문화재, 즉 불상, 보살상, 사천왕상, 전각, 탑, 범종, 석등, 부도, 당간 등에 대한 도해를 수록하였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편/국판변형양장/508쪽/25,000원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37 밥은 그리움

멸치조림이 시체조림으로 보일 때

인도의 티베트 삼보사찰에서 온 남카 스님과 웬덴 스님, 진바 스님이 달라이 라마의 생신상을 차리기 위해 생신 전날 의기투합했다. 우선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본 스님들은 저녁식사도 잊은 채 법당 옆 주방에 모여 분주하다. 웬덴 스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과일을 씻는 사이, 남카 스님과 진바 스님은 과일을 쌓을 그릇들과 행주를 챙긴다.

달라이라마의 생신 축원기도에 참여하고자 멀리 부산에서 온 노보살님 한분은 그러한 스님들의 분주함을 한 치 떨어져 바라만 볼 뿐이다. 스님들의 큰 스승인 달라이 라마의 생신상이니만큼 제자들이 손수 차릴 것을 배려한 속깊은 뜻에서란다.

웬덴 · 진바 스님이 과일을 준비하는 동안, 무언가를 찾아 동분서주하던 남카 스님의 손에는 투명 접착테이프와 이쑤시개가 들려있다.

"이걸로 과일, 주사 맞아야 해요. 과일 높게 쌓아도 넘어지지 않게 이쑤시개로 연결하고 테이프로 붙여줘야 해요. 이렇게 하는 거 한국 보살님들이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그런데 티베트에서는 큰 그릇에 담으니까 이렇게 쌓는 거 안 해요. 그래서 한국이 더 예뻐요."

과일의 층수가 올라갈수록 불안하고 위태롭게만 보이자, 이윽고 노 보살님의 주전공인 듯한 잔소리가 터졌다. 한편 접착테이프를 길게 늘어뜨리고 대기 중이던 남카 스님은 성급한 마음에 과일 둘레를 테이프로 칭칭 돌려 붙인다는 것이 거의 도배를 하고 말았다.

"아이, 너무 더러워. 지저분하게 이게 뭐야. 못 살아 못 살아…"

진바 스님이 어딘지 낯익은 잔소리를 패러디해 쏟아놓자 웃음보가 터지고, 다시 보수공사에 들어가 어렵사리 과일 쌓기가 완성됐다.

"티베트에서는 기도상 차릴 때 조금 달라요. 한국에서는 음식 만들어 올리는데, 우리는 대신 '세리' 올려요. 세리는 보릿가루나 미숫가루에 버터랑 꿀 넣고 우유나 요구르트, 설탕 넣고 반죽해 동그랗게 빚는 거예요."

세리를 빚는 동안, 이야기는 무릇 육식과 살생에 대한 주제로 이어졌다. 추운 기후와 농사가 불가한 환경 때문에 절에서도 육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티베트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인 불교의 불살생 정신과 모순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소위 '따지기'를 좋아하는 내 머리 구조가 그러한 생각에 미칠 때, 남카 스님이 마침 그와 관련된 신신당부를 한다.

"옛날에 티베트에서는 날씨가 너무 추워 풀이 없으니까 고기 안 먹으면 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강물에 물고기들 아무리 많아도 생선은 먹지 않았어요. 돼지 한 마리 살생하면 여러 사람 먹을 수 있지만, 생선은 한 사람이 여러 마리 먹으니 얼마나 많이 살생해야 해요. 우리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생해야 된다면 최소한 줄여야 해요. 그래서 생선 먹는 거 줄여야 해요. 달라이 라마께서도 옛날에는 고기 안 먹으면 살 수 없었지만, 요즘은 먹을 게 많아졌으니 살생 줄이기 위해 옛날 식성은 바뀌어야한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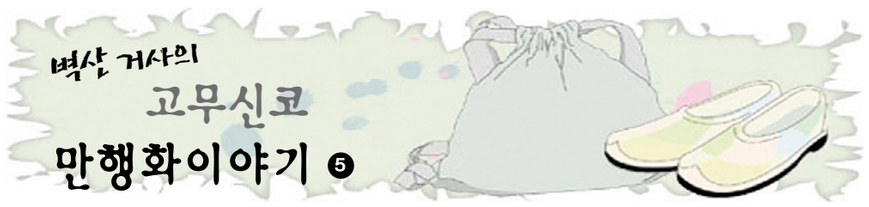


진바 · 남카 · 웬덴 스님이 함께 빚은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티베트의 전통음식 '세리'

기억도 가물가물한 어린 시절에 가족들과 둘러앉아 만두를 빚듯 티베트 스님들과 세리를 빚고 돌아온 날 밤, 배가 출출해 냉장고를 뒤져보니 며칠 전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남겨 챙겨온 찬이 마침 있었다. 큰 멸치를 반으로 갈라 고추장에 얼큰하게 조림한 멸치조림이다. 이 아니 반가울쏘냐. 전날 남은 밥을 물에 뚝뚝 말아먹을 요량으로 찬 뚜껑을 여니, 거기에는 멸치들의 즐비한 시체 토막들로 고추장에 버무려져 있었다.

티베트 스님들과의 인연으로 찾아온 '정체성의 상실'로 아마도 나는 당분간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야 될 듯싶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아버지와 망월사 인연으로 만든 만행화

어느 날 문득 '왜 나는 하필 스님 신발을 만들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이치도 인연법에 의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말이죠. 그 인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벤자민 버튼처럼 시간을 거꾸로 돌리며 그 인연의 고리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 아버지가 제게 불교와 인연을 맺어주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25년 전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중풍으로 왼쪽 전신이 마비되어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15년간 뇌졸중 투병생활은 말이 15년이지 가족과 부인 모두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 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의 권유로 남한산성 망월사에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망월사 주변의 맑은 공기는 아버지와 제가 함께 부처님의 품에 기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실 5대 독자인 아버지는 전통적으로 그렇듯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평범한 유교신자였습니다. 불교와는 특별한 인연을 맺지 못했지만 차츰 아버지는 불법에 귀의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달력에 그려져 있는 관세음보살의 그림을 보며 무릎을 꿇은 채로 합장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를 불러 '내가 죽거든 묘를 쓰지 말고 깨끗하게 화장을 해서 강물에 뿌려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날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고향인 선산에 묻힐 것을 말씀해오시던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 가족과 친지 모두에게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불구의 몸으로 고향 선산에 잠드느니 불교의식에 따라 화장돼 마음 편히 길을 떠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고 얼마 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은 유언대로 화장을 했습니다. 하늘의 인연이었을까요? 마침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에 망월사의 극락보전이 완공됐고 아버지는 그곳에 가장 처음으로 모셔졌습니다. 49재를 마치고 남은 유골은 강에 뿌려졌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낚시를 하며 수많은 살생을 한 그 곳에 아버지의 유골이 뿌려지는 것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며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난 후부터 저는 살생의 죄를 참회하며 망월사를 더욱 자주 찾아갔고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삶의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덕분에 망월사를 알게 됐고, 스님을 만나 만행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으로 불자와 스님들의 편안한 걸음이 되어줄 만행화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서원을 세워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43 뇌신경전달물질과 성격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상대방이 날 힘들게 할 때 대처법 1

1. 엄청나게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을 상대할 때

엄청나게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나약하거나 콤플렉스가 있거나 미성숙 또는 자신의 결점이나 약점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이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존심이나 명예를 가장 중시한다. 진정한 자존심과 명예가 아닌 사실 쓸데없는 자존심과 명예이지만 말이다. 따라서 이들과 상대해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일단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존심과 명예를 인정해주고 들어가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

예를 들어 내가 입는 옷마다 핀잔을 주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넌 어째 입는 옷마다 매일 그 모양이니? 어울리지도 않게… 너무 촌스럽다."

이럴 경우 우리는 흔히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났기에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혹은 "너나 잘 입으시지!"하고 핀잔을 주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렇게 대꾸하기보다는 "너라면 어떻게 코디할 것 같니? 너는 센스가 뛰어나니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추천해줘봐"라고 말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습성을 역이용해서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가는 기법이다.

잘난척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당연히 과시욕이 강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살려주고 부탁을 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개 열심히 도와주려한다.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 오히려 나중에는 그 친구가 당신에게 어울리는 악세사리나 옷을 사서 코디해줄 수도 있다. 당신의 "어쩜 넌 그렇게 멋진 안목을 갖고 있니? 사람이 달라 보인다"라는 칭찬을 듣고 우쭐해지고 싶어서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닌가. 그는 잘난 척하고 싶은 욕구를 긍정적으로 해소했고, 당신은 덤으로 선물까지 받았으니…!

2. 무례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사실 잘난 척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보다 더 곤혹스러운 경우는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다.

잘난척하는 사람은 그의 자존심만 안 건드리고 우쭐함만 살려주면 그만이다. 그런데 무례한 인간들은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태는 생각 안하고 나오는대로 지껄이고 하고 싶은대로 무식하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니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다. 오랜만에 길에서 우연히 만난 선배가 보자마자 내게 반말로 인사를 건넨다. 사실 자주 보고 아주 친숙한 사이가 아니면 누구와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각자 나름의 입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입장인데 길에서 마구 큰소리와 반말로 이야기하는 것도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다.

하기야 반말로 인사까지는 좋다 치자. 가관인 건 이어지는 안부는 이건 안부인사가 아니라 무례함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 염장 긁기 퍼레이드처럼 느껴진다.

"아직도 시집 안갔냐? 왜 안갔는데? 나이는 점점 드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순간 머리는 띵해지고, 속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랴 표정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내가 시집 안가고 이렇게 사는데 보태준거 있냐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일단 끓어오르는 속을 진정하고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준다.

"제가 꼭 그 질문에 답해야 되나요?" 혹은 "왜 그렇게 궁금하시죠?"라고 간단히 되묻는다.

이는 더 이상 무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울그락 불그락 하며 무례한 사람과 똑같이 굴거나 또는 난처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무례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상황을 재미있어하고 즐기면서 계속 더더욱 무식하고 무례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02)576-7575



현대불교 현불샵

생활도자기 특별기획전

전화주문 ☎ 02)2004-8215~6

도자기의 본고장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의 생활화를 목표로 순수자연원료로 제작된 도자명품 생활자기입니다. 우리 도자기의 품질로 완성된 생활 명품입니다. 도자기 접시와 찻잔(머그잔, 커피잔), 다완, 퇴수기, 화병, 화로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생활자기는 불자님들의 생활을 더욱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 퇴수기는 흔히 물버림 사발이라고도 하며, 버리개라고도 합니다. 다관과 잔을 데운 물을 버리거나 다관을 엎어 찌꺼기를 버리는 그릇입니다. 입구가 넓으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3단도라지꽃합접시
大20,000원/中10,000원/小5,000원


등근3꽃접시3종세트
판매가 35,000원


4발접시
판매가 45,000원


검정사각흰꽃접시
판매가 45,000원


청자수반퇴수기
판매가 50,000원


분청퇴수기
판매가 80,000원


이도덤벙퇴수기
판매가 40,000원


분청동그리화병
大 40,000원 / 小 20,000원


분청하얀꽃화병
大 60,000원 / 小 40,000원


벗찌화병
大 100,000원 / 小 80,000원


보라꽃커피잔
판매가 18,000원


카키색흰물고기찻잔
판매가 8,000원


카키색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백자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하트모양커피잔
판매가 15,000원


연꽃백자커피잔
판매가 18,000원

현대불교@장터
www.HyunbulShop.com
이외 다양한 상품은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만나보세요.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법성사 불사기금 마련을 위해 사찰에서 직접 담아 보급합니다
황토 전통메주, 죽염장, 죽염된장, 매실 고추장, 국내산 대두콩 100%
새마을금고 : 2918-09-002988-0
예금주 : 조정환
전남 장흥군 관산읍 용전 2구 80-1 법성사
전화061)867-2331
010-8643-6680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 울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김현산 작명 역리원
작명 · 사주 · 운명개척 상담
전화우편 상담 환영 (전국 불자님)
명리학 개인지도
정통사주학 완성(수기본) 25,000원
서울 종로구 낙원동 176 3층
종로3가역 1번출구 직진 낙원상가 방면
02)741-8449 김현산
011-9113-8545 역리원

보살선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각종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우주大광명 천기(氣)도법
우주 氣편지 받고 부처님 신통력 업장소멸
- 건강, 인생, 우환, 사업이 잘 안되는 분.
- 영적장애, 신내림 등 고통받는 불자, 수행자.
- 빙의, 신병, 정신질환, 치매, 우울증 등
- 병원치료, 최면술, 천도재를 해도 안되는 분.

031)321-9555
011-586-6091 일광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세-65세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54)533-510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189-8745

제반 조건으로 법문하실 큰스님 모시기 어려운 적은 사찰에 작은 스님이 정성껏 법문 보시하겠습니다
010-2871-6668

경남지역, 농가 주택, 토굴, 임야 등 보시나 저렴하게 수행도량 불사에 치료 받으시고 도움 주실 분.
우주(氣) 신통력을 공부하는 스님입니다. 치료해도 소용없는 병고로 고생하거나 집안에 우환과 풍파가 많은 분, 확실히 해결해 드립니다.
불사인연 공덕으로 소원성취 하세요.
011-586-6091

불상, 탱화 아주 저렴하게 판매
- 사찰에서 직접 조성합니다. (최신 좌우입불 조성 중)
- 어렵게 불사하시는 스님들께만 판매합니다.
- 소량만 주문 제작해 드리므로 불교용품점에는 판매가 불가능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불단 제작도 해 드립니다.

043)857-1259

부처님 법력으로 묘 이장, 탈봉, 회향 천도해 드립니다
- 윤5월 묘, 탈봉, 이장 전문
- 묘 탈봉 및 천도 상담 환영
- 비구 스님 직접 전국 회향 천도
- 50세 이상 출가하실 분 상담환영
- 숙성된 봉삼주 필요하신 분 상담

010-2553-8827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신심으로 수행 할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충북 청원군
043)297-8728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험자 우대, 경기도
011-9707-3490

40대 비구 부전구함
▷서울지역
010-4599-516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9350-3216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011-551-1719

비워 둔 작은 암자 또는 기도처를 관리해 드리며 공부 할 곳을 찾습니다
010-3282-1323

정법도량에서 수행 정진하고 싶습니다
011-9429-5786

실버생활을 서로 의지하며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본인(女) 자녀(無)
60여세
010-4729-8987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대체 의학 비법 전수
1. 중풍환자 여가 뻣뻣할 때
2. 발바닥이 아파서 걸음걸이 힘들 때
3. 척추에 이상없이 허리가 몇십년 아플 때
4. 오십견으로 팔 올리기 힘들 때

◆이상 4가지를 단 한번에 낫게하는 비법 전수 (이론 강의 없이 실기만 가르침)
◆우울증, 화병, 변비, 관절염, 복수, 산후풍, 담결림, 기관지염, 신염, 대상포진 등 치료 비법전수 (이상 전수를 3시간에 완료)
◆대상 : 스님, 한의사, 기치료사, 대체의학 종사자
◆중국 초능력 기공사 직강 (출장 방문 가능) ◆출장 치료 가능

010-7703-3825

선림원 여백체험교실
교와 육, 곧 배움과 누림의 조화로운 중용이 이뤄질 때 여백체험, 인간회귀를 통해 자아 완성의 경지에 다다르는 직지경로 안내한다.
daum 검색창에다 대한미래교육원→여백체험교실→ 수련 신청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람 (제1기는 마감완료).
055)882-5547. 748-2321

秘法 특별강의
초종파! 스님들이여, 광고 보고 찾아가 보면 별것 아니다.
"본강의" 7시간 수강하여 훌륭한 선지식 되소서!!
1. 최면학, 빙의치유법, 전생요법,(참 쉽다) 천도재 의식 (비법최면이란? 제3의눈작용을알아야한다)
2. 神病다스리는 법 (신병에좋논곳) 삼혼칠백의근본 및 작용법, 관상학, 건강따주기(성원스님), 오행침(신비그자체), 氣치료
3. 격국전생업보는법, 악순만드는법, 7일道人비결법(일주일만투자하라,직관)
* "침" 특수활용비법! (특비법강의 : 매월 매주 마지막 월요일)

●강의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7시까지(7시간)
●장소 : 법향사 포교원법당 (일반인은 교육불가)
참으로진실한가르침, 포교활용에필요한가르침, 속이지않는가르침, 수행하는승려를위한가름침이다.

- 언제나 좋은 인연 되소서 - ●찾아오는 곳 : 경남 마산시 부림동 103-4
법향사 의암 다보 두손모음 ●문의 : 055)221-3358. 010-9027-3117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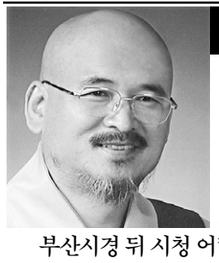
유명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기일 · 영가 천도일에 천도 축원 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단기 출가나 및 사미. 비구계 미득도 스님 모집
- 현재 비구, 비구니 스님으로 사미, 구족계를 받지 못하고 활동 중인 스님.
- 출가는 하였으나 예불과 천도의식에 자신이 없으신 스님.
- 출가를 하고 싶으나 세수가 많아서, 혹은 어려운 행자생활에 자신이 없으신 분, 또는 시간이 없으신 분.

(본 선원은 30년의 역사를 가진 종단소속으로 득도 및 단기 출가자 교육 전문도량입니다. 단기출가자는숙박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정의 교육비가 있습니다. 단기 교육 후 사미수계를 받으며 수계증명원과승려증, 사찰등록도 가능합니다)
한국불교의식대학 거한선원 043)853-9798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역학공부
집에서 간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히 속성으로 공부하세요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자미두수 주역 등
사주 전과정 45만원 부터. 역학상담심리사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 전화 1688-1137

불자가 정성스럽게 만든 수 제품입니다
요술연꽃 촛대 (불자 및 가정용)



요술연꽃세트(홍련→백련) 장수거북연꽃세트

특징(티라이트전용)
1. 경제성 : 1회용이 아닌 반영구성
2. 친환경 : 천연왁스만을 태움
3. 다양성 : 카멜레온 기능(요술)
4. 메시지 : 종교적 의미(홍련 → 백련)

가격
- 요술연꽃세트 15,000원 (연꽃, 받침대, 티라이트 1개 포함)
- 연꽃크기 : 직경 8cm
- 장수거북연꽃세트 23,000원

egaart www.egaart.co.kr ☎ 031)882-0512 Fax. 031)881-6201

명당 탐지기 심룡척!!TM



심룡척은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회전합니다. 이 기구는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판매되는 기구. 이미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하며 사찰터 집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로 설명서대로 하시면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 제0464294호)

* 심룡척은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 케이스(2만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월간역학 1년 정기구독(10만5천6백원)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구입방법: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택배 또는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패철 보는법(책)도 있습니다(정가 2만5천원) 2만2천원으로 할인+월간역학(8천8백원) 증정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한국역학협회 전화 1688-1137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정체 평형 **일침요법**



주지 혜득 합장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개강일 : 매주 화, 금요일 오후 2시, 7시
■ 기 간 : 1개월 과정(실습위주. 2박 3일가능)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대한불교 연합조계종 **보금정사**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536-6번지
053)474-5959 / 010-3535-9797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 관련 전문 대출 기관

- 사찰 불사대출
- 사찰매매잔금대출
- 기타대출

-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徐一永전무
휴대폰 011-527-1037

재무부인가 제9-205호

보현사신협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65
삼정그린코아상가 1층 101호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특강**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설명함으로서 들을 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것이다. 古典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렵고 오판과 실수가 많지만 太極四柱는 四柱감정이 정확하고 논리가 정연하므로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다. 필자가 20여년간 命理學을 연구하였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도 어려운 命理學을 녹음-테이프로 하루 한 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재운이 있으냐 없느냐,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시험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배우자 덕이 있느냐 없느냐, 해로 하느냐 이별 하느냐, 궁합은 좋으냐 나쁘냐, 자식 덕이 있느냐 없느냐, 관재 구설수와 교통사고는 언제 일어나느냐,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인가, 승진운은 있느냐 없느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위기의 해와 달은 언제인가? 등을 확실하게 감정할 수 있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듣는 것과 같다. 初步에서 最高 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것이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로 풀이 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대구에서 22기생 강의 중. 수강 희망자 상담 환영)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테이프와 교재대 포함 : 20만원 (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會長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주문전화 : 053)324-2468 / 326-458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접수마감 : 매주 수요일 오후.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충청(대가람)
- 부지 : 5000평
- 법당 : 전각다수
- 요사 : 60평
- 급양도가 : 13억5천

- 위치 : 서울
- 대지 : 40평
- 인법당 : 30
- 요사 : 조립30
- 가액 : 5억

- 위치 : 경기,포교당
- 시내요지
- 법당 : 50평
- 요사 : 50평
- 가액 :4000/15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 법당 : 20외30평
- 요사 : 13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0억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4억 5천

- 위치 : 부산
- 법당 및 요사 : 150평
- 부지 : 135평
- 가액 : 1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산신각
- 요사채 20평 + 10평+ 10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공원)
- 텃밭 300평
- 가액 : 9억

- 위치: 양산 시내
- 대지 총평수: 520평
- 법당(와가) 25평, 요사채 (2동) 50평
- 도량주변 산세, 풍광 최고
- 주차장 및 마당넓은 절
- 가액 : 7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인접 토굴 최고 적지
- 법당 : 20평(30평)
- 요사 황토방2동
- 부지 : 84평
- 가액 : 2억5천(조절안됨)
- 주차가능

- 위치 : 부산 바다가 보이는곳
- 법당 25평 목조건물
- 요사 2동
- 부지 117평
- 가액 : 2억9천(조절안됨)
- 주차가능

- 위치:마산진동
- 법당:2층건물
- 요사:50평
- 부지:120평
- 가액:2억6천(조절안됨)
- 주차가능

영주불사 010-9798-1091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 소액 및 고액 다량 확보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성정동 쌍용대로변 4층 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 70평(법당 30평, 방 2)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 1천만원, 월 88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6-850-1208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외곽
- 약 40평, 방2개
  법당, 화장실, 샤워실 등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7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주인과 직접 협의

010-3190-7295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북구 구암동
- 법당(건물 포함) 60평
- 약사도량, 즉시법회 가능
  약쑥, 뜸방, 벌침교육실
  (스님이나 불보살님께 인수 후 당분간 스님이 직접 관리 지도해줌)
- 가액: 보증금500만원 월 60만원

010-6592-0808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 기장읍
- 3층건물 2층(약40평)
- 시설: 법당, 친견실, 침실,공양간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332-1719

한 국 불 사

- 광명 23억
- 경기도 4억 8천만원 외 매물 다수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재개발 지역 보상문제 상담환영

02)6674-3535
010-3154-3535

사찰(급)안내

- 위치 : 청주 상당구 우암동
- 1층 단동2동,요사채35평, 방3개 큰방, 사무실,선방,주방,큰거실, 화장실및 욕실
- 법당지은지5년법당 22평 선방 1개 화장실 및 욕실, 마당넓음 법당삼존불, 장태화고불, 후불탱화, 신중탱화1자관세음보살원불 100불 ,심야전기최신, 대지62평,
- 가액: 2억 5천만원

010-5883-2255

포교당 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 평수: 65평 완벽한 시설
- 즉시입주 법회가능
  스님사정으로 급안내
- 보증금1천만원(월세50만원)
  시설비 절충

055)855-5950
018-622-9865

포교원(급)안내

- 위치: 창원시 소답동 경남은행 옆
- 4층건물 중 3층
- 실평수 90평
- 법당외, 큰방3개, 종무소 1개 시설 깨끗하고 완벽함
- 삼존불, 후불탱화, 관음호신불 216불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권리금은 보신 후 절충

055)299-5690
010-7159-5690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달성군 가창댐부근
- 법당 2층 60평(삼존불 봉안)
  요사채 1층 80평
- 방7, 화장실 2, 별채(공양간) 25평, 외관 단층필
- 시내버스 정류장 1분거리, 교통편리
- 총부지 400여평, 주차완비
- 가액: 12억(융자 1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4541-6711
(주인직)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성북구 석관동
- 평수: 3층 건물 2층 42평
- 구조: 법당 25평, 방2, 주방, 간이 사무실, 화장실
- 시설: 불단(원목) ,영단(영구위패 500개) 1년연등(500개)등 최고급 시설
- 가액: 5,500만원(보증금 2천 시설비 3,500만원 월 85만원)

010-7609-0920

포교당 안내

- 위치 : 팔공산 백안 삼거리
- 건물: 1층
- 가액: 전세 2,500만원

010-3543-949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대가면
- 대지: 43평, 법당: 10평
- 요사채: 15평
- 지방도로 옆에 위치
- 가액: 4천만원

010-3805-3527

사찰부지안내

- 임야 5천평
-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면
- 경관이 수려하고 명당 조건을 갖추었음,길, 물, 전기, 전화 모두 가능
- 2010년 개통되는 울산 KTX역사에서 25~30분거리에 위치함
- 가액: 평당 7만원

010-4174-8904

토 굴 안 내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 평수: 236평
- 임법당: 13평, 방2개, 주차장 넓음
- 스님 혼자 기도하시면서, 법회하실분 언제든지 걸망만 풀면 법회할 수 있음
- 가액: 7000만원

010-6357-58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
- 대지140평, 텃밭 28평, 법당 25평
- 요사채 30평(방4), 스님방 1, 창고 大, 小 2개, 건물 90평정도 단독지하수 사용
- 화장실 겸 샤워실2, 부엌겸 거실1 , 바깥큰부엌, 1, 마당까지 주차가능
- 가액:9천8백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요망 주지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

010-9466-1191

사찰부지(암자터)

- 위치 경기도 양평군
- 평수: 1500평, 2300평 (평당 12~22만원)
- 특징: 조용하고, 경관수려, 양평역, 용문역 금년 11월 전철개통예정

011-9472-6780
(주인직)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교대입구 1분거리
- 평수: 30평
-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있음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5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8653-321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 법당(삼존불 외 호신불), 방2, 공양간 –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55)364-3525
010-4531-35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궁유면 운계리(문수사)
- 부지 총 1,700평중 540평 종교부지
- 건물, 임법당, 요사채,산신각포함 100평
- 현재 총공사비 약 4억소요되었음
- 스님의 건강악화로 2억에 급히 양도함
- 특징: 조그만 암자나 교통편리한 다른 건물교환 가능합니다.

055)572-0405
011-9850-8208

부 산 대 사 찰

- 사찰 내 20년 된 벚꽃나무 50종 있음
- 목조법당 25평 단청필, 목조요사 30평 단청필, 벽돌집 요사 2동 50평
- 명부전, 산신각, 용왕단, 종각, 약사여래상 15층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창고 2동, 화장실 2동, 심야 보일러 사용, 사찰 내 주차 20대 이상
- 대지 : 300평
- 국유지 : 480평(국유지 사용료 내고 있음)
- 가액 : 11억 5천만원

011-563-1545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중심가
- 평수 : 약 45평(2층건물)
- 삼존불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700만원(시설물 최상)
- 현재 법회중
  꼭 하실 분만 연락주세요

010-4176-077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 종교부지300평, 대지150평, 임야184평
- 주차장 넓고 교통사통 발달 기혈이 흐르는 명당터
- 뒷산 등산로, 대나무, 소나무
- 신축3년, 법당15평, 요사채 30평, 부속건물2동
- 가액: 3억 8천만원

010-4802-383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 삼존불 아미타 관음 지장 108원불 탱화 후불 신중 칠성 산신, 집기일체
- 법당40평, 방3개
- 보증금 500만원,월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즉시법회가능

010-2945-7704

작 은 토 굴

- 위치 :강원도 홍천군
- 평수: 대지 110평 (건평 30평)
- 임법당. 조용히 공부하시거나 기도 하실 스님 적합한곳
- 가액: 1억원

033)434-2916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보문동
- 대지 160평, 법당 45평
- 토굴 : 산신기도 40평
- 요사채 : 130평(해우소 별도3개)
- 2층 건물 중 1, 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
- 전세 5억(시설비포함)금액조정가능

010-8577-181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능곡 전철역 3분거리
- 3층건물 중 2층, 50평
- 법당, 주방, 거실, 방2, 욕실2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냉난방완비
- 시설총액 1억원 이상 소요
- 가액: 보증금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0-9889-944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촌IC에서 10분이내
- 부지: 9630평 (1600여평+임야 8000평)
- 한옥신축대웅전, 신축황토방 요사채 .조립식건물+산신각
- 추가건축허가유(고층질수있음)
- 바로앞 홍천강 경관과 기도도량
- 가액: 15억(절충가능)

011-9888-1563

암자(임법당)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온양온천) 점양동 호수가
- 대지 150평, 건평 약 45평
- 2층법당, 산신각, 1층요사 (시설완비) 주차장 완비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010-7764-20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성주
- 성주IC에서 10분거리
- 도로인접
- 평수 400평
- 산신각, 칠성각, 명부전
- 가액: 2억(절충가능)

010-8704-999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 대지 270평, 법당18평 (목조기와 단청), 산신각
- 요사3동 황토기와, 심야보일러
- 산세 수려하고 계곡 좋음
- 가액: 답사 후 결정

010-9058-105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 후문 부근
- 5층 건물에 3층 약 40평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상담하시는 스님 최적지

02)887-2138
010-9940-9779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대지 106평
- 요사채 2층
- 법당 40평
- 가액: 3억 6천만원

017-531-28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도심
- 1층: 임법당50평, 2층 공양간
- 대지 50평(실평수 100평)
- 부처님 소불 1,500불 독성각,용왕당
- 즉시법회가능
- 가액: 5억(절충가능)

017-516-0773
017-502-73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불광역 8번 출구 앞
- 3층 건물에 3층
- 평수 22평
- 삼존불 모셔있음
- 가액: 보증금500만원 월44만원
- 시설비 권리금 포함 3천5백만원

010-7579-8400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 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 옆)
- 대지: 230평사용(등기 192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 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18평 1동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3천 8백만원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678-9575

임 법 당 안 내

- 위치 : 강원도 주문진읍 중심가
- 1층 단독주택 약40평
- 법당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 산신 용왕탱, 지장보살 소불108불,큰방2개, 화장실2개,거실,주방, 10여개 주차공간,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주방기기 일체포함 1,500만원(절충가능)

033)661-2915
011-402-1669

암 자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약 일백년 된 좌청룡 우백호 산세 좋은 명당터
- 신축 요사 35평인 법당,심야 기름 겸용, 삼성가 목조 5평 허공 산신각, 자연우물 용궁, 상 목조, 중 허공, 하 거북 3탕(지하 암반수 110m있음), 부속건물 5평 방1, 차고1
- 자연석 조경 및 돌탑 잘 되어있음, 큰 도로 시내버스 정류소 300m 산위에 단독있음, 도로포장 잘 되어있음,주차 30대 이상
- 교통 : 원주시청–충주시청 4차선 전용도로 개통 시 약 10분거리 위치 중간에 있음(현재 부분개통사용)
- 땅 : 1230평, 시세 : 평당 40만원, 현지답사 후 절충가
- 주지스님 건강 문제로 급매,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1-371-5567

콩만한사찰안내합니다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용암사)
- 대지 면적 : 약 400평 건물 : 법당13평(목조기와) 요사채 : 신축건물(약30평) (평당300만원소요) 토목 및 옹벽 6천만원소요
- 가액 : 2억3천 이나 1 억5천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 5천 확신)
- 스님 부재로 운영곤란 하여 불사 하려고 합니다 의령에서 대구가는 국도(20번)변에 있습니다

011-9329-4241

포교당(급)안내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평수 : 50평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5층건물에 4층 엘리베이터
- 법당, 방 2,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조정가능) / 월 50만원 시설비 : 절충가능

010-3834-8545
010-6739-6426

전원주택 · 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원통터미널에서 15분거리
- 총 1400평, 대지 300평, 건평 25평, 텃밭 1개
- 산중턱 황토집, 심야보일러
- 집근처 강이 흐르고 경치가 아주 좋고 , 조경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음
- 가액: 3억 3천만원

033)462-9734
016-337-97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의 2층
- 약 45평, 삼존불, 각단, 탱화, 산신, 영가단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 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5366-49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 대지: 총776평(대지238평, 전538평)
- 건물: 요사채 29평, 법당 22평, 창고 10평, 산신각 2.5평
- 기도도량, 유실수 100주이상 (3년~4년생)
- 2006년 10월 등기,대문까지 차량 진입
- 함창읍에서 2분~3분거리,점촌에서 5분
- 가액: 1억2천만원 / 꼭 하실 분만 연락바람

011-522-9391

신도시부근사찰

- 경기북부 시내중심(도보10분거리) 풍치 수려한 절
- 부지 680평(실사용 천평이상)
- 대웅전 20평, 요사채2동 (100평 30평) 창고2동. 시설좋음
- 전철역(2블럭) 개통예정
- 잡실,강북 30분거리 포교와 수행의 최적지
- 가액: 인근 그린벨트 주택가 평당 500만원 선이나 상담후 절충가

011-393-0013
011-710-7294

대형포교당(전세 및 양도)

- 위치: 경기도 지역 고속터미널 부근 (부천)
- 100만 신도시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평수: 220평 14층/5층
- 법당전체와 모든 방사 고급나무문양 인테리어됨
- 법당앞에 2010년 지하철개통,주차장 100대 가능
- 가액: 융자포함 5억 양도 가능
  시설비 절충가능

011-707-5552

‘이학’의 사상적 면모 불교의 돈오 · 심성론 등 흡수해 출현

<39> 송대 이학가(理學家)들의 불교에 대한 비판과 흡수

송대는 표면적으로 불교와 유 · 도 양가가 완전한 병립을 이룬 시기였다. 실제적으로는 유가를 중심으로 불 · 도의 사상을 융합하는 시기였고, 그 융합의 결과가 바로 ‘이학(理學)’이다.

달리 말해 ‘이학’은 형식적으로 유가를 기치로 내세웠지만 그 사상은 바로 철저하게 삼교가 융합한 것이다. 또한 ‘이학’이 공개적으로는 불 · 도를 비판하는 태도를 견지했지만, ‘이학’이 불교의 사상을 흡수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 이는 중국불교의 전개가 초기 전래로부터 유 · 도 양가와의 끊임없는 교섭으로 이미 유가에 깊숙이 불교의 사상이 개입돼있어 유가만의 독자적인 사상적 정체성을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학’에서 비판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불교는 ‘출세’를 제창하니 유가에서 중시하는 ‘입세(入世)’에 입각한 강상명교(綱常名敎)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측면이다. ‘이학’의 기초를 다진 이정(二程; 程顥, 程頤 형제)은 “불교는 윤리의 가르침을 끊으며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도리를 밝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불교가 사라져야 비로소 천하가 다스려진다.”(<이정유서(二程遺書)>권2)라고 했다. ‘이학’을 집성한 주희(朱熹)는 극단적으로 “불교의 학을 깊이 논할 필요도 없이 다만 삼강오상(三綱五常)을 폐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극대한 죄명으로, 그 나머지는 다시 설할 게 없다.”<주자어류(朱子語類)>권126>라고 했다.

이러한 비판이 송대에 처음 나타난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에 따라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에 중국불교인들은 이를 희석시키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당(唐)대로부터 사상적으로 불교와 유학을 융합한 경우가 상당히 출현했다. 송대에 있어서는 이미 사상적으로 완벽하게 일치시켰지만, 불교의 기본적인 정신인 ‘출세’의 틀은 남아있기에 이러한 비판이 여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학’의 사상적인 면모를 살펴본다면, 기본적으로 불교의 사상을 흡수해 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송대에 출현한 ‘이학’이 불교로부터 흡수한 사상은 대체적으로 다음의 세 측면으로 정리된다.

‘이학’은 ‘이치[理]’에 대한 ‘학(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학’이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명제는 ‘이치는 하나이지만 나뉘어 달라짐[理一分殊]’이다.

그런데 중국사상사에서 ‘이치’를 이른바 ‘지존(至尊)’의 자리에 올려놓은 이는 바로 남북조 시기의 도생 스님(道生; 약372-434)이다.

이른바 ‘일천제성불론’과 ‘돈오(頓悟)’사상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유명한 도생 스님의 사상적 핵심은 바로 ‘이치’에 있다. 스님은 제불여래가 바로 ‘이치’로부터 ‘연(緣)’하여 출현했고, ‘부처’는 바로 ‘이치를 깨달은 당체[悟理之體]’라고 규정했다.

스님은 나아가 ‘돈오’를 제창하는 근거로서 ‘이치’의 ‘나뉠 수 없는 성품[不可分性]’을 들고 있다. 이로부터 도생 스님의 ‘이치’에 대한 극도의 중시가 엿보인다. 또한 스님은 “이치는 바로 항상 하나다. 마치 구름과 비는 하나이지만 초목은 여러 가지로 다름과 같고, 초목이 여러 가지로 다르다고 어찌 비와 구름이 그러하겠는가?”(<법화경소>)라고 명확하게 설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일분수(理一分殊)’의 사상적 연원을 분명히 엿볼 수 있다.

도생 스님이 ‘이치’를 중심으로 ‘돈오’사상을 전개한 이후, 중국불교의 모든 종파에서 돈오론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도생 스님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인 이가 바로 화엄종의 제4조인 징관(澄觀; 738-839) 스님이다.

스님은 “나뉜 수[分數]는 무수히 많지만, 이치[理]는 나눌 수 없어 일분(一分)이라고 칭한다”(<대방광불화엄경소>권13), “하나의 이치로서 그를 꿰뚫는 것이 없다면 곧 혹업(惑業)이 여러 가지로 차별된다”(<화엄경수소연의초>권29)라고 해 도생 스님의 ‘돈오론’을 인용했다. 또한 송대 조사선에 이르러서는 ‘돈오론’을 바탕으로 화엄의 이른바 ‘이사원융(理事圓融)’을 수용했다.

예를 들어 법안문익(法眼文益) 선사는 “이사(理事)가 둘이 아니고, 원융에 그 귀함이 있음이다.”라고 하여 “이치는 돈오를 밝힘이요, 현상[事]은 모름지기 점수(漸修)이다.”(<종문십규론>)라고 한 것과 같다. 이러한 불교의 ‘이치’에 대한 사상은 그대로 ‘이학’의 핵심적인 ‘이일분수’의 명제에 흡수됐다고 할 수 있다.

불교의 기본정신인 ‘출세간’의 틀 비판
당시 유행하던 선학적 방법으로 수양 채택



그림 · 김흥인

이정은 “천하는 다만 하나의 이치”이며, “일물(一物)의 이치는 바로 만물의 이치”(<이정유서>권2)로서 “모든 이치는 하나의 이치로 돌아옴”(권18)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희도 이정의 논리에 긍정하며 “이천(伊川; 程頤)이 말하는 것이 옳다. 이치는 하나지만 나뉘어 달라짐[理一分殊]으로 천지만물에 비춘다면 하나의 이치인 것”(<주자어류>권1)이라고 말한다. 지면관계상 다양한 이학가들의 사상과 불교의 관계를 자세히 논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이학’의 가장 핵심적인 명제는 명확하게 불교로부터 연원했다고 하겠다. 또한 그에 따라 그 외의 전체적인 사상적 틀에 있어서 불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쉽게 짐작된다.

‘이학’에서 불교의 사상을 흡수한 두 번째 측면은 바로 ‘인성(人性) · 심성론(心性論)’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맹자의 인성론과 심성론[성선(性善)론]을 표방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불교의 ‘불성론’을 원용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중국불교의 ‘불성론’ 형성은 바로 유가의 인성론의 영향으로 비롯됐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불교에는 이미 부파(部派)시대 이래로 ‘인성’과 ‘심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학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불교의 불성론은 오히려 전체적인 중국사상의 인성 · 심성론을 이끌게 됐다. 따라서 ‘이학’에서는 남북조, 수 · 당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불교의 불성론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인성 · 심성론을 보다 치밀하게 발전시켰다. 불교의 불성론은 이른바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음’으로부터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여래장자성청정심(如來藏自性淸淨心)’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규봉종밀(圭峯宗密) 선사의 <원인론(原人論)>에서는 “모든 유정(有情)은 본각(本覺)의 마음을 갖고 있어 무시이래로 항상 청정하며 밝아서 어리석지 않으며, 분명하게 항상 알고 있어 불성이라고 하며 또한 여래장이라고 한다. 무시로부터 망상(妄想)이 그를 가려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다만 범부의 자질만을 알기 때문에 탐착하고 업을 지어서 생사의 괴로움을 받는다”고 한다. 이와 주희의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신령한데, 무슨 까닭으로 밝지 못한가? 기품(氣稟)이 치우쳐 있고, 또한 물욕(物慾)에 혼란되기 때문이다”(<주자어류>권3), “이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신령스러우며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어 사사물물을 모두 알지만, 사람들의 기질(氣質)이 치우쳐 있고, 물욕에 가리기 때문에 혼미하여 알지 못한다”(권48) 등과 같은 말과 비교한다면 명확하게 불교의 불성론과 ‘이학’의 ‘심성론’의 관계가 짐작된다. 실제적으로 다양한 이학가들의 심성 · 인성론을 중국불교의 다양한 불성론의 전개와 대비해 고찰한다면 용어의 차이만을 보일뿐 그 사상적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이학’에서 불교의 사상을 받아들인 세 번째 측면은 바로 ‘수양론’이다. ‘이학’의 수양과 불교의 수행은 그 목적과 의의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이학가들의 비판처럼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성불’하는 이른바 ‘출세’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불국토의 완성’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맞는다고 할 수 없지만…), ‘이학’은 철저하게 ‘입세’에 그 뜻을 두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수양의 방법은 역시 대체적으로 불교의 수행론을 원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학’에서 채택한 수양방법은 당시에 유행했던 선학(禪學)적 방법을 주로 채택했다. 이정은 불교의 계정혜 삼학 가운데 정학을 특히 존중해 “배우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마음의 뜻을 한 결 같이 하는 데 있다. 그 마음이 어지러울 때에는 마땅히 좌선(坐禪)하여 입정(入定)하라”(<이정유서>권18)고 했다.

이러한 이정의 수양론은 주희가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여 “이정 문하의 뛰어난 제자들, 사상채(謝上蔡), 유정부(游定夫), 양귀산(楊龜山) 등은 점차 모두 선학에 들어갔다”(<주자어류>권101)고 비판했다. 하지만 주희 역시 수양론에 있어서는 조사선의 방법론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주희는 “정(靜)에서의 체(體)는 대체(大體)가 아직 발하지 아니한 때에 기상(氣象)이 분명함을 아는 것이다”(권102)라는 것은 조사선의 ‘반관심원(返觀心源)’, ‘직지인심(直指人心)’ 등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주희가 제창한 “천리를 보존하고, 인간의 욕심을 멸하라[存天理, 滅人欲]”는 방법은 그대로 ‘번뇌를 떠나 진여본성을 현현’시키는 선학과 동일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명 · 청대의 사상가들이 주희의 사상을 불교의 다른 학설로 평가했던 것이다.(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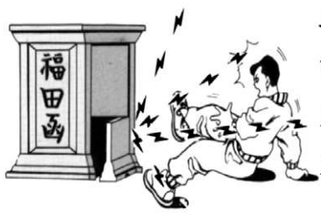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대인불안 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맞춤식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정)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又佛 김철회 박사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웅변 중앙회 회장 역임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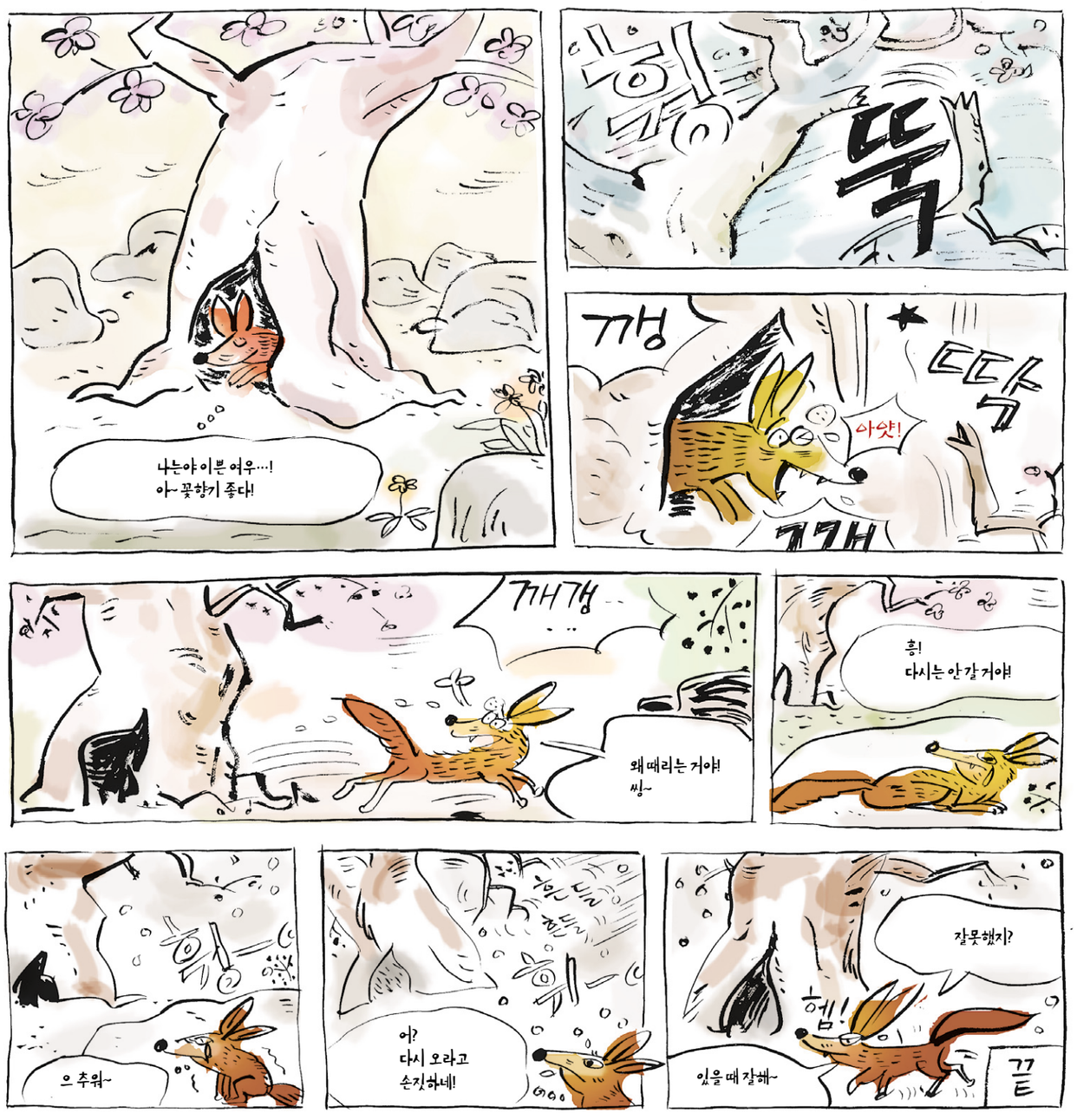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웃음보살 불등거사 〈54〉

구성 : 김흥인



부러진 나뭇가지에 얻어맞은 여우 〈백유경(百喩經)〉



어떤 여우가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부러져 그만 여우의 등에 떨어졌다. 여우는 곧 눈을 감고 다시 나무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곳을 떠나 딴 곳으로 달아났다. 날이 저물어도 그는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 여우는 멀리서 바람이 불어 큰 나뭇가지가 아래위로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말했다. "나를 다시 나무 밑으로 오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리석은 제자들도 그와 같다. 집을 떠나 스승에게 배우다가, 조금 꾸지람을 들으면 곧 달아난다. 그 뒤에 나쁜 벗을 만나 끝없이 번민하다가는 비로소 본래 스승에게로 돌아온다. 이와 같이 오가는 것을 어리석고 미혹한 것이라 한다.

옛 판화의 세계

노옹이 게송을 베풀다 산옹지시(山翁指示)



고판화박물관소장 〈선씨원류(薛氏原流)〉 중 산옹지시(山翁指示)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m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무착 스님이 문수보살을 친견하기위해 수행하던 중 오대산 금강굴에서 소를 끌 고 가는 노인을 만나 차를 마시고 동자로부터 게송을 듣고도 문수보살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름 속에 사자의 등에 올라타고 있는 문수보살로 나타난 모습을 보고서야 깨우쳤다는 내용을 판각한 작품이다. 무착문희(無着文喜:820-899)는 당나라 때 스님으로 속성은 주씨, 어려서 출가해 부지런히 수행하다가 예장 관음원에 이르러 앙산 혜적 스님의 법을 이었다. 광화 2년에 입적했으며 세수 80이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 때 노옹이 말했다. '내가 베푸는 게송을 들어 보시오.' 일념이 청정한 마음 이것이 보리로다. 이 보리는 항하사 같이 많은 칠보 탑을 조성하는 것보다 뛰어나다. 칠보탑은 필경에는 먼지로 변하지만 일념 청정한 마음은 정각을 이룬다. 무착은 엎드려 정신을 집중해 이 게송을 듣고 사례의 말을 했다. '비밀한 게송을 보여주신 은덕을 입게 되니 제호(醍醐:부처의 숭고한 경지를 이르는 말)를 마시고 팔지문(八知門)에 몸담은 것 같습니다. 감히 지경을 잊겠습니까? 이 게송은 지언(知言)이라 말할 수 있으니 심부에 새겨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노옹이 균제를 불러 '스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니 동자가 무착을 보면서 게송을 베풀어 일렀다.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 마디 미묘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面上無瞋供養具 口裏無瞋吐妙香 心裏無瞋是珍寶 無染無著是眞常) 게송이 끝나자 동자와 성사가 모두 보이지 않고, 자세히 보니 산림에 흰 구름이 무럭무럭 솟아올라 오색구름을 이루고 무지개 위에 문수보살이 사자의 등에 올라타고 있었으며, 여러 보살들이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한 끼의 밥을 먹을 만한 사이에 동방에 흰 구름이 점점 하늘을 가로막으면서 문수보살의 몸과 뭇 보살상이 구름과 함께 없어졌다." 무착은 금강굴에서 그토록 친견하길 원하던 문수와 보배잔으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도 문수를 몰라봤다. 사바세계 어디서나 문수는 법을 설하고 있고 모두들 문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탐 · 진 · 치로 눈이 어두운 우리는 맑고 투명한 보배잔으로 매일 차를 마시면서도 그것이 보배잔인 줄 모를 뿐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미시령 터널

고개를 실은 트럭이 줄지어 바다로 간다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무당벌레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서 접박이 벌레는
등을 들어 올리고 가늘게 몸을 흔든다
밤무대에서 본 듯한 낯익은 몸짓 끝에
고개 하나가 통째로 미끄러져 내린다
달팽이가 지난 자리에
마른 코같이 희미한 자국을 남기듯
인류는 지난 자리에 산뜻한 직선을 남긴다
보라, 검푸른 바다가 달빛처럼
부서지고 있는 단정한 해안선을
낙타색 모래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피라미드의
직설적인 아름다움을 보라

–허만하 신작시집 〈바다의 성분〉

여의불상
만사형통의 효력이 있는 여의불상을
귀하신 몇 분에게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 상하 : 9cm
· 좌우 : 5cm
· 앞뒤 : 4.5cm
여의불상을 모시면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행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만사형통의 대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의주
여의주란 글자 그대로 마음먹은 뜻과 같이 되어지는 구슬로서, 전통적인 비법으로 여러 광물질을 수년간의 숙성과 특수공정 과정을 거쳐 만든 신비의 영물입니다.
영적 장애 상담 환영 無丹 02)924-3500

佛불영TV www.불영.kr
바르고 빠른 뉴스 불영TV!
뉴스,법문,다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영TV!
불영TV는 사찰홍보,행사,불교 관련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으로서 타 매체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 불영TV에서 판매 중인 스님 법문 동영상 CD
◇ 원통스님 관세음보살보문품 동영상1셋트 CD30장
◇ 원순스님 원각경 동영상 1셋트 20장CD
◇ 각성스님 능가경
주요사업 안내
1.홍보영상 제작
불영TV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세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릅니다.
2.사업분야
사찰홍보,행사,개인다큐,법문 등의 동영상을 제작해 드립니다.
3.프로그램 판매
불영TV 동영상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 문의 |
02)2236-7208 / 017-207-7208
도암 합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이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자기 근본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우왕좌왕 안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이 지구가 다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 비 안 오게 하고 지구를 들어서 우리 집을 망가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있으면 있다고 손 들어 보세요. 그것은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물체가 다 수명이 있습니다. 길고 짧을 뿐이지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는 것을 젊어서 죽게 하는 게 좋으냐, 그냥 사는 날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옷을 벗게 하고서 다시 찬란하게 태어나게 하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점이 있죠. 그런데 태양이 축소되거나 팽창되거나 아무 상관 없이 그냥 헐렐레하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뒤죽박죽이 돼서 일체 만물만생 초목까지 전부, 물이고 뭐고 다 파괴가 돼서 산산조각 흩어져 버리죠. 암흑이 되고 말입니다.

일체가 다 그렇죠. 지금 몸뚱이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라 하는 것도 지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내 몸뚱이나 지구나, 지구는 수명이 길고 사람의 몸체는 수명이 짧고 그럴 뿐이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영원한 거라, 그것은 수억겁 광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수명을 집어넣는다면 까딱없을 겁니다, 아마. 이 마음의 도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광대하기 때문에 그대로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마니주(摩尼珠) 구슬이라고 하죠.

어떻게 말은 이렇게 허술하게 내던졌지만 여러분이 침착하게 이해를 하시고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이 마음의 도리를 이해하고 한마음으로써 일체 만법을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정말이지 세세생생을 유유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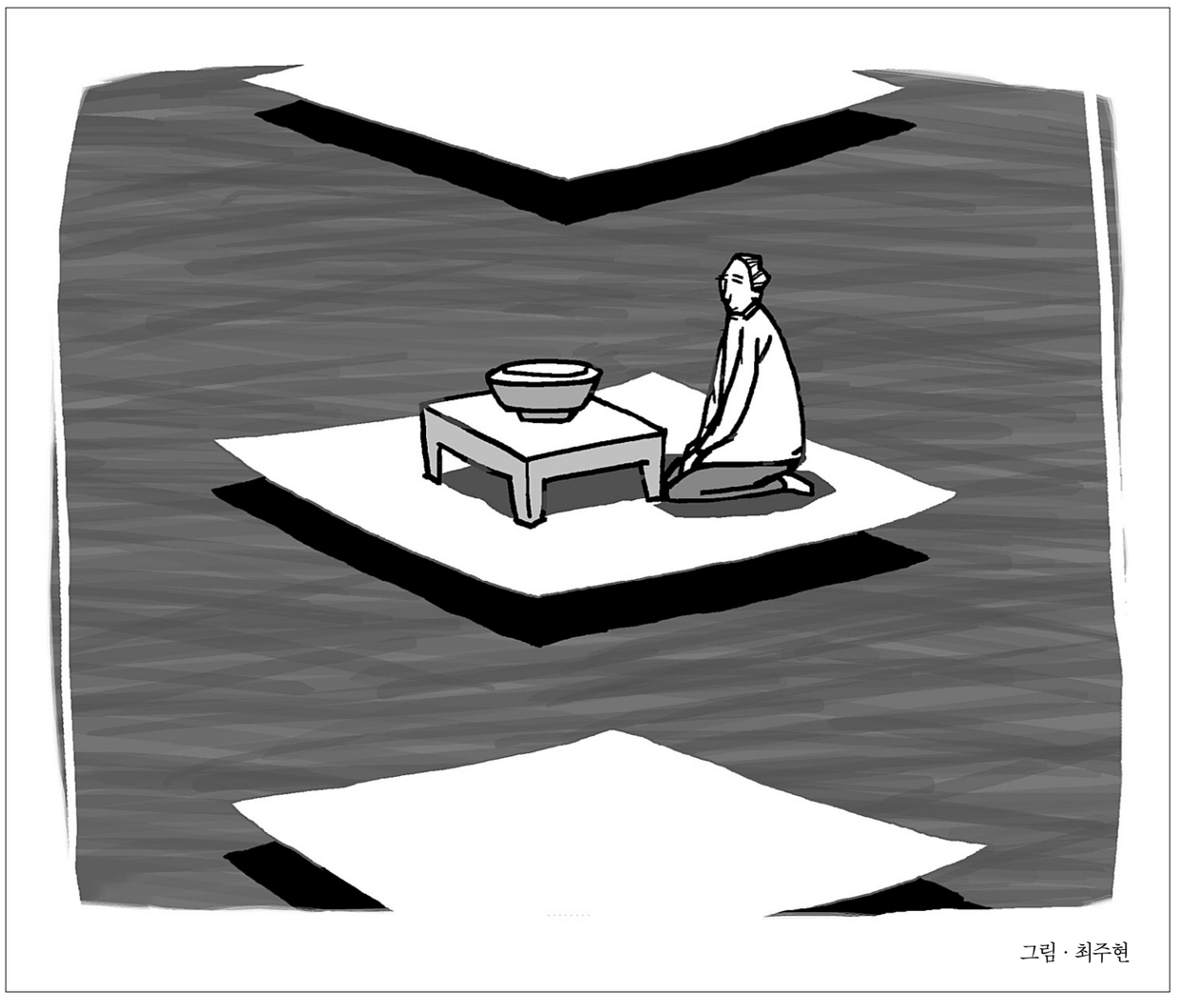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큰스님: 예.

질문자1(남):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대해서 경과 보고 겸 검사를 좀 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선원에 나온 지 벌써 한 오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에 대해 매일같이 관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아주 한 번에 맡기고 관하고 놓고는 잊어버렸습니다. 아주 일 년치 이 년치를 한꺼번에 관한 셈이죠. 그래도 역시 그대롭니다. 그러나 실망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순리를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어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입만 벌리고 있겠습니까? 남의 수박밭에 가서 수박을 서리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제가 이 주인공 공부를 한 것에 대해 참으로 천하지대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청춘도 벌써 물들었으니까 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구가 내일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은 이 공부를 놓칠 수는 없었기에 무한한 힘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비전을 갖고 계신 스님과 더불어 이 대머리를 면하고자 나왔습니다. 고로, 다음에 이 자리에 제가 나왔을 때는 어찌 이 모습이겠습니까? 불문가지입니다. 한마음 내주십시오.

큰스님: 과거 미래 현재를 같이 붙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루 24시간을 살아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과거까지 붙들고 미래까지 붙들고 현재까지 붙들고 관을 합니까? 지금 현재에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관하고, 가는 거 잡지 말고 관하라는 거죠. 아까도 뒷 발자취 얘기 했듯이 과거는 이미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지 않았으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 현재는 그냥 걷고 있는 대로 찰나찰나 화(化)해서 나투면서 돌아가니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떡 파는 노파가 덕산 스님에게 과거심(過去心) 미래심(未來心) 현재심(現在心), 어떠한 마음에서 떡을 먹으려느냐고 물었다죠? 그런데 과거심도 아니요, 미래심도 아닙니다. 현재심에 점심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점심이라는 그 뜻은 그냥 점심밥 먹듯 먹는 점심이 아니라 (법상을 두세 번 가볍게 쳐 보이시면서) 점! 점심입니다. 점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그 마음에서 떡을 먹겠다 이런 것은, 떡이라는 건 언제나 둥근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에 떡을 먹겠다.' 이런 거는 우주 전체를, 삼세계(三世界)의 삼천대천세계를 다 그냥 집어먹겠다 하는 소리나 똑같습니다. 그걸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어떠한 마음에서 떡을 먹겠느냐 했는데 그거를 맞추지 못해서 또 물으러 갔죠. 금강경을 잔뜩 짊어지고요. 길게 말하기가 싫어서 지금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말만 했지 법이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나는 어떤 때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어릴 때는 식구들이 전부 뿔뿔이 헤어져서 남의 집으로 전전긍긍했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못 했습니다. 여러분처럼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키면서 호화롭진 못하나마 밥이라도 먹고 공부라도 시킬 정도로 이렇게 자랐다면 모르겠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남의 집 일하러 돌다보니 일자무식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주인인 자체, 이 껍데기 아닌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치 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세(三世)를 같이 쥐고 그렇게 쩔쩔매지 마시고요, 그냥 일심(一心)으로서, 일심도 공(空)해서 찰나찰나 닥치는 대로 놔버리시고 가세요. 그래야 가볍습니다.

질문자2(남): 지난번 법회 때에 스님께서 토론 형식으로 "달마가 수염이 있는 게 달마냐, 없는 게 달마냐?" 하고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분별심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수염이 있어도 달마고 없어도 달마고, 또 수염이 있다 해도 달마가 아니고 없다 해도 달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속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면서 항상 분별심을 일으킵니다.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모든 생명체가 생존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연과학을 공부하는데, 늘상 따지고 이게 맞는가 저게 그른가 하고 분별심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마음공부를 하려면 분별심을 일으켜서는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전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모순이 됩니다. 공부를 위해서는 분별심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는데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또 이 속세에서 살기 힘드니

☞26면으로 계속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禪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 용성 | 학명 | 만공
한암 | 만암 | 만해 | 효봉
혜암 | 동산 | 경봉 | 고암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5~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343601-04-046766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buddhanews.com

지금 현재에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관하세요

☞25면에서 계속

까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수염이 있어도 달마고 없어도 달마고 하는 그런 문제도 제가 또 다른 분별심을 일으켜서 질문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분별심에도 헛된, 망상된 분별심이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정확하게 보는 분별심은 그게 곧 지혜로 이르는 길인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수염이 나도 달마고, 수염이 안 나도 달마고 그렇다면 무효죠? 그렇죠?

질문자2(남): 예. 그렇습니다.

큰스님: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그런 표현으로 해서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붉게 익은 꽃이 피려면 그런 말대답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차적으로 말할 때 분별은 분별입니다. 지금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분별하되 분별이라고 하지 말고 모든 거를 생각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이겁니다. 함이 없는 줄 알아라 이거예요. 댁의 육체 속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들어있죠?

질문자2(남): 예. 그렇습니다.

큰스님: 그러면 더불어 같이 생각을 하지 왜 당신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공(空)했는데. 그렇죠?

질문자2(남):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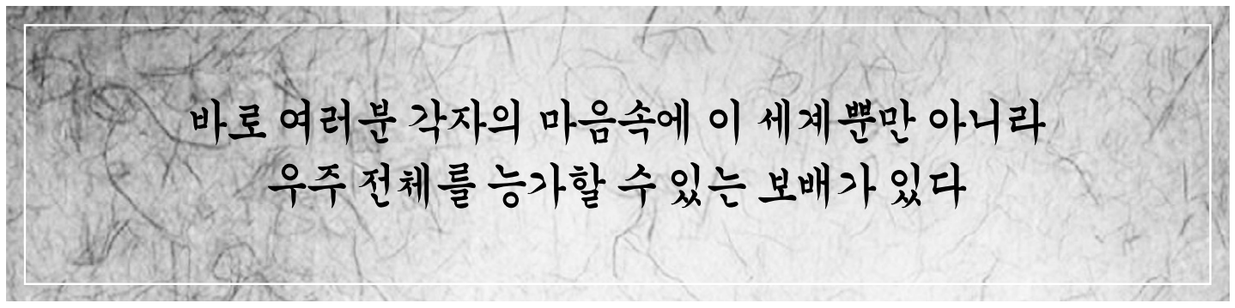
큰스님: 그럼 공체(共體)로서 공심(共心)으로서 생각한 게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이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다, 자기가 생각한다 이런 마음 자체를 떼어라 이겁니다. 그냥 공심에서 공생각을 한 거죠. 공심으로서 한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생각을 했다느니 안 했다느니 이런 이유가 붙을 자리가 못 되죠.

그러니깐 여러분한테 사랑을 하지 마라, 돈을 벌지 마라, 무슨 욕심을 내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하되 하지 말라 이거죠. 함이 없이 하라. 이 말을 해야 되겠군요. 어느 제자가 스승한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토굴을 묻고 공부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선뜻 대답을 하고 난 뒤에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말할 게 있다. 네가 혼자 공부하러 가겠다면 네 몸 속에 있는 생명들 다 내놓고, 옷도 벗고,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땅도 딛지 말고 모든 걸 너 혼자 한다니까 다 내놓고 너 혼자 해봐라."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끝에 고만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소리가 '아하! 내 몸뚱이도 그렇고 모두가 일체가 둘이 아니게 같이 더불어 사는구나!' 하고선, '지겨워할 것도 없고 내가 바로 그고 그가 나니까, 내가 어디로 간다 안 간다 할 것도 없구나!' 하고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랬듯이,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써 자기가 지어서 업이 되고, 자기가 지어서 착이 되고, 자기가 지어서 악행이 되고, 자기가 지어서 뛰어넘지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무한량인데 말이에요. 거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혼자 살아야 그게 되는 거지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 혼자 물을 마셨다고 하고 물을 안 마셨다고 하고 이렇게 이유가 붙습니까? 공생(共生)이면서 공심(共心) 공체(共體) 공용(共用) 공식화(共食化) 하고 돌아가는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거를 터득하고 "어디다가도 착을 두지 않으면서도 어디다가도 사랑하지 않고 자비로써 베풀 수 있는 그 너그러움을 가져라." 이런다면 입에 붙은 사랑이 아니고 아주 정직하게 실천하는 자비죠.

질문자2(남): 그러니까 분별을 하되 분별을 함이 없이 하라는….

큰스님: 그래요. 그것도 모두 가르치기 위해서, 왜 달마에 수염이 안 났느냐고 하고 왜 수염이 났느냐고 하고 이렇게 말을 지어서 해놨던 거죠. 그것도 말을 안 하면 상대방에서 생각을 할 수 없고 배울 수 없으니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걸 또 요사하게 말을 해놓으면 그 말을 따라서 알지도 못하면서 말만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망발이 되니까 선지식들께서 말씀들을 안 하신 거죠.



질문자3(여): 스님, 감사합니다. 큰스님, 저는 큰스님을 뵙고 똑바로 서서 삼 배 하는 게 원이었습니다. 원을 십 년 넘게 세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제가 하다하다 안 돼서 큰스님한테 마음 한번 내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아들이요, 나이가 서른 여덟이거든요. 그런데 2학년 때부터 온갖 행위를 다 하고 정신병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정상으로 바로잡은 지가 한 삼 년 됐거든요. 지금은 이 공부를 하다보니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어디 내보내도 내 아들만한 효자가 없을 거다 하는 감이 들도록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걔가 이제 제 삶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스님께서 좀 찾아 달라고 나왔습니다.

큰스님: 그건 날더러 할 소리가 못 됩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해드리기를 그거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여러분의 자가발전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하는 거 잘 배우셔서 제 나무가 제 뿌리를 믿어서 관하는 도리만 제대로 알고 하신다면 자기 길을 자기가 찾을 수 있죠. 문제는 제대로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통신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대(四大)에 통신이 되지 않고 또 건너편에 아들과 같은 뿌리에 통신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에 의해서 자기 불종을 믿고, 그 불종을 믿음으로써 자기 뿌리가 되고, 자기 뿌리가 됨으로써 자기 싹이 나는데 그 싹을 금갑옷이라 그랬습니다, 금갑옷. 금으로 만든 갑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올바로 하지 못하시고 올바로 믿지 않으시고 마음이 급하게 왔다 갔다만 하시고 그거를 침착하게 입력을 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날더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 스님네들 한테 다 물어봐도 그건 일러드릴 겁니다.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그냥 놓고 그렇게 믿으면 저절로 될 것을 왜 그렇게들 안달복달을 해요?

사회자: 질문은 세 분만 있습니다.

큰스님: 질문 다 했다고요?

사회자: 예. 오늘 세 분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큰스님: 질문도 그래요. 호텔에 가서 못 먹어보던 음식을 시키려 해도 먹어봤어야 맛을 알고, 맛을 알아야 그 생각이 나죠. 그것처럼 질문도 먹어본 생각이 나야 질문을 하고 이러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그저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이런 것만 머리에 잔뜩 들어가지고 그런 여유가 없으니깐 질문할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해결해줄 해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질 못해서 자기가 발발발발 뛰는 거예요, 그냥. 해결사를 두고도. 해결사를 진짜로 믿고 맡겼으면 해결사가 하게끔 놔둬야 될 텐데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얘, 이거 좀 해줘!' 해놓고선 또 뺏는 거예요. 그러고 또 돌다가 '이것 좀 해줘!' 하고 맡겼다가 또 믿지 못하고 이래요. 끝까지 믿어줘야 할 텐데 이놈의 거, 맡겼다가 뺏었다가 하니 누가 제대로 일을 합니까? 그러나 급하면 자꾸 생각이 나죠. 그러면 생각이 나는 대로 거기다 '너 알아서 해결해!' 하고선 딱 맡기면, 맡기는 데 대해선 장사 없거든요. 아무리 급해도 탁 '너 이거 해라!' 하고 맡기면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회사를 경영하는데 말입니다, 자꾸 도둑을 맞아요. 언젠가도 한번 이런 얘기 했었죠? 자꾸 도둑을 맞으니까 주인이 지키고 가만히 보니까 아, 똑 두 놈이 그따위 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잡지는 못해요, 마음으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을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지키고 있다가 딱 목격했는데 지혜가 있는 분이라 돌아섰단 말입니다. 돌아서가지고선 에이, 그냥 회사가 아주 망하게는 훔쳐가지 않으니까 내버려두고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그 다음 날 말입니다, 두 사람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상하게 도둑을 자꾸 맞으니 너희들밖에 믿을 게 없어. 그러니 너희 둘이 이 도둑을 막고 관리를 해라." 이랬거든요. 아주 거기다 열쇠를 탁 맡긴 거예요. 창고 열쇠고 뭐고 그냥 다 맡입니다. 그러니깐 그 도둑질하던 두 사람이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열쇠를 다 맡아가지고 보니깐 이제 도둑을 맞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날서부터 열심히, 뭐 자기가 도둑질 안 하면 없는 거니깐, 하하하. 그래 열심히 살다보니까 그렇게 착해졌더래요.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도 지혜가 있어야 하고 일하는 사람도 끈기가 있어야 하듯이, 그렇게 해서 양쪽 사람이 다 잘 됐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 말은 영 안 하고 나중에 한 쪽을 뚝 떼어서 이젠 독립해도 괜찮다 하고 두 사람한테 떼어서 줬답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회사가 잘됐듯이,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런 말로 꿰졌습니까? 예? (대중 웃음) 아까 무슨 말을 하다가 이 말로 갔죠? 진짜 믿고 맡기라는 소리죠?

그런데 진짜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여기서 다 못된 것을 하게끔 그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몸속의 생명들의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걸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건 줄 알고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질 말고 '아이구, 몽땅 너한테 맡겨. 나는 열쇠고 뭐고 너한테 다 맡길 테니깐 아예 우리집에 어떠한 도둑도 맞지 않고 환란도 일어나지 말고 자식들도 잘, 그저 남들 하는 대로 잘 배워서 나가 도록 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아까 얘기한 그 사람네들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 의식들이 과거의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유전성, 이런 걸 다 가지고 이 속에서 지금 코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놈들한테 열쇠를 다 맡기면서 '너희들밖에 없다고. 아, 너희들밖에 없다니까!' 하고 또 '주인공밖엔 없으니까!' 그러고 그냥 다 맡겨놓으면 잘못을 저지르려야 저지를 수가 있어야죠, 믿고 맡기는데. 진짜로 맡겼는데. 그럼 맡기면 벌써 이거는 달라져요. 이건 우리가 꼭 종교를 믿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즉 말하자면 심성의학이기도 하고, 심성과학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다스리는 선장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버려서 대뇌로 통신이 돼요. 통신이 돼서 중뇌에서 책정을 내리면 사대(四大)로 통신이 되죠. 사대로 통신이 되면 각 부서에 통신이 돼요. 그리고 각 부서에 통신이 되면 그 생명들의 의식들이 전부 다 그냥 가자는 대로 다 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어느 신도는 도둑을 하도 맞으니까 이랬대요. '아유, 주인공! 나는 열쇠 다 맡겼어. 문을 아무리 잠가놔도 소용 없으니까 주인공 당신밖에 이 도둑 막아줄 사람이 없어.' 하고선 잠을 자는데 아, 잠자는데 "이거 봐! 이것 봐!" 그러고 깨우더래요, 누가. 그래서 "누구야?" 그러고선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런데 또 잠을 자려고 하니까 "이거 봐. 저 뒷문 열렸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하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주인공에 맡긴 생각이 나서 나가보니까, 정말 뒷문이 열렸고 도둑이 들어오다가 자기가 나가는 바람에 그냥 다 도망갔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맡겼느냐 하면 또 '이렇게 놀라게 하지 말고, 그 사람 마음들이 변해서 여기 집어갈 것도 없으니까 아예 오지 말게 하고 사람들 좀 놀라지 않게 하라.' 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날서부터 영 그런 일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 지혜로운 생각으로 어떠한 아량으로써 어떻게 맡기느냐에 달려있어요. 세세하게 어떻게 얘기를 그런 것까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량껏 자기 좋은 대로 어떻게 해서든 맡겨놓고서는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진짜로 믿고. 믿는 사람은 우왕좌왕 안 해요. 믿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맡겨놓고 또 어떻게 하다가 보면 조용하면 또 생각이 나죠.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가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또 생각이 나면 또 거기다 그냥 팽개쳐버려요, 그냥. '너밖엔 할 수 없잖아.' 하고.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나게 해! 난 너만, 너만 믿어.' 하고 그냥 맡겨놓았을 때 그때에 그냥 선을 훌쩍 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깊숙한 데 보배가,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능가할 수 있는 바로 보배가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위 법문은 1996년 7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50선지식과 함께하는 화엄산림 지장산림법회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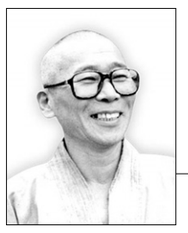
조계사 2차 343일 조상천도법회

조계사에서는 343일간 원로대덕 큰스님 50분을 모시고 화엄경과 지장경을 공부하며, 선망부모에 대한 49재와 가족을 위한 구병시식을 각각 7회에 걸쳐서 봉행합니다. 이번 조계사 조상천도법회에 동참하시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모든 조상영가와 유주무주고혼들이 극락왕생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2009년 7월 17일(금) (음 윤 5.25) ~ 2010년 6월 24일 (음 5.13),1~6재 매주 목요일 10시 (매회 49재 9시)

입 재		07월 17일(음 윤5.25)	화엄경총설	총무원장스님
1회	1재	07월 23일(음06. 02)	세간정안품	월운스님
1회	2재	07월 30일(음06. 09)	노사나품	종하스님
1회	3재	08월 06일(음06. 16)	여래명호품	법산스님
1회	4재	08월 13일(음06. 23)	사제품	종진스님
1회	5재	08월 20일(음07. 01)	여래광명각품	총무원장스님
1회	6재	08월 27일(음07. 08)	보살명난품	무관스님
1회 49재		**09월 03일(음07. 15)**	정행품	현각스님
2회	1재	09월 10일(음07. 22)	현수보살품	도문스님
2회	2재	09월 17일(음07. 29)	불승수미정품	혜자스님
2회	3재	09월 24일(음08. 06)	보살운집묘승전상설게품	정념스님
2회	4재	10월 01일(음08. 13)	보살십주품	현해스님
2회	5재	10월 08일(음08. 20)	범행품	성타스님
2회	6재	10월 15일(음08. 27)	초발심공덕품	근일스님
2회 49재		**10월 22일(음09. 05)**	명법품	정휴스님
3회	1재	10월 29일(음09. 12)	불승야마천궁자재품	정무스님
3회	2재	11월 05일(음09. 19)	야마천궁보살설게품	법등스님
3회	3재	11월 12일(음09. 26)	십행품	보각스님
3회	4재	11월 19일(음10. 03)	십무진장품	지하스님
3회	5재	11월 26일(음10. 10)	여래승도솔천궁품	도업스님
3회	6재	12월 03일(음10. 17)	도솔천궁보살찬불품	혜인스님
3회 49재		**12월 10일(음10. 24)**	십회향품	무비스님
4회	1재	12월 17일(음11. 02)	십지품	암도스님
4회	2재	12월 24일(음11. 09)	십명품	혜남스님
4회	3재	12월 31일(음11. 16)	십인품	무진장스님
4회	4재	01월 07일(음11. 23)	십왕보살문아승지품	자광스님
4회	5재	01월 14일(음11. 30)	수명품	인환스님
4회	6재	01월 21일(음12. 07)	보살주처품	지성스님
4회 49재		**01월 28일(음12. 14)**	불부사의법품	시몽스님
5회	1재	02월 04일(음12. 21)	여래상해품	태응스님
5회	2재	02월 11일(음12. 28)	불소상광명공덕품	홍교스님
5회	3재	02월 18일(음01. 04)	보현보살행품	향적스님
5회	4재	02월 25일(음01. 11)	여래성기품	영조스님
5회	5재	03월 04일(음01. 18)	이세간품	도법스님
5회	6재	03월 11일(음01. 25)	입법계품	월파스님
5회 49재		**03월 18일(음02. 01)**	지장경총설	묘허스님
6회	1재	03월 25일(음02. 08)	도리천궁신통품	원종스님
6회	2재	04월 01일(음02. 15)	분신집회품	현고스님
6회	3재	04월 08일(음02. 22)	관중생업연품	법만스님
6회	4재	04월 15일(음03. 01)	염부중생업감품	총무원장스님
6회	5재	04월 22일(음03. 08)	지옥명호품	인묵스님
6회	6재	04월 29일(음03. 15)	여래찬탄품	성우스님
6회 49재		**05월 06일(음03. 22)**	이익존망품	혜창스님
7회	1재	05월 13일(음03. 29)	염라왕중찬탄품	현관스님
7회	2재	05월 20일(음04. 05)	칭불명호품	지선스님
7회	3재	05월 27일(음04. 12)	교량보시공덕품	혜총스님
7회	4재	06월 03일(음04. 19)	지신호법품	옹산스님
7회	5재	06월 10일(음04. 26)	견문이익품	세민스님
7회	6재	06월 17일(음05. 03)	촉루인천품	청화스님
7회 49재		**06월 24일(음05. 10)**	회향법문	총무원장스님

조계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세민 합장



불자 세상보기

정목 스님
양산 정토원 원장

양극화 문제 해결하는 화쟁의 지혜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공통으로 고뇌하는 문제는 사회의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된 두 극단은 각기 대립의 각을 세우고 끝없는 논쟁를 벌이고 있으니 국민화합의 가장 큰 장애입니다.

그럼에도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갈등에서부터 기업가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 자, 야당과 여당, 정치 지도자와 국민, 종교 대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빚어지는 문제인 까닭에 그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부처님의 지혜와 원효 스님이 전개한 화쟁(和諍)의 논리에 비추어 우리가 안고 있는 양극화 문제의 해결책을 간략히 전하고자 합니다.

원효 스님은 부처님의 지혜를 네 가지로 함축하여 해설하였는데, 성소작지(成所作智) 묘관찰지(妙觀察智) 평등성지(平等性智) 대원경지(大圓鏡智)가 그것입니다. 원효 스님은 이 모든 지혜의 궁극은 '일체 경계는 일심(一心)'인 지혜라 하였습니다. 일심은 대승불교의 세계관이며, 믿고 성취해야할 대승의 유일한 법입니다.

'성소작지'는 부처님이 불가사의한 일을 성취한 지혜인데 낮은 지혜로는 헤아리기 어렵고, '대원경지'는 오직 부처님만이 단박에 깨닫는 지혜로 보살의 경지에 이르러도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묘관찰지'는 정신적 물질적 모든 법을 '비유비무(非有非無)'로 관찰하는 지혜이며, '평등성지'는 동체대비심으로 널리 제도하는 지혜인데, 이 두 지혜는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성취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지혜를 중심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양극화 문제의 해결책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양극화 논쟁을 해결하는 첫 번째 법은 두 극단의 주장에 대한 긍정(肯定)입니다. 한 쪽 만을 부정하거나 양쪽을 다 부정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쪽을 다 긍정한다는 것은 일단 논쟁을 그치고 양극화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양극화는 문화시대적 상황,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식 등이 연기(緣起)되어 일어난 현상입니다. 긍정이란 이 연기의 현상을 서로가 긍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의 두 번째 법은 양극의 실체에 대한 부정(否定)입니다. 양극의 주장이나 현상은 연기의 산물인 까닭에 그 본질은 실체가 없습니다. 행위의 주체는 있으나 이념이나 현상도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이란 이와 같이 인연(因緣)으로 일어난 이념이나 현상은 긍정하되 그 실체를 부정(空)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체 법에 실체 없음을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독단으로 공동의 평화를 위한 노정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의 세 번째 법은 서로가 실체 없음을 긍정하고 화합(和合)하는 것입니다.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법이 실체는 없지만 주체의 선행(善行)으로 복된 삶의 지평을 넓혀 갈 수 있다는 '비유비무'의 묘관찰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선행은 오직 민중의 고뇌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어야 합니다. 또한 진실하고 끝없는 선행은 '일체경계가 일심'임을 깨닫는 평등성지로써 가능함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효 스님이 양극의 논쟁을 긍정·부정·화합으로 해결하는 화쟁의 논리입니다. 비록 화쟁의 논리가 이러하지만, 지혜로운 지도자의 선도적 역할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실천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기후에 이르기까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어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편안하면 부처님도 출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에 귀의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안심(安心)을 얻고 갖가지 어둠의 장애를 공동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다 함께 이 길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7월의 테마-휴식

단순하고 겸손한 철학이 담긴 휴식

나는 특별히 어릴 적부터 먹고 자고 놀기를 좋아했다. 이러다보니 어머니의 "나중에 죽게 되면 푹 쉬고 푹 자게 될 테니 살아 있는 동안에는 놀지 말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라"라는 조언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했다. 오로지 학교 공부만을 열심히 하여 성공한 사람, 수단이야 어떻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우대받는 분위기에서 성장한 우리는 의도되지는 않았겠지만 자연스럽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만 추구하다보니 제대로 쉬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다.

어쩌다 주어진 여가시간도, 심지어는 1년에 한번씩 가는 휴가마저도 계속 움직이며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을 보러 다니거나 그저 비싸고 많이 먹으며 주위에서 좋다고 하는 곳을 따라다니며 바쁘게 보냈고 그렇게 보내고 나면 가슴 한 켠에서는 아쉬움이 남곤 했다. 휴가가 주는 의미나 휴식에 대한 진지한 생각도 없이 살아가다보니 주변의 삶과 동일하지 않으면 뭔가가 불안해지고 존재조차도 희미해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다 5~6년 전부터는 한두 명의 친구들과 조용한 암자를 찾아다녔다. 일단 하루아침쯤은 여독을 핑계로 조금 늘어지게 자고나면 할 일이 없으니 스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밭에서 야채도 뜯고 풋고추도 따서 공양을 한다. 스님이 주시는 은은한 차는 기다려야 맛을 제대로 알게 되고 마시다보면 분주한 마음도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느낀다. 고즈넉함에서 행해지는 저녁 예불은 어느 곳이나 좋지만 같이 있어 좋은 친구들이 있어 더욱 좋고, 예불이 끝나고 나서는 마루에 모기장을 쳐놓고 가부좌 트는 흉내도 내다보면 자연스레 내 자신과의 조용한 대화를 하게 된다.

오롯하게 나를 느끼면서 침잠해가는 시간은 소중하고도 감동적이다. 말없음을 행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머릿속이 맑아서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지기도 한다. 부스럭거리다가 잠이 들면 평소에는 많은 시간동안 잠을 자도 피곤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시간이지만 암자에서는 새벽 도량석 소리에 잠을 깨 소박한 예불을 드리게 된다. 잠이 살짝 묻어나는 까칠한 목소리로 부르는 쇳송은 알지 못하는 먼 과거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묘한 느낌으로 미련을 남긴다. 가벼운 아침을 공양을 마치고 숲을 걸으며 친구들과 사는 이야기를 하거나 부끄러워 남에게 말하지 못한 실수담을 나누다보면 '이렇게 살아도 좋겠구나' 하는 느낌이 모여져 꽉 찬 충만감을 맛보게 한다.

하루 종일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 무료해보이기까지 하는 암자생활에서도 잔잔한 미소와 활기찬 스님의 뒷모습이 바라만보아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은 아마도 항시 같지 않은 자연의 변화를 느낄 만큼 섬세하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내는 듬직함이 있기 때문 아닐까.

이렇게 보내는 짧은 휴가는 되돌아와서도 한동안 여운을 남기며 일상생활에서도 실행하려 노력하게 된다.

잠시 휴식에 대한 생각을 하다보니 휴식은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다소 단순하고 겸손해지는 삶의 철학이 담겨야 하는 것임을 새삼 깨달으며 잘 쉬어야겠다는 다짐해 본다.

안수경
고창사회종합복지관



社說

'사리장엄 특별전'의 짧은 생각

익산 미륵사지에서 발굴된 성보 사리장엄 장치와 사리 친견이 7월 26일로 끝났다. 지난 한 달 동안 열렸던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특별전'은 끝났지만 이 전시를 다녀 온 불자들의 아쉬움은 끝이 없다.

문제는 인식의 차이였다. 불자들에게 사리장엄은 누가 뭐래도 성스러운 경배의 대상이다. 그래서 불자들은 '관람'을 한 것이 아니라 '친견'을 한 것이다. '관람'은 지식과 호기심에 관련된 일이겠지만 '친견'은 신앙적 발로다. 이왕 사리장엄 특별전을 개최 하려면 불교계 정서가 반영됐어야 했다.

그러나 주관단체는 사리장엄 특별전을 일반 유물 전시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했다. 불자들은 그 가슴 벅찬 사리 앞에서 삼배도 올리지 못했다. 소위 '종교행위'를 할 수 없었다.

물론 이 전시가 불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문화재청의 입장에서 보면 사리장엄은 유물일 것이다. 그러나 1400년 전 미륵사 탑을 조성하고 거기에 사리를 봉안 한 불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이 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해 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했을까? 만중생의 평화와 행복을 희구했던 그들의 불심이 오늘 불자들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별전'이라면 일반 관람객과 불자들이 골고루 충족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랬다면 불자들은 더 환희를 느꼈을 것이다. 그런 에너지가 바로 한국의 미래란 것을 오늘날의 관리들은 왜 모를까?

청소년 포교 활성화의 열쇠 찾기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 캠프가 성황을 거두었다고 한다. 올해로 열 두 번째인 이번 캠프는 경주 보문청소년수련원과 불국사, 감포 해수욕장 등지에서 열렸는데, 1200명 정도로 내다봤던 사무국의 예상을 뒤엎고 1400명이나 모였다고 한다. 신종 플루의 확산과 방학이면 학원으로 달려가는 풍속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청년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한국불교의 희망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불교를 자신의 종교로 확신하는 모습에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대불련도 희망적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문제는 중고등학교에서 맺은 불교와의 인연을 당연하게 대학생 법회와 청년회 법회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단위의 파라미타 단원들이 단위 사찰의 학생법회와 청년법회, 나아가 신도회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폐쇄 직전의 대불련 동아리를 선배들이 장학기구를 만들어 간신히 살린 사례가 있다. 파라미타를 통해 불교에 귀의한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대불련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청소년 포교의 성패와 대불련의 활성화 여부는 복잡한 교육환경과 급변하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맞춤 활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올 여름 파라미타 연합 캠프의 열기를 '미래 불교의 씨앗 가꾸기'라는 안목으로 바라보자.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해답이 있을 것이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승무북, 모듬북·장고·징·꽹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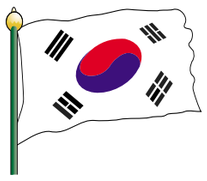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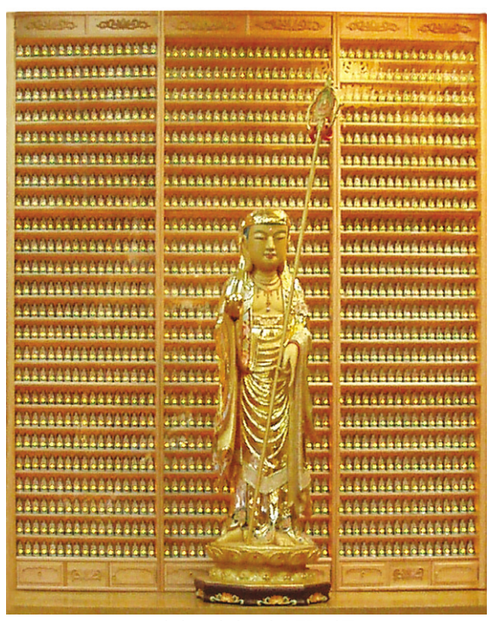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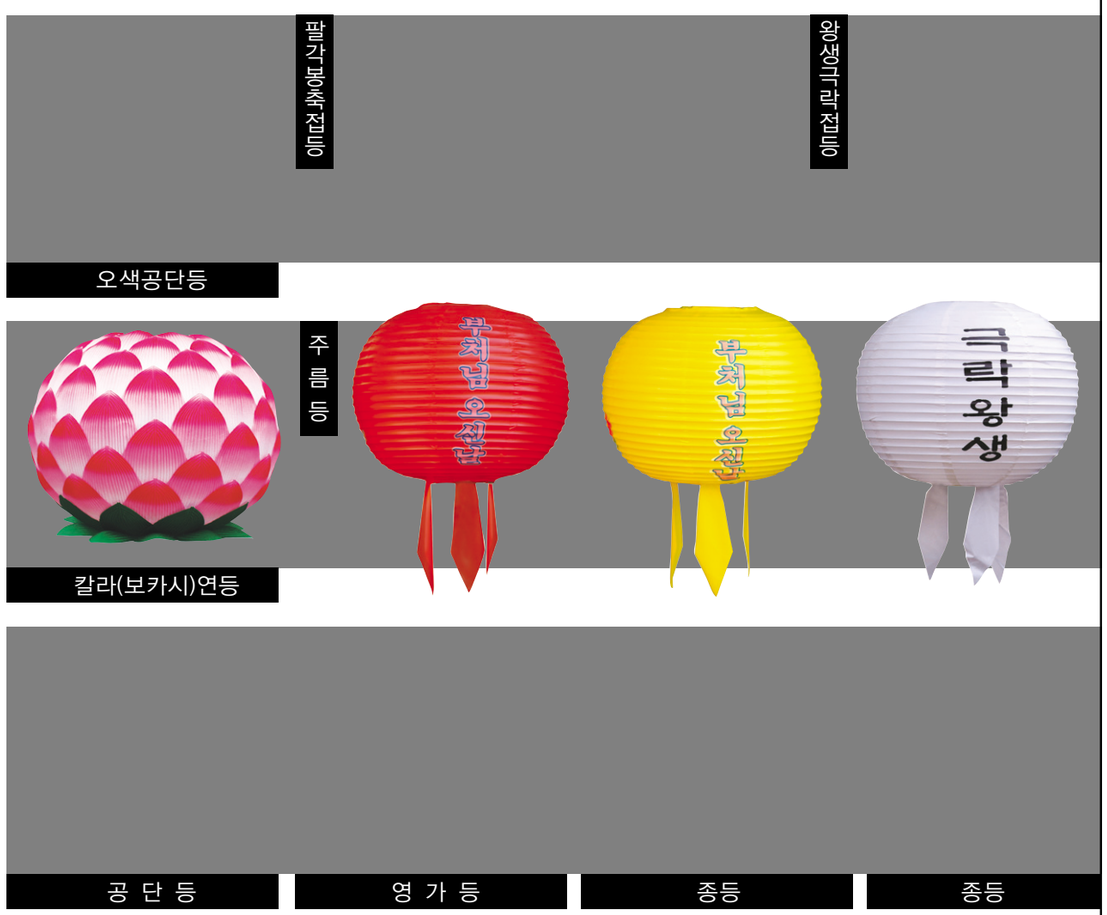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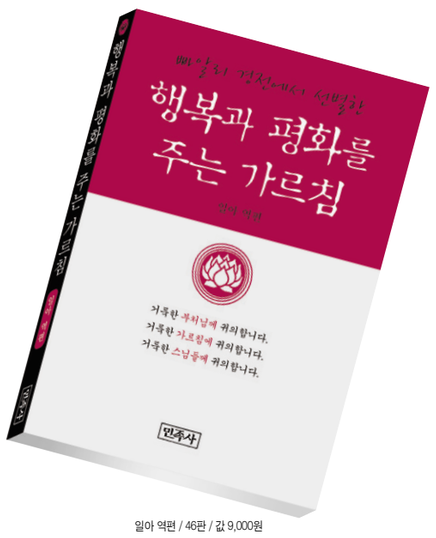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불교의 뿌리인 빠알리 경전에서 선별한

행복과 평화를 주는 가르침

일아스님 역편



일아 역편 / 46판 / 값 9,000원

두려울 때는 불 · 법 · 승 삼보를 생각하라!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부처님 말씀!
마음에 와 닿고, 독송하기 좋고, 쉽고 편리하고 유용한 책!

① 늙음 · 죽음 · 병듬 · 슬픔 · 한탄에 빠진 이들에게 주는 가르침!
② 기도 · 보시 · 공덕 · 효도 · 자비에 대한 가르침!
③ 참된 친구 · 거짓 친구에 대한 가르침!
④ 바른 생각 · 바른 행동 · 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 말씀을 통하여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기를 발원합니다. 우리 모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열망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깨달음으로 가는 이정표!"



김종수 감수 · 훤일 지음
신국판 /296쪽 / 값 12,000원

깨달음에는 분명한 공식이 있다.

그 공식은 바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중도연기법'
이 가르침만이 어리석음을 끊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천명하셨다.

민족사